

서울시 물가구조의 특성분석과 정책방향

The Study on Characteristics of Seoul's Price Structure
and Future Policy Perspectives

김범식 최 봉

서울시 물가구조의 특성분석과 정책방향

The Study on Characteristics of Seoul's Price Structure
and Future Policy Perspectives

연구진

연구책임	김범식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
연구원	최 봉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
	황민영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물가는 지역경제 활동 및 정책수립에서 핵심지표

- 물가는 지역경제의 안정 여부를 진단하는 체온계 역할을 수행
- 한 지역의 물가가 갑자기 급등하면, 생산, 소비, 투자 등 지역경제의 안정성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
- 특히 물가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관심의 대상
- 지역 내 가계의 생활수준 및 상태를 가늠할 때는 물가수준을 반영한 소득 기준의 구매력 대소로 파악
- 특히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가계의 경우 지속적인 물가상승이나 높은 물가수준은 가계 부담으로 직결
- 그러나 물가의 중요성에 비해 서울의 물가구조 및 특성에 대한 연구 및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
- 물가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지역별 물가구조 및 특성에 대한 연구는 부재
- 지역의 효율적인 물가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지역물가가 품목별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품목군이 물가불안을 초래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
- 국가차원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물가지수가 작성·제공되고 있으나, 지역 단위에서는 일부 물가지수가 제외

1.2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물가구조의 특성분석을 통해 정형화된 특징(stylized facts)을 파악한 후 이에 기초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

- 첫째, 거시적 측면에서 서울시 물가의 주요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
- 지난 10년간 서울의 소비자물가와 생활물가 등의 흐름과 물가 변동성 수준 등을 분석하고, 근원물가 및 소득계층별 물가지수를 새롭게 작성
- 둘째, 서울의 물가수준을 국내외 주요 도시와 비교 분석
- 서울의 물가수준을 뉴욕 등 주요 해외도시와 비교하고, 주요 생활품목 물가수준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도시와 비교 분석
- 셋째, 미시적 측면에서 서울의 주요 품목별 물가불안 구조를 분석
- 품목별 지출비중을 고려한 물가상승에 대한 기여도, 변동성 수준 등을 고려해 구조적 물가불안 품목을 유형화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2 서울시 물가 동향의 주요 특징

2.1 2011년 이후 서울의 소비자물가는 안정적이고, 근원물가와 격차 축소

- 2000년 이후 지난 13년간 서울의 소비자물가는 평균 3.1% 상승
- 2000년대 초반 서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중반을 상회하는 등 높았으나, 2011년 이후 2% 내외에서 안정세를 유지
- 2000년 이후 서울의 근원물가는 지난 13년간 평균 2.8% 상승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하회
- 서울의 근원물가 상승률은 2000년대 초반에는 3%대에서 2011년 이후에는 2% 초반대로, 특히 2013년 1~7월에는 1% 중반대로 하락
- 근원물가는 전반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밑돌지만, 2013년 들어 그 격차가 축소
- 2000년 이후 지난 13년간 서울의 근원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평균적으로 약 0.3%p 하회
- 근원물가와 소비자물가 간 격차가 과거에 비해 축소된 것은 소비지출 구조 변화와 더불어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의 물가상승에 대한 기여도 감소가 주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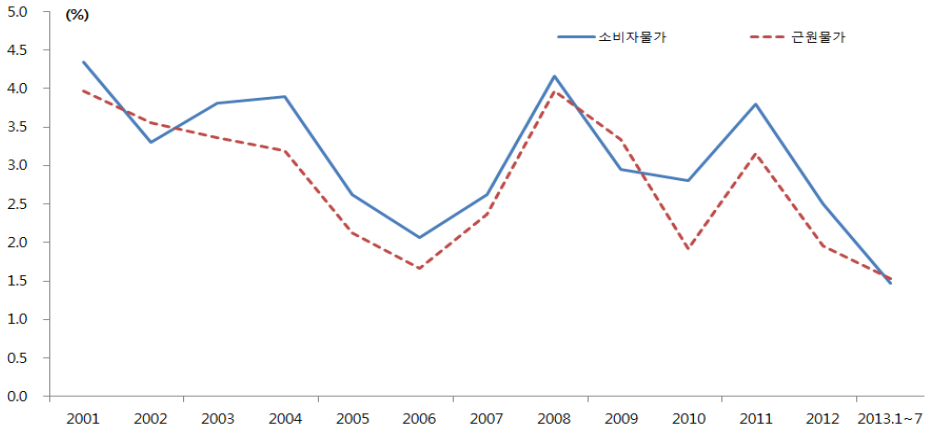


그림 1 서울의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KOSIS, 해당 연도

2.2 최근 이례적으로 생활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하회

- 2013년 1~7월 중 서울의 생활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 대비 0.9%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6%p 하회
- 2000년대 중반이후 생활물가 상승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격차가 축소되는 추세
- 2011년 이후 서울의 생활물가가 소비자물가보다 더 하향 안정화된 것은 무상보육·무상급식 확대실시 등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료 및 급식비 하락, 일부 농축산품의 가격안정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
- 2011~2013년 중 생활물가 안정은 보육시설이용료, 유치원납입금, 학교급식비 등 3대 품목이 평균 -48.4% 기여
- 이밖에 돼지고기, 참외, 이동전화료, 스마트폰 이용료, 조제약, 고등학교 납입금 등이 2011~2013년 중 생활물가 안정을 주도
- 특히 상위 3대 품목은 모두 무상보육 관련 항목으로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 확대가 생활물가 안정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

표 1 2011~2013년 중 서울시 생활물가 하락을 주도한 주요 품목군

(단위 : %)

구분	가중치 비중	주요 품목별 가격 상승률			생활물가에 대한 기여율	
		2011년	2012년	2013년	2011~2013년	2013년
생활물가지수	100.0	3.9	1.9	0.9	100.0	100.0
보육시설이용료	1.32	3.0	-36.2	-32.1	-23.6	-46.9
납입금(유치원)	1.69	2.2	-7.3	-17.9	-12.9	-33.2
학교급식비	0.94	-22.3	-34.2	-13.1	-11.9	-13.6
돼지고기	1.32	31.2	-13.9	-15.7	-7.3	-22.9
이동전화료	4.71	-3.0	-4.8	0.0	-5.2	0.0
조제약	1.03	-0.9	-10.4	-7.5	-4.8	-8.6
납입금(사립대학교)	3.45	2.1	-1.8	-1.2	-2.0	-4.6
참외	0.21	10.4	-8.9	-21.6	-1.8	-5.0
납입금(고등학교)	1.38	-10.4	-2.1	0.1	-1.7	0.1
스마트폰 이용료	2.89	-0.5	-1.3	0.0	-0.8	0.0

주 : 1. 2013년은 1~7월 수치이며, 2011~2013년의 각 기여율은 각 연도 기여율의 평균 수치
 2. 특정 품목의 생활물가에 대한 기여율은 각 생활물가의 구성 품목이 전체 생활물가 증감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모든 구성 품목의 기여율 합은 100임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KOSIS, 해당 연도

- 서울의 생활물가 상승률은 최근 들어 낮아지고 있지만, 16개·시도와 비교하면 높은 편
- 2013년 1~7월 중 전월세를 제외한 서울의 생활물가 상승률은 대구, 울산에 이어 3위이고, 전월세를 포함하면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음

2.3 서울의 물가 변동성은 2001년 이후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서울의 소비자물가 변동성은 2000~2005년 0.73에서 2006~2010년 0.82, 2011년 이후 0.99로 확대
- 물가의 변동성이 높다는 것은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소비자 감시 미흡, 시장의 낮은 물가충격 흡수력 등을 의미
- 서울의 소비자물가 변동성을 전국과 비교하면 추이는 유사하지만, 그 수준은 전국보다 다소 낮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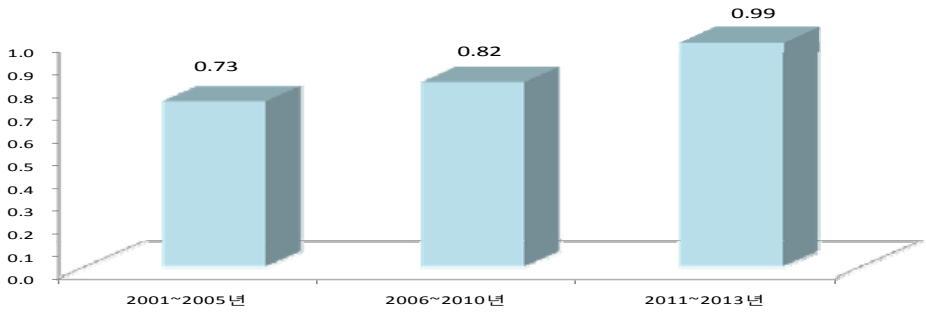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시 소비자물가의 변동성 추이

주 : 2013년은 1/4~2/4분기 수치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KOSIS, 해당 연도

2.4 소득계층별 물가지수 수준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높은 편

- 서울의 소득계층별 물가지수를 산출한 결과, 저소득층의 물가지수 수준이 고소득층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
- 2013년 1~7월 중 저소득층 물가지수는 106.4로 중산층(106.0) 및 고소득층(105.7) 물가지수 수준을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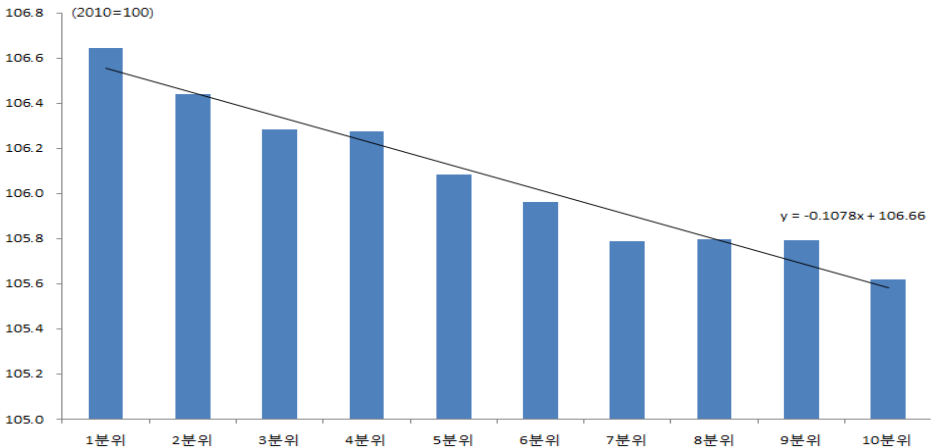


그림 3 2013년 1~7월 중 서울시 소득분위별 물가지수

자료 : 가계소득동향, 2005, 2008,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2005~2013, 통계청

- 2005년 이후 소득계층별 물가지수를 기간별로 보아도 유사
- 2005~2009년 중 서울의 소득계층별 물가지수 평균을 보면, 저소득층 물가지수가 90.6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중산층(90.4), 고소득층(90.3) 등의 순
- 서울의 소득계층별 물가상승률은 2010년 이후 전반적으로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높아, 저소득층의 물가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시사
- 2010~2013년 중 서울의 저소득층 물가상승률은 2.40%인 반면, 중산층과 고소득층 물가상승률은 각각 2.29%, 2.21%
- 특히 소득 최하위 계층인 소득 1분위의 물가상승률이 가장 높고, 최상위 계층인 소득 10분위의 물가상승률이 가장 낮음
- 이러한 분석결과는 최저생계비 산정 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소득계층별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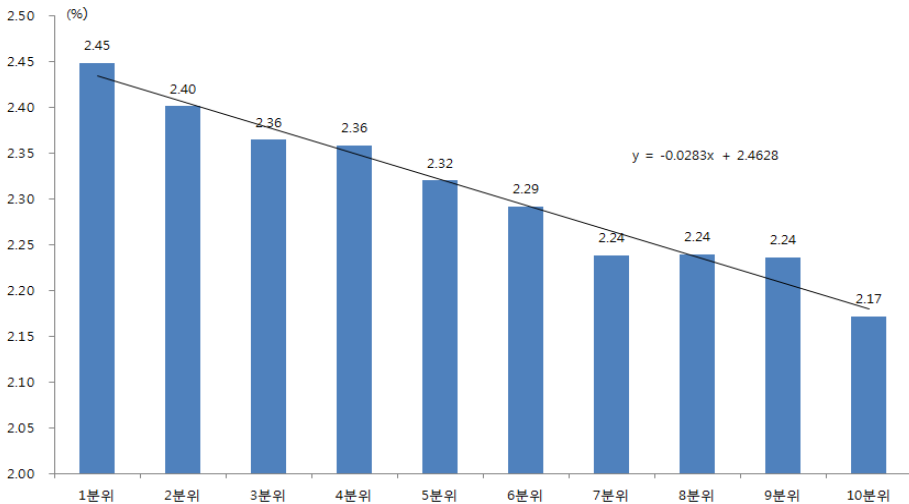


그림 4 2010~2013년 중 서울시 소득분위별 평균 물가상승률

주 : 2013년은 1~7월 기준

자료 : 가계소득동향, 2005, 2008,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2005~2013, 통계청

- 소득계층별 물가상승률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인은 소비지출패턴 차이 (가중치 차이)와 해당 품목의 가격변동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
- 저소득층은 주로 식료품, 주거·광열·수도 등에서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소비지출비중이 큰데, 이들 품목의 가격상승이 저소득층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유발
-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지출비중이 큰 품목들의 물가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소득계층별 물가상승률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

〈참 고〉 소득계층별 물가지수 작성방법 및 자료집합

- 소비자를 소득기준으로 계층별로 구분
- 소득계층은 균등화 소득을 기준으로 10%씩 분위별로 할당하여 소득10분위를 구분
- $$\text{균등화소득} = \frac{\text{가구소득}}{\sqrt{\text{가구원수}}}$$
- 10분위 소득계층은 다시 저소득층(1~3분위), 중산층(4~8분위), 고소득층(9~10분위)으로 그룹화
- 소득계층별·소비품목별 소비지출비중을 구한 후, 이를 활용해 각 소비계층의 품목별 가중치를 산출
- 소득계층별 품목별 가중치와 품목별 소비자물가를 활용해 소득계층별 물가지수를 작성
- 2005년, 2010년 각 기준시점에 따라 구성품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2005년 기준연도로 산출된 지수를 접속계수를 활용해 변환
- 변환예 : $I_t^{10} = I_t^{05} \cdot C^{05}$
여기서, $C^{05} = \frac{I_{10}^{10}}{I_{10}^{05}}$ (2005년 기준지수의 2010년 기준지수 접속계수),
 I_t^{05} = 2005년 기준 t 년도 지수, I_t^{10} = 2010년 기준 t 년도 지수

3 국내외 주요도시 물가수준 비교

3.1 2012년 서울의 물가수준은 세계 72개 도시 중 37위

- UBS에서 조사·발표한 2012년 뉴욕 물가 기준(100)으로 본 서울 물가는 뉴욕의 67% 내외 수준
- 2012년 집세를 제외한 서울 물가는 67.8, 집세를 포함한 서울 물가는 66.3
- 2012년 세계 72개 도시의 물가 순위는 오슬로, 취리히, 도쿄, 제네바 등의 순이며 서울은 72개 도시 중 중위권인 37위(집세 미포함 기준)
- 서울은 해외 주요 도시에 비해 차량과 가전 등 내구재 가격이 비싸고, 여성의류, 남성의류, 버스, 택시, 기차 등의 가격이 비싼 편
- 품목별 뉴욕 물가를 100으로 할 때, 서울의 차량세금은 523.0으로 뉴욕 물가를 5배 웃돌고, 차량유류비(133.3), 차량가격(126.8) 등도 뉴욕 물가수준을 상회
- 품목별 뉴욕 물가를 100으로 할 때, 서울의 기차 요금은 20.3으로 뉴욕의 20% 수준이고, 남성의류(30.6), 버스(37.5), 여성의류(38.6), 택시(40.0) 등도 뉴욕 물가수준을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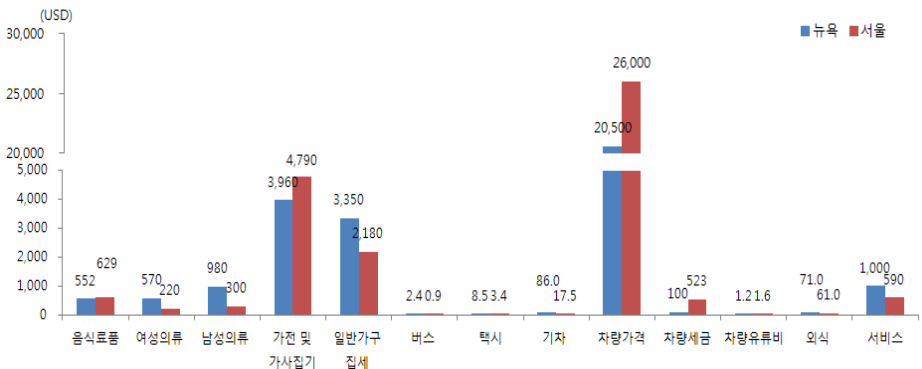


그림 5 2012년 뉴욕과 서울의 주요 품목별 가격수준 비교

자료 : Prices and Earnings, 2012, UBS

- 서울은 높은 도시경쟁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수준이 낮은 편
- 도시경쟁력과 물가수준의 관계를 보면, 전반적으로 도시경쟁력이 높을수록 물가수준도 높은 것으로 분석
- 2012년 모리재단의 상위 14개 도시 경쟁력과 UBS 물가수준의 상관계를 분석한 결과, 0.52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임
- 이는 도시경쟁력이 높을수록 도시 내 유입인구가 늘어나고, 이는 다시 수요확대로 연결되어 물가압력을 증대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그러나 2012년 모리재단의 도시경쟁력 6위인 서울의 물가수준은 37위로 도시경쟁력 상위 10위권 도시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
- 이는 서울이 다른 대도시에 비해 공공요금, 서비스가격 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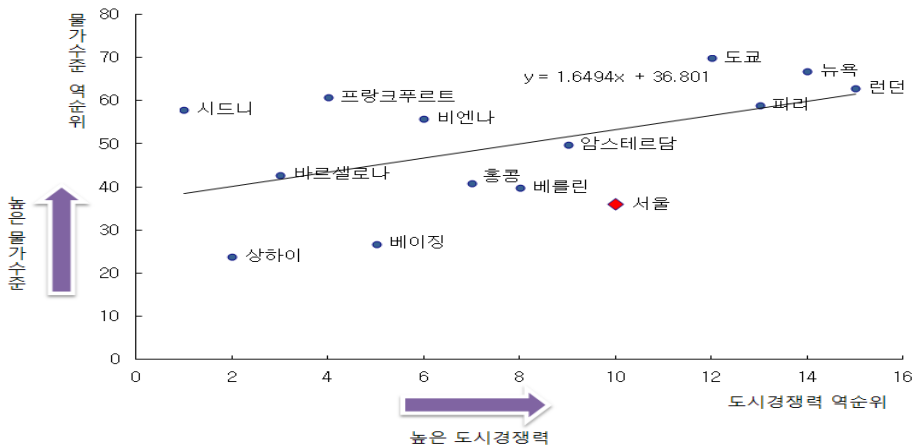


그림 6 모리재단의 도시경쟁력 순위와 UBS의 물가수준 비교

주 : 도시경쟁력 순위와 물가수준 순위는 모두 역순위로 순위가 높을수록 도시경쟁력 및 물가수준이 높음
 자료 : 도시경쟁력 평가체계 비교분석, 2012, 서울연구원; Prices and Earnings, 2012, UBS

3.2 서울의 59개 생활품목 물가수준은 2010년 이후 5개 도시 중 1위

- 서울의 59개 생활품목 물가는 2010년 이후 5대 도시 중 가장 높은 편

- 품목별로는 곡물류, 육란류, 수산물, 연료 등의 서울 물가가 높은 편
- o 한편, 삼푸, 치약 등 공산품으로 구성된 일용품과 배추 등의 채소·양념류 가격은 서울이 5개 도시 중 가장 낮음
- 이는 공산품의 주요 유통망 중 하나인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성장세가 특히 높은 서울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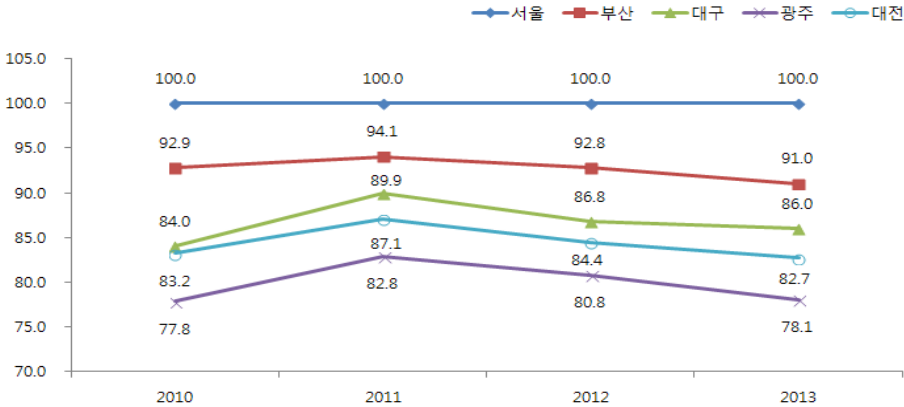


그림 7 국내 주요 5개 도시의 생활품목 물가수준

주 : 2013년 수치는 1~7월 평균 수치

자료 : 한국물가협회, 생활물가동향 및 시세표, 해당 연도

4 물가불안 품목의 유형화

4.1 3단계를 거쳐 서울의 물가불안 품목을 규명

- o 서울의 물가불안 품목 규명은 다음과 같이 3단계 분석 결과를 비교하면서 유형화를 시도
- 1단계 : 2011~2013년 중 개별 품목의 소비비중과 물가상승률 평균을 기준으로 유형화
- 2단계 : 2011~2013년 중 개별 품목의 소비비중과 가격변동성 평균 수준을 기준으로 유형화

- 3단계 : 2011~2013년 중 개별 품목의 물가상승에 대한 기여도와 가격 변동성의 평균 수준을 기준으로 유형화

표 2 물가불안 품목의 유형화 방식 요약

	1단계 : 소비비중과 물가상승률 기준 유형화	2단계 : 소비비중과 가격변동성 기준 유형화	3단계 : 물가기여도와 가격변동성 기준 유형화
기준	▷ 2010년 소비지출비중 ▷ 2011~2013년 중 평균 물가상승률	▷ 2010년 소비지출비중 ▷ 2011년~2013년 중 가격변동성이 평균 수준	▷ 2011~2013년 중 물가상승 기여도 평균 ▷ 2011년~ 2013년 중 가격변동성이 평균 수준
목적	▷ 가게 내 소비지출 비중이 크면서 물가상승률도 높은 품목들을 규명	▷ 가게 내 소비지출 비중이 크면서 물가불안정을 유발하거나 물가수준이 높은 품목들을 규명	▷ 전체 물가에 대한 기여도가 높으면서 고물가 및 물가불안정을 유발하는 품목들을 규명
중점 모니터링 품목 후보군	▷ 소비지출비중이 평균 수준 이상이고 물가상승률도 평균 수준 이상인 품목	▷ 소비지출비중이 평균 수준 이상이고 가격변동성도 큰 품목	▷ 물가상승 기여도가 높고 가격변동성도 큰 품목

- 3가지 유형화 방식의 결과를 보면, 다소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인 특징도 보이고 있고, 종합적으로 볼 때 물가 기여도와 가격변동성 기준 유형화가 물가불안 품목 규명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
- 물가 기여도와 가격변동성 기준은 개념적 측면에서 소비비중과 물가상승률 기준, 소비비중과 가격변동성 기준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 물가 기여도는 개념적으로 소비비중과 물가상승률의 곱으로 표현되므로 소비비중과 물가상승률 기준을 포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 소비비중과 물가변동성 기준은 소비비중을 포함하고 있으나, 물가변동성이 낮더라도 물가수준이 높을 수 있으므로 분석기준으로 다소의 약점을 보유
- 또한 분석결과를 보면, 물가 기여도와 가격변동성 기준으로 선별된 중점 모니터링 후보군이 21개로 가장 많고, 특히 소비비중과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선별된 후보군을 모두 포함

- 따라서 물가 기여도와 가격변동성 기준으로 선별된 후보군 중에서 서울시 정책을 통해 물가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품목을 서울시 물가불안 요인 품목으로 선별하고 주요 품목군에 대한 진단을 실시
- 주요 품목군은 주택임차료 등 ‘주거비’, 학원 및 보습교육 등의 ‘사교육비’, 빵 및 곡물, 과일, 채소 및 야채 등의 ‘식료품’

표 3 소분류 품목의 모니터링 후보 품목군의 유형화 과정

분류 기준	모니터링 품목 후보군
소비비중과 물가상승률 (9개 품목)	주택임차료, 학원 및 보습교육, 개인운송장비 연료 및 윤활유, 가스, 빵 및 곡물, 전기, 채소 및 해조, 과일 도로 여객수송
↓	↓
소비비중과 가격변동성 (19개 품목)	음식서비스, 전화 및 팩스 서비스, 개인운송장비 연료 및 윤활유, 고등교육, 가스, 육류, 빵 및 곡물, 의약품, 채소 및 해조, 여자의류, 과일, 도로 여객수송, 기타서비스, 주택임차료, 학원 및 보습교육, 의료서비스, 전기, 운송장비, 개인용 전기용품 및 미용용품
↓	↓
물가기여도와 가격변동성 (21개 품목)	음식서비스, 가스, 개인운송장비 연료 및 윤활유, 빵 및 곡물, 과일, 기타 식료품, 채소 및 해조,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캐주얼의류, 철도 여객수송, 도로 여객수송, 단체여행, 상하수도료, 과자·빙과류 및 당류, 가구 내 고용 및 가사 서비스, 여자의류, 주택임차료, 학원 및 보습교육, 이미용 및 미용시설, 전기, 남자의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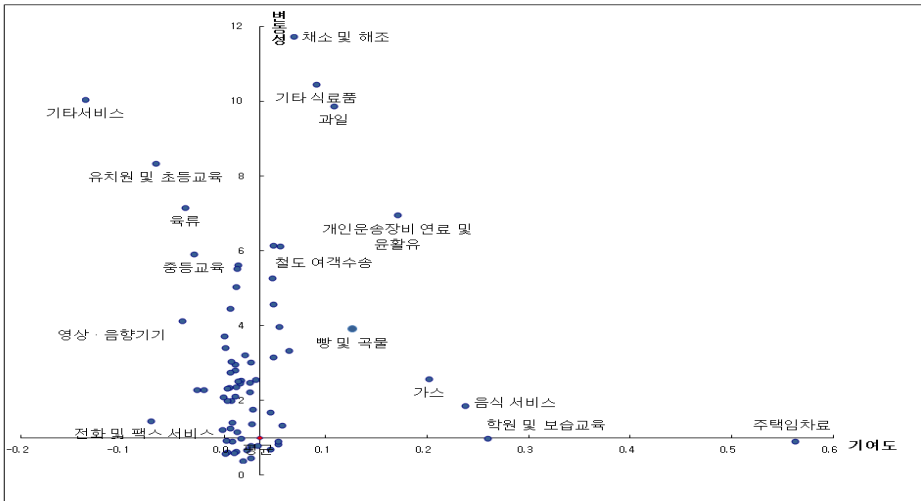


그림 8 비목별 기여도와 가격변동성에 의한 품목 분류

4.2.1 주택임차료 : 전세가격 상승과 공동주택관리비 상승이 주요인

- 서울의 주택임차료 물가불안은 전세의 높은 지출비중과 가격상승 등이 주요인
 - 서울 물가에서 전세 가중치는 107.9로 주택임차료 가중치의 72.8%
 - 전세와 월세의 물가상승률은 모두 평균 수준을 상회하지만, 특히 전세의 물가상승률이 2011~2013년 중 4.2%로 높은 편(월세는 2.8%)
 - 서울의 전세가격 상승은 주택 매매가격 하락세 지속에 대한 기대심리 확대에 임대수요가 확대된 것이 주요인
- 서울의 기타 주거관리 서비스의 물가불안은 공동주택관리비의 높은 물가상승이 주요인
 - 기타 주거관리 서비스 비용은 공동주택관리비, 쓰레기 봉투료, 정화조 청소료로 구성되는데, 이들 품목 중 공동주택관리비 비중이 가장 크고 물가상승률과 가격변동성도 모두 높은 실정
 - 2010~2013년 중 공동주택관리비의 물가상승률은 5.0%
 - 특히 공동주택관리비는 공동주택별로 관리품목 및 비용이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 일괄적인 가격관리 및 안정화가 어려운 실정

4.3 사교육비 :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보습학원비가 주요인

- 서울의 사교육비 지출비중의 48.3%는 중·고등학생 학원비이며, 이들 품목의 물가상승률과 가격변동성이 높은 편
- 2010~2013년 중 중학생 및 고등학생 학원비 품목의 물가상승률은 각각 4.5%, 7.6%
- 중고등학생 학원비가 물가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서울이 사교육비 지출규모와 사교육 참여율이 높기 때문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31만 2천원으로 16개 시·도 중 최고 수준이고, 사교육 참여율도 16개 시·도 중 대구에 이어 2위 수준
- 2012년 시·도별 사교육 참여율 : 대구 75.4%, 서울 73.5%, 대전 73.4% 등의 순
- 특히 예체능, 취미 등 교양사교육(30.9%)보다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비중(58.6%)이 월등히 높은 실정

4.4 식료품 : 빵 및 곡물, 과일, 채소 및 해조 품목 등이 물가불안 주도

- 빵 및 곡물, 과일, 채소 및 해조 품목은 소비지출비중, 물가상승률 및 기여도, 가격변동성 모두 평균 수준 이상인데, 이들을 개별 품목별로 보면, 물가불안을 주도하는 품목이 매우 다양
- 빵 및 곡물은 주로 쌀, 콩, 라면, 두부, 빵 등이 물가불안을 주도
- 쌀은 빵 및 곡물에서 소비지출비중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2011~2013년 중 8.8% 상승
- 과일은 주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밤, 감, 귤, 수박, 바나나 등이 물가불안을 주도
- 과일 중에서 소비지출비중이 가장 큰 사과의 물가는 2011~2013년 중 9.1% 상승
- 채소 및 해조류는 배추, 당근, 고구마, 양파, 미역 등이 물가불안 주도
- 채소 및 해조류 중 소비지출비중이 가장 큰 배추의 물가는 2011~2013년 중 11.7% 상승
- 식료품 가격불안의 주요인은 낮은 곡물 자급률과 유통구조 왜곡
- 한국은 곡물 자급률이 낮아 곡물가격 상승 시 식료품 가격상승을 유발
- 2011년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23.1%로 주요국과 비교할 때, 일본과 더불어 매우 낮은 편
- 미국, 독일, 영국 등의 주요 식품 자급률은 대부분 100%를 상회

- 일본은 곡물 자급률이 낮지만, 1970년대부터 해외곡물 생산기지와 유통시설에 투자함으로써 가격안정을 실현
- 또한 일부 곡물 수입가격과 국내 곡물가공품가격 간에 비대칭성이 존재해 국제 곡물가격 상승은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직결되지만, 국제 곡물가격 하락은 소비자물가 하락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 특히 식료가공품의 원재료이면서 주요 식재료인 농산물은 복잡한 유통구조를 거치면서 유통마진이 매우 높아지고, 이는 최종가격의 상승압력으로 작용
- 주식인 쌀의 유통마진은 약 21%이지만, 사과, 귤 등 과일류의 유통마진은 42~52% 수준이고, 특히 저장성이 좋지 못한 채소 및 해조 품목중 대파는 유통경로에 따라 약 55~62%가 유통마진인 것으로 분석

표 4 주요 농산물의 유통마진

(단위 : %)

	쌀		사과		귤		대파	
	A경로	B경로	A경로	B경로	A경로	B경로	A경로	B경로
농가수취율	79.1	78.5	57.3	55.3	48.0	48.5	37.6	44.7
유통마진	21.0	21.6	42.7	44.7	52.0	51.6	62.4	55.3

주 : 1. A경로는 대형유통업체를 경유하지 않는 전통적인 유통방식(생산자→도매상→소매상→소비자), B경로는 하나로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를 경유하는 방식(생산자→산지유통인→도매상→소매상→소비자 혹은 생산자→대형유통→대형마트→소비자)
2. 2010~2011년 지역 구분 없이 평균 수치를 활용

5 향후 정책방향

5.1 중점 물가모니터링 품목의 선정과 관리

- 서울의 지속적인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물가불안을 초래하는 품목들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
- 품목별로 소비지출비중, 물가상승률, 가격변동성 등을 활용해 구조적 물가불안 품목을 선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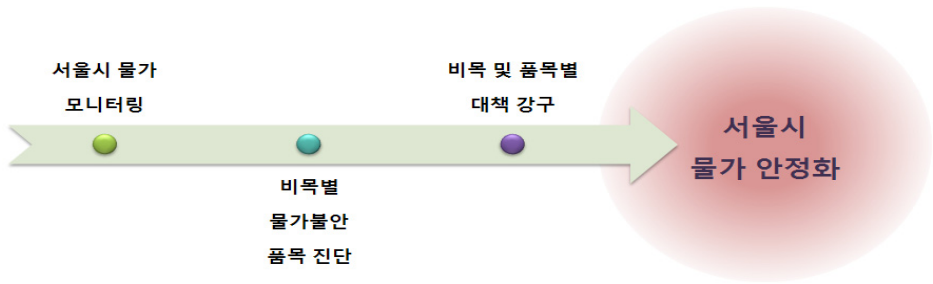


그림 9 서울의 중점 물가모니터링 품목의 선정과 관리

- 서울의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여도와 가격변동성을 기준으로 물가불안 품목을 유형화한 결과, 소분류 기준으로는 21개 품목이 중점 물가모니터링 품목으로 선별
- 소분류 기준 21개 품목은 표 3의 음식서비스, 가스, 개인운송장비 연료 및 윤활유, 빵 및 곡물, 과일, 채소 및 해조, 주택임차료, 학원 및 보습교육 등
- 이를 481개 세분류 품목 대상으로 물가상승에 대한 기여도와 가격변동성을 기준으로 유형화를 하면, 총 116개의 품목이 중점 물가모니터링 품목으로 선별
- 116개 품목은 표 5의 쌀, 콩, 라면, 사과, 배추, 전세, 월세, 설비수리비, 상하수도료, 공동주택관리비, 전기료, 지역난방비, 가사도우미료, 한방약, 외래진료비, 학원비, 도시가스, 휘발유 등

표 5 서울의 세분류 기준 중점 물가모니터링 품목

소분류 품목	세분류 품목	소분류 품목	세분류 품목
빵 및 곡물	쌀, 콩, 라면, 두부, 빵	의료용품 및 치료기기	위생대
어류 및 수산	생선통조림	의료서비스	외래진료비
우유, 치즈 및 계란	우유, 발효유, 달걀	기타 의료서비스	치과진료비
과일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밤, 감, 귤, 수박, 바나나	병원 서비스	입원진료비
채소 및 해조	배추, 당근, 고구마, 양파, 미역	개인운송장비 연료 및 윤활유	휘발유, 경유, LPG(자동차용)
과자, 빙과류 및 당류	아이스크림, 비스킷, 스낵과자	개인운송장비 관련 기타 서비스	승용차임차료
기타 식료품	고춧가루, 간장, 고추장, 김치, 밑반찬, 즉석식품	철도 여객수송	전철료
커피, 차 및 코코아	커피	도로 여객수송	시내버스료
생수, 청량음료, 과일주스 및 채소주스	과일주스, 탄산음료	항공 및 수상여객운송	국제항공료
담배	담배(수입)	기타 여객운송	이삿짐운송료
남자의류	남자정장, 남자외투, 남자내의	오락 및 스포츠 서비스	골프장이용료
여자의류	여자정장, 여자외투, 원피스	문화 서비스	사진촬영료
캐주얼의류	점퍼, 티셔츠, 청바지, 운동복,	서적	서적
아동복·유아복	아동복	단체여행	단체여행비(국내), 단체여행비(해외)
신발	남자구두, 여자구두	학원 및 보습교육	학원비(초등학생), 학원비(중학생), 학원비(고등학생), 음악학원비, 미술학원비, 운동학원비, 가정학습지
주택임차료	전세, 월세	성인학원 및 기타교육	취업학원비, 외국어학원비
주거시설 유지·보수	설비수리비	음식 서비스	김치찌개백반, 된장찌개백반, 비빔밥, 설령탕, 해물찜, 해장국, 쇠고기(외식), 돼지갈비(외식), 삼겹살(외식), 오리고기(외식), 냉면, 칼국수, 생선회(외식), 자장면, 돈가스, 피자, 커피(외식), 소주(외식), 맥주(외식), 구내식당식사비
상하수도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개인용 전기용품 및 미용용품	로션, 선크림, 영양크림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공동주택관리비	기타 개인용품	장신구, 가방
전기	전기료		
가스	도시가스		
기타연료 및 에너지	지역난방비		
가정용 섬유제품	침구		
주방용품 및 가정용품	부엌용 용구		
가구내 고용 및 가사 서비스	가사도우미료		
의약품	한방약		

5.2.1 주거비 부담 완화

- 전세수요 충족을 위한 공급물량 확대 및 세입자 권익보호 등을 통한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
- 서울의 가구특성을 고려해 소형주택 등 시장수요 반영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을 확대
- 또한 공공임대주택이 질적 향상을 통해 주택시장에서 수요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등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
- 공동주택관리비의 비합리적인 인상을 억제하고 관리비 절감을 유도
- 공동주택의 관리비 비교, 회계자료 등의 서비스제공을 더욱 강화
- 공동주택 관리비와 관련 회계서류를 일정 기간 보관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한 방안
- 또한 철저한 시설관리 등의 홍보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비 절감을 유도
- 정기적인 급수관 청소 등으로 공동수도료 절감, 실외기의 먼지청소 등을 통한 공동전기료 절감 등

5.2.2 사교육비 안정화

-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대안은 공교육의 질적 향상
- 학교 수업외의 보습학원비가 주요 물가 상승요인이므로 학교보충교육의 질적 강화가 요구
- 방과후학교 지원예산을 확대하여 방과후 프로그램을 내실화
- ‘수준별 방과후 학습’, ‘EBS 자율학습기기’ 등의 지원과 저소득층 초·중고생용 방과후 돌봄을 강화
- 특히 현재 성동구 등 3개 자치구에서 자치구 사업으로 시행 중인 ‘지역창의 자기주도학습센터’를 확대

- 또한, 현재 돌봄, 보육, 교육 분야에서 활동 중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사교육시장을 다양화
- 교육부형 예비 사회적기업인 사단법인 ‘서경뮤직스쿨’은 지역 내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학교 음악교육 프로그램 진행

5.3 농산물 가격관리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

- 일반 소비자들의 도·농 간 농수산물 직거래 유통경로 확대를 위해 농수산물 등 먹거리 관련 소비자협동조합 등의 홍보 및 지원을 통해 도·농간 직거래 운동을 장려
- 현재 ‘한살림’, ‘쌈지 농부로부터’와 같은 생활협동조합 형태의 유통망을 통해 생산자·소비자 간 직거래가 일부 이뤄지고 있음
- 서울은 대형 도매시장을 이용한 유통망 관리 및 수급상황 실시간 예보, 가격공시 등을 통해 도매시세가 어느 정도 관리 가능
- 서울은 가락시장, 양곡시장 등 전국유통망을 가진 대형 도매시장이 입지하여 각 산지의 수급물량에 맞춘 도소매가가 형성되는 시장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
- 서울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관리·운영하는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 등을 통해 농수산식품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 가격을 유지
- 지속적인 유통정보 제공을 통한 유통품목의 경매정보, 등급별 가격, 거래가격 등 시장 정보 제공
-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서울시 등이 산지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미리 선구매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소비비중이 높은 필수 농수산물의 공급 및 수요 급증을 미리 예방하는 것도 대안
- 산지직거래 활성화, 온라인 거래 등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을 모색

- 산지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고정 장소를 마련해 매월 혹은 계절별로 직거래 참여 희망 산지 및 참여 희망 업체를 선별한 후 서울시민과 산지 간 농수산물 직거래 창구를 확대 구축
- 서울시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등 서울시의 열린 공간을 통해 서울시 주도의 임시 직거래 장터를 운영
- 그 외에도 서울시의 서울광장 등에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지방신문협회 등 산지관련 생산자 및 판매자 단체 주도의 장터가 한시적으로 열림
-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의 유통망 및 이용점포 확대 등을 통해 농수산물 유통망 개선과 더불어 영세소매업의 판매가격 안정화를 도모
- 2013년 2월 양재동에 개장된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는 냉장·냉동창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점포 확대 및 시설 활용도를 제고할 경우 유통단계 축소 등 유통물류비 절감 기대

차례

I	연구개요	32
1	연구배경 및 목적	32
1 1	연구배경	32
1 2	연구목적	33
2	연구범위 및 방법	34
2 1	연구범위	34
2 2	연구방법	34
2 3	연구 플로우	34
II	서울시 물가동향과 주요특징	38
1	2000년 이후 서울시 물가추이	38
1 1	물가지수 개관	38
1 2	서울시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추이	40
1 3	서울시 생활물가 추이	44
1 4	서울시 신선식품물가 추이	49
2	서울시 물가수준 비교	51
2 1	서울시 물가의 국제비교	51
2 2	서울 등 국내 주요 5개 도시의 생활품목 물가수준 비교	56
3	서울시 물가의 변동성 분석	63
3 1	서울의 물가지수별 변동성	63
4	소득계층별 물가수준 비교	65
4 1	분석개요	65
4 2	서울의 소득계층별·소비품목별 지출구조	68
4 3	서울의 소득계층별 물가지수 수준 추이	71

III	서울시의 주요 품목별 물가구조 분석	80
1	지출목적별 품목구조	80
1 1	지출목적에 따른 분류위계	80
1 2	서울의 대분류 품목별 가중치 구조	83
2	품목별 물가 기여도와 물가변동성 분석	85
2 1	소분류 품목별 가중치 구조와 물가상승률 수준	85
2 2	소분류 품목별 물가상승기여도 분석	90
2 3	소분류 품목별 물가변동성 분석	93
3	물가불안 품목의 유형화	96
3 1	분석개요	96
3 2	소비비중과 물가상승률 기준 유형화	97
3 3	소비비중과 가격변동성 기준 유형화	102
3 4	기여도와 가격변동성 기준 유형화	106
3 5	물가불안 품목의 유형화에 대한 종합판단	109
4	주요 물가불안 품목 진단	110
4 1	주거비	110
4 2	사교육비	113
4 3	식료품	115
IV	향후 정책방향	120
1	중점 물가모니터링 품목의 선정과 관리	120
1 1	중점 물가모니터링 품목의 선정과 주기적인 관리 필요	120
1 2	서울의 중점 물가모니터링 품목은 총 116개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	120
2	주요 서민물가 안정화 방안	123
2 1	주거비 안정화	123
2 2	사교육비 안정화	124
2 3	농산품 가격관리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	126

참고문헌	132
부록	136
Abstract	154

표차례

표 2-1	서울시 소비자물가의 품목성질별 가중치 및 기여도 추이	42
표 2-2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추이	43
표 2-3	서울과 전국의 생활물가 상승률 추이	45
표 2-4	2011~2013년 중 서울시 생활물가 하락을 주도한 주요 품목군	46
표 2-5	서울의 전월세 포함 및 전월세 제외 생활물가 상승률 비교	47
표 2-6	서울의 집세가격 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에 대한 기여율	47
표 2-7	서울과 전국의 신선식품물가 상승률 추이	49
표 2-8	2012년 서울시의 세계 주요도시 물가 순위	51
표 2-9	뉴욕기준 서울 물가지수의 추이	52
표 2-10	해외 주요도시의 도시경쟁력과 물가수준 순위 비교	55
표 2-11	서울과 비교 도시의 생활품목 물가수준 격차	58
표 2-12	서울 및 전국의 물가지수별 변동성 추이	65
표 2-13	소비자물가조사와 가계동향조사 간 소비품목의 분류 조정	67
표 2-14	2008년과 2010년의 전국 전체가구(2인 이상)의 품목별 소비비중 차이	68
표 2-15	2008년 서울의 소득분위별·소비품목별 지출비중	71
표 2-16	2005~2013년 중 소득계층별 물가지수 추이	74
표 2-17	서울의 소득계층별 물가지수별 증가율 추이	76
표 2-18	2010~2013년 중 소득계층별 물가상승에 대한 품목별 기여도	78
표 3-1	지출목적별 대분류 내역 및 중분류 이하 품목수	80
표 3-2	지출목적별 분류의 품목구성 내역	81
표 3-3	2000년 이후 서울의 지출목적별 품목의 가중치 추이	85
표 3-4	2010년 서울의 소분류 품목 중 상위 1% 이상 가중치 비중 품목	86
표 3-5	2005년과 2010년 서울의 소분류 10대 품목의 가중치 비중 비교	88

표 3-6	2010~2013년 중 서울의 평균 물가상승률 상위 10대 품목	89
표 3-7	2011~2013년 중 서울의 물가상승률에 대한 평균 기여도 상위 10대 품목	91
표 3-8	서울의 2011~2013년 중 소분류 기준 물가변동성 상위 품목	94
표 3-9	물가불안 품목의 유형화 방식	97
표 3-10	소비비중과 물가상승률 기준 소분류 품목의 유형화	100
표 3-11	소비비중과 변동성 기준 소분류 품목의 유형화	104
표 3-12	기여도와 가격변동성 기준 소분류 품목의 유형화	108
표 3-13	분류 유형별 소분류 기준 물가 모니터링 품목 후보군	110
표 3-14	2011~2013년 중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지수 및 전세가격지수의 전년대비 증가율	112
표 3-15	2012년 시·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114
표 3-16	2012년 시·도별 사교육 참여율	115
표 3-17	주요국의 주요 식품 자급률 비교	117
표 3-18	주요 농산물의 유통마진	118
표 4-1	서울의 중점 물가모니터링 품목	122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 흐름도	35
그림 2-1	서울의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추이	40
그림 2-2	2013년 1~7월 중 16개 시·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43
그림 2-3	서울시 소비자물가 및 생활물가 상승률 추이	44
그림 2-4	16개 시·도의 2013년 1~7월 중 생활물가 상승률	48
그림 2-5	16개 시·도의 2013년 1~7월 중 신선식품물가 상승률	50
그림 2-6	2012년 뉴욕과 서울의 주요 품목별 가격수준 비교	53
그림 2-7	모리재단의 도시경쟁력 순위와 UBS의 물가수준 비교	54
그림 2-8	국내 주요 5개 도시의 생활품목 물가지수	58
그림 2-9	2013년 1~7월 중 주요 5개 도시의 곡물류 물가수준	59
그림 2-10	2013년 1~7월 중 주요 5개 도시의 육란류 물가수준	59
그림 2-11	2013년 1~7월 중 주요 5개 도시의 수산물 물가수준	60
그림 2-12	2013년 1~7월 중 주요 5개 도시의 연료 물가수준	60
그림 2-13	2013년 1~7월 중 주요 5개 도시의 과일류 물가수준	61
그림 2-14	2013년 1~7월 중 주요 5개 도시의 가공식품 물가수준	61
그림 2-15	2013년 1~7월 중 주요 5개 도시의 음료·주류 물가수준	62
그림 2-16	2013년 1~7월 중 주요 5개 도시의 일용품 물가수준	62
그림 2-17	2013년 1~7월 중 주요 5개 도시의 채소·양념류 물가수준	63
그림 2-18	서울시 소비자물가의 변동성 추이	64
그림 2-19	2008년 서울시 소득계층별 균등화 소득	69
그림 2-20	2008년 서울의 소득계층별·소비품목별 지출비중	70
그림 2-21	2013년 1~7월 중 서울시 소득분위별 물가지수	72
그림 2-22	2005~2009년 중 서울시 소득분위별 물가지수	73

그림 2-23	2010~2013년 중 서울시 소득분위별 평균 물가상승률	75
그림 3-1	2010년 서울과 전국의 대분류 품목별 가중치 비교	83
그림 3-2	소비비중과 물가상승률에 의한 품목 분류	99
그림 3-3	소비비중과 가격변동성에 의한 품목 분류	103
그림 3-4	품목별 기여도와 가격변동성에 의한 품목 분류	107
그림 4-1	서울시 중점 물가모니터링 품목의 선정과 관리	120

I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I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1.1 연구배경

1.1.1 물가는 지역경제 활동 및 정책수립에서 핵심지표

- 물가는 지역경제의 안정 여부를 진단하는 체온계 역할을 수행
- 한 지역의 물가가 갑자기 급등하면, 생산, 소비, 투자 등 지역경제의 안정성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
- 물가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급동향을 판단할 수 있는 일차적 지표
- 일반적으로 물가는 경기 상승국면에서는 수요증가로 상승하고, 하강국면에서는 수요감소로 하락하는 등 경기동향에 민감하게 반응

1.1.2 특히 물가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관심의 대상

- 물가는 지역 내 가계의 생활수준 및 상태를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
- 지역 내 가계의 생활수준 및 상태를 가늠할 때는 물가수준을 반영한 소득 기준의 구매력 대소로 파악
- 일반적으로 물가는 화폐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이 줄어들게 되므로 화폐의 구매력이 하락
- 특히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가계의 경우 지속적인 물가상승이나 높은 물가수준은 가계 부담으로 직결
- 식료품 등 생필품과 주거비 등의 가격상승이 대표적 사례
- 또한 특정 지역의 물가는 정책입안자뿐 아니라 지역 내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 및 자영업자, 그리고 지역이동을 고려하는 기업과 가계에도 주된 관심 대상

그러나 물가의 중요성에 비해 서울의 물가구조 및 특성에 대한 연구 및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

- 물가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지역별 물가구조 및 특성에 대한 연구는 부재
- 지역의 효율적인 물가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물가가 품목별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떤 품목군이 물가불안을 초래하는지 파악할 필요
- 국가차원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물가지수가 작성·제공되고 있으나, 지역 단위에서는 일부 물가지수가 제외
- 예를 들어 물가의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전국 단위로만 작성·공표되고, 지역단위에서는 제공되지 않음
- 또한 소득계층별 물가지수도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및 지역단위로 소득계층별 물가지수가 작성되지 않고 있음

연구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물가구조에 대한 특성분석을 통해 서울시 물가에 대한 정형화된 특징(stylized facts)을 파악한 후 이에 기초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음
- 첫째, 거시적 측면에서 서울시 물가의 주요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
 - 지난 10년간 서울의 소비자물가와 생활물가 등의 흐름과 물가 변동성 수준 등을 분석하고, 근원물가 및 소득계층별 물가지수를 별도로 산출
- 둘째, 서울의 물가수준을 국내외 주요 도시와 비교 분석
 - 서울의 물가수준을 뉴욕 등 주요 해외도시와 비교하고, 서울의 주요 품목별 물가수준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도시와 비교 분석
- 셋째, 미시적 측면에서 서울의 주요 품목별 물가불안 구조를 분석
 - 품목별 물가상승에 대한 기여도 및 구조적 물가불안 품목을 유형화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2 연구범위 및 방법

2.1 연구범위

- 서울시 물가구조의 특성분석을 위해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
- 지역범위 : 서울을 주된 대상으로 하되, 전국을 비교대상으로 활용
- 품목범위 : 총 481개 품목
- 분석기간 : 2000년 ~ 2013년 1~7월

2.2 연구방법

- 문헌조사
- 물가구조의 분석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 등을 통해 주요 분석방법 및 이론적 틀을 정립
- 해외 주요도시의 물가수준 등 해외문헌 조사
- 통계분석
- 2000년 이후 서울시 물가구조 관련 DB 구축 등을 통해 서울시 물가에 대한 품목별 기여도, 물가변동성 등의 통계 분석과 서울시 근원물가 및 소득계층별 물가지수를 새롭게 산출
- 자문회의
- 물가구조 관련 연구자 및 정책담당자들과의 자문회의

2.3 연구 플로우

- 이 연구는 총 4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흐름은 다음과 같음
- 제1장의 연구개요에서는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해 논의
- 제2장의 서울시 물가동향과 주요 특징에서는 2000년 이후 서울시 물가

추이 분석, 국내의 주요도시와 서울의 물가수준 비교, 서울시 물가의 변동성 분석, 소득계층별 물가수준 산출 및 비교 등을 실시

- 제3장의 서울시 주요 품목별 물가구조 분석에서는 지출목적별 물가구조, 품목별 물가기여도와 물가변동성 파악, 구조적 물가불안 품목의 유형화 등을 수행
- 제4장의 향후 정책방향에서는 서울시의 중점 물가모니터링 품목 선정과 주요 서민물가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

I.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II. 서울시 물가동향과 주요 특징

1. 2000년 이후 서울시 물가추이
2. 서울시 물가수준 비교
3. 서울시 물가의 변동성 분석
4. 소득계층별 물가수준 비교

III. 서울시의 주요 품목별 물가구조 분석

1. 지출목적별 품목구조
2. 품목별 물가기여도와 물가변동성 분석
3. 물가불안 품목의 유형화
4. 물가불안요인 품목의 진단

IV. 향후 정책방향

1. 중점 물가모니터링 품목의 선정과 관리
2. 주요 서민물가 안정화 방안

그림 1-1 연구 흐름도

II 서울시 물가동향과 주요특징

- 1 2000년 이후 서울시 물가추이
- 2 서울시 물가수준 비교
- 3 서울시 물가의 변동성 분석
- 4 소득계층별 물가수준 비교

II 서울시 물가동향과 주요특징

1 2000년 이후 서울시 물가추이

1.1 물가지수 개관

1.1.1 서울의 물가추이를 보여주는 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근원인플레이션 등 매우 다양¹

-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 월 평균 소비지출액의 1/10,000 이상인 총 481개 품목의 가격변동을 가중평균해 작성한 물가지수
 - 대표적인 물가지수이지만,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물가와 다소 괴리가 발생
 -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계의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각 상품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 후 그 가중치에 비례해 개별 상품의 가격변동이 전체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포착
 -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비자물가는 구입빈도가 빈번한 품목을 대상으로 가중치를 무시하고 개별상품의 가격변동을 단순히 평균하는 경향²
- 생활물가지수(CPI for Living Necessaries)
 - 구입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총 142개 품목으로 구성된 일종의 ‘장바구니’ 물가지수
 - 두부, 돼지고기 등 월 1회 이상 구입품목, 쌀, 닭고기 등 소득의 증감과 관계없이 지출하면서 분기 1회 이상 구입품목, 그리고 납입금 등 소비지출 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품목 등으로 구성
- 신선식품지수(CPI by Fresh Food)

1 통계청, 2012년, 소비자물가지수 연보 해설자료 참조

2 한국은행, 2010년, 『알기쉬운 경제지표 해설』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 등 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1개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한 지수
- o 근원물가지수(Core Inflation)
-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곡물 이외의 농산물과 석유류 품목을 제외한 429개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한 지수
- 그러나 현재 통계청은 전국 단위로만 근원물가를 작성·발표하고, 시·도별로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근원물가 작성방법을 원용해 서울의 근원물가를 직접 산출

〈참 고〉 서울의 근원물가지수 산출방법

- o 근원물가지수의 구성품목인 429개의 개별 품목 가중치와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해 2000~2005년, 2005~2010년, 2010~2013년 근원물가지수를 각각 작성
- o 연도별로 산출된 근원물가지수를 접속계수를 활용해 2010년 기준지수로 환산하여 최종적으로 2010년 기준 근원물가지수를 산출
- 2000년, 2005년, 2010년 각 기준시점에 따라 구성품목이 변경되었으므로 2000년, 2005년 기준연도로 산출된 지수는 접속계수를 활용해 변환

$$\bullet \quad \text{품목별 지수} = \frac{\sum \frac{P_t}{P_0} W_c}{\sum W_c} \times 100,$$

P_o = 서울의 품목별 기준년 가격, P_t = 서울의 품목별 비교년 가격,
 W_c = 서울의 품목별 가중치

$$\bullet \quad \text{변화에 : } I_t^{10} = I_t^{05} \cdot C^{05}$$

여기서, $C^{05} = \frac{I_{10}^{10}}{I_{10}^{05}}$ (2005년 기준지수의 2010년 기준지수 접속계수),
 I_t^{05} = 2005년 기준 t 년도 지수, I_t^{10} = 2010년 기준 t 년도 지수

1.2 서울시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추이

1.2.1 서울의 소비자물가는 2011년 이후 안정세 지속

- 2000년 이후 지난 13년간 서울의 소비자물가는 평균 3.1% 상승
- 2000년대 초반 서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중반을 상회하는 등 높았으나, 2011년 이후 2% 내외에서 안정세를 유지
- 기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 2001~2005년 3.6% → 2006~2010년 2.9% → 2011~2013년 1~7월 2.6%(2001~2013년 1~7월 3.1%)
- 특히 2013년 1~7월 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1.5% 증가에 그치는 등 예년에 비해 매우 안정적
- 또한 2000년 이후 서울의 근원물가는 지난 13년간 평균 2.8% 상승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하회
- 서울의 근원물가 상승률은 2000년대 초반 3%대에서 2011년 이후에는 2% 초반대로, 특히 2013년 1~7월에는 1% 중반대로 하락
- 근원물가 상승률 추이 : 2001~2005년 3.3% → 2006~2010년 2.7% → 2011~2013년 1~7월 2.2%(2001~2013년 1~7월 2.8%)



그림 2-1 서울의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KOSIS, 해당 연도

- 근원물가는 전반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밑돌지만, 2013년 들어 그 격차가 축소
- 2000년 이후 지난 13년간 서울의 근원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평균적으로 약 0.3%p 하회
- 근원물가 상승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격차 : 2001~2005년 -0.4%p
→ 2006~2010년 -0.3%p → 2011~2013년 1~7월 -0.4%p
- 그러나 2013년 1~7월 중에는 근원물가 상승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간 격차가 0.0%p로 축소
- 2013년 들어 근원물가 상승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간 격차가 과거에 비해 축소된 것은 소비구조 변화에 따른 가중치 변화,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의 물가상승에 대한 기여도 감소가 주원인
- 서울시 가계의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 지출 비중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면서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이들 품목의 가중치 비중도 축소
- 소비자물가의 농축수산물 가중치 비중 : 2000년 10.03% → 2005년 7.94% → 2010년 7.27%
- 소비자물가의 석유류 가중치 비중 : 2000년 4.98% → 2005년 4.01% → 2010년 3.58%
- 즉,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의 가중치가 과거에 비해 작아지면서 같은 수준의 물가가 상승해도 전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축소
- 또한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 가격이 2013년에 하락하면서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의 격차가 축소
- 2013년 1~7월 중 서울의 농축수산물과 석유류의 물가상승률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1.5%, -2.7%를 기록
- 농축수산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여도는 2011년 이후 평균 0.24%p였으나, 2013년 1~7월 중에는 -0.11%p로 마이너스 기여
- 또한 석유류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여도도 2013년 1~7월 중 -0.10%p로 2011년 이후 평균 기여도(0.17%p)에 비해 낮은 편

표 2-1 서울시 소비자물가의 품목성질별 가중치 및 기여도 추이

(단위 : %p)

구분	품목별 가중치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여도		
	2000년	2005년	2010년	2001~2004년	2006~2009년	2011~2013년	2013년
총지수	1000	1000	1000	3.84	2.95	2.59	1.47
농축수산물	100.3	79.4	72.7	0.72	0.17	0.24	-0.11
농산물	61.8	49.6	42.1	0.39	0.04	0.25	0.01
축산물	23.4	19.1	20.7	0.26	0.08	-0.04	-0.13
수산물	15.1	10.7	9.9	0.07	0.05	0.02	0.00
공업제품	316.8	270.8	276.7	0.71	0.93	0.77	0.28
석유류	49.8	40.1	35.8	0.25	0.20	0.17	-0.10
가공식품	60.2	53.8	65.3	0.16	0.30	0.28	0.16
내구재	70.7	58.1	44.0	-0.04	0.15	-0.03	-0.02
전기·수도·가스	-	-	50.8			0.28	0.28
서비스	582.9	649.8	599.8	2.38	1.81	1.29	1.03
집세	172.9	146.2	148.2	0.88	0.28	0.56	0.42
공공서비스	142	168.8	141.9	0.41	0.46	0.10	0.16
개인서비스	268.0	334.8	309.7	1.08	1.07	0.63	0.44

주 : 1. 기여도는 해당 연도 기여도의 평균값

2. 2013년은 1~7월 기준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KOSIS, 해당 연도

1 2 2 서울의 물가상승률은 안정적이지만, 16개 시·도 중 2위 수준

- 서울의 물가상승률은 2000년 이후 전반적으로 전국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들어 전국 수준을 소폭 상회
- 서울의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은 2000년대 초반까지 전국보다 다소 높았다가 2000년대 중반에는 전국보다 낮았으나, 최근에는 다시 전국 수준을 소폭 상회
- 2011~2013년(1~7월) 중 서울의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은 전국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을 각각 0.1%p 상회

표 2-2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

구분	2001~ 2013년	기간별 물가상승률				
		2001~2005년	2006~2010년	2011~2013년	2013년	
서울 소비자물가	3.1	3.6	2.9	2.6	1.5	
	2.8	3.2	2.6	2.2	1.5	
전국 소비자물가	3.0	3.3	3.0	2.5	1.3	
	2.7	3.0	2.7	2.1	1.4	

주 : 2013년은 1~7월 수치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KOSIS, 해당 연도

- 2013년 1~7월 중 서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개 시·도 중 대구에 이어 2위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대구가 1.54%로 가장 높고, 서울이 1.47%로 2위이며, 강원이 0.55%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
- 이는 서울의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이지만, 물가안정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
- 16개 시·도의 물가 상승률은 최고 1.54%에서 최저 0.55%까지 편차가 큰 가운데 경북, 대전, 경남, 강원 1% 미만의 상승률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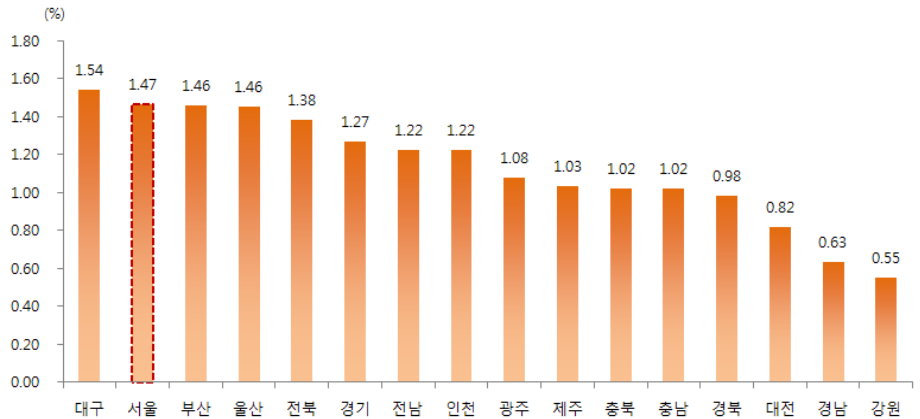


그림 2-2 2013년 1~7월 중 16개 시·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KOSIS, 해당 연도

13.1 최근 서울시 생활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하회

- 2013년 1~7월 중 서울시 생활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 대비 0.9%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6%p 하회
- 2000년대 중반 이후 생활물가 상승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간 격차가 축소되는 추세
- 서울시 생활물가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격차 : 2001~2005년 0.7%p → 2006~2010년 0.4%p → 2011~2013년(1~7월) -0.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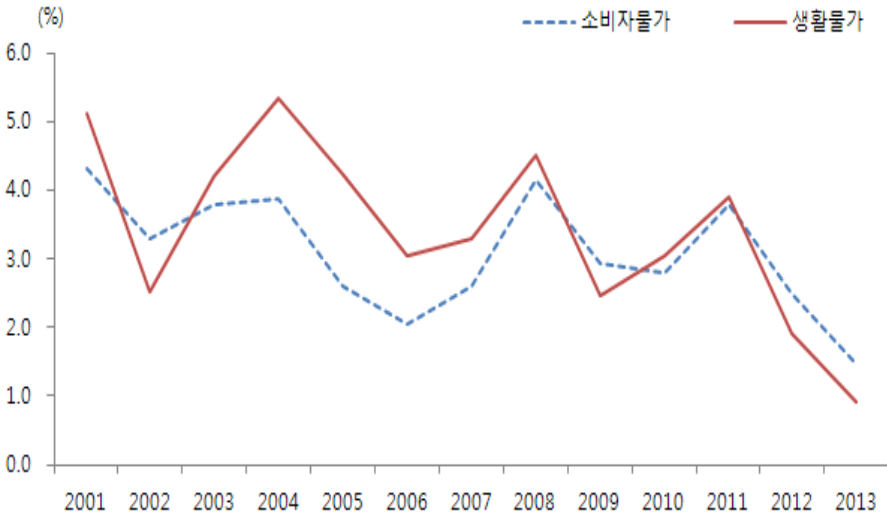


그림 2-3 서울시 소비자물가 및 생활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KOSIS, 해당 연도

- 생활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최근 현상은 이례적이지만, 이는 2011년 이후 전국적인 현상
- 전국의 생활물가 상승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격차 : 2001~2005년 0.8%p → 2006~2010년 0.4%p → 2011~2013년(1~7월) -0.3%p

표 2-3 서울과 전국의 생활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

구분	2001~ 2013년	기간별 물가상승률			
		2001~2005년	2006~2010년	2011~2013년	2013년
서울 생활물가	3.4	4.3	3.3	2.2	0.9
소비자물가	3.1	3.6	2.9	2.6	1.5
전국 생활물가	3.4	4.1	3.4	2.2	0.6
소비자물가	3.0	3.3	3.0	2.5	1.3

주 : 2013년은 1~7월 수치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KOSIS, 해당 연도

- 2011년 이후 서울의 생활물가가 소비자물가보다 더 하향 안정화된 것은 무상보육·무상급식 확대 실시 등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료 및 급식비 하락, 일부 농축산품의 가격안정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
- 2011~2013년 중 생활물가 안정은 보육시설이용료, 유치원납입금, 학교급식비 등 3대 품목이 평균 -48.4% 기여
- 2011~2013년 중 보육시설이용료, 유치원납입금, 학교급식비 등의 서울시 생활물가에 대한 기여율은 각각 -23.6%, -12.9%, -11.9%
- 이밖에 돼지고기, 참외, 이동전화료, 스마트폰 이용료, 조제약, 고등학교 납입금 등이 2011~2013년 중 생활물가 안정을 주도
- 특히 상위 3대 품목은 모두 무상보육 관련 항목으로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 확대가 생활물가 안정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
- 무상보육·무상급식 확대 실시는 2013년 1~7월 중 생활물가와 소비자물가를 각각 전년동기 대비 0.85%p, 0.44%p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표 2-4 2011~2013년 중 서울시 생활물가 하락을 주도한 주요 품목군

(단위 : %)

구분	가중치 비중	주요 품목별 가격 상승률			생활물가에 대한 기여율	
		2011년	2012년	2013년	2011~2013년	2013년
생활물가지수	100.0	3.9	1.9	0.9	100.0	100.0
보육시설이용료	1.32	3.0	-36.2	-32.1	-23.6	-46.9
납입금(유치원)	1.69	2.2	-7.3	-17.9	-12.9	-33.2
학교급식비	0.94	-22.3	-34.2	-13.1	-11.9	-13.6
돼지고기	1.32	31.2	-13.9	-15.7	-7.3	-22.9
이동전화료	4.71	-3.0	-4.8	0.0	-5.2	0.0
조제약	1.03	-0.9	-10.4	-7.5	-4.8	-8.6
납입금(사립대학교)	3.45	2.1	-1.8	-1.2	-2.0	-4.6
참외	0.21	10.4	-8.9	-21.6	-1.8	-5.0
납입금(고등학교)	1.38	-10.4	-2.1	0.1	-1.7	0.1
스마트폰 이용료	2.89	-0.5	-1.3	0.0	-0.8	0.0

주 : 1. 2013년은 1~7월 중 수치이며, 2011~2013년의 각 기여율은 각 연도 기여율의 평균 수치

2. 특정 품목의 생활물가에 대한 기여율은 각 생활물가의 구성 품목이 전체 생활물가 증감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모든 구성 품목의 기여율 합은 100임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KOSIS, 해당 연도

132 생활물가에 전월세를 포함하면 당초 생활물가 상승률을 상회

- 서민생활과 밀접한 전월세가 포함된 서울의 생활물가 상승률은 전월세가 제외된 당초 생활물가 상승률을 상회
- 전월세가 포함된 서울의 생활물가 상승률은 2011년 이래 지속적으로 전월세가 제외된 생활물가 상승률을 상회
- 2006~2010년에는 전월세가 포함된 서울시 생활물가의 평균 상승률은 3.0%로 전월세가 제외된 생활물가의 평균 상승률을 0.3%p 하회
- 그러나 2011년부터 전월세가 포함된 서울 생활물가의 평균 상승률은 전월세가 제외된 생활물가의 평균 상승률을 0.4%p 상회

표 2-5 서울의 전월세 포함 및 전월세 제외 생활물가 상승률 비교

(단위 : %, %p)

구분	2006~2010년	2011~2013년	2013년 1~7월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	3.0	2.6	1.3
전월세 제외 생활물가	3.3	2.2	0.9

주 : 2013년은 1~7월 수치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KOSIS, 해당 연도

- 2011년 이후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 상승률이 전월세 제외 생활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것은 집세비중 확대와 집세가격 상승 등에 기인
-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집세 지출비중은 2005년 이후 낮아지다가 가계의 지출구조 변화로 인해 서울은 전국과 달리 다시 확대
- 서울의 소비자물가 내 집세 비중 : 2000~2004년 17.29% → 2005~2009년 14.62% → 2010년 이후 14.82%
- 전국의 소비자물가 내 집세 비중 : 2000~2004년 13.14% → 2005~2009년 9.75% → 2010년 이후 9.18%
- 서울의 집세가격 상승으로 인해 집세의 소비자물가에 대한 기여율도 2006~2009년 9.6%에서 2011년 이후 21.7%로 높아짐

표 2-6 서울의 집세가격 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에 대한 기여율

(단위 : %)

구분	2006~2009년	2011~2013년	2013년 1~7월
집세가격 상승률	1.9	3.8	2.9
집세가격의 소비자물가 기여율	9.6	21.7	28.9

주 : 2013년은 1~7월 수치이고, 기간별 수치는 각 연도 평균값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KOSIS, 해당 연도

133 서울시 생활물가 상승률은 16개 시·도 중 상위권에 포진

- 서울의 생활물가 상승률은 2012년 이래 2년 연속 전국 수준을 상회

- 서울과 전국의 전월세 제외 생활물가 상승률 격차 : 2011년 -0.5%p → 2012년 0.3%p → 2013년 1~7월 0.3%p
- 서울과 전국의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 상승률 격차 : 2011년 -0.3%p → 2012년 0.3%p → 2013년 1~7월 0.4%p
- o 16개 시·도와 비교한 2013년 서울의 생활물가 상승률은 1~3위권
- 2013년 1~7월 중 전월세를 제외한 서울의 생활물가 상승률(0.9%)은 대구(1.0%), 울산(0.99%)에 이어 3위
- 2013년 1~7월 중 전월세를 포함한 서울의 생활물가 상승률(1.4%)은 16개 시·도 중 가장 높고, 그다음이 대구(1.3%), 울산(1.2%) 등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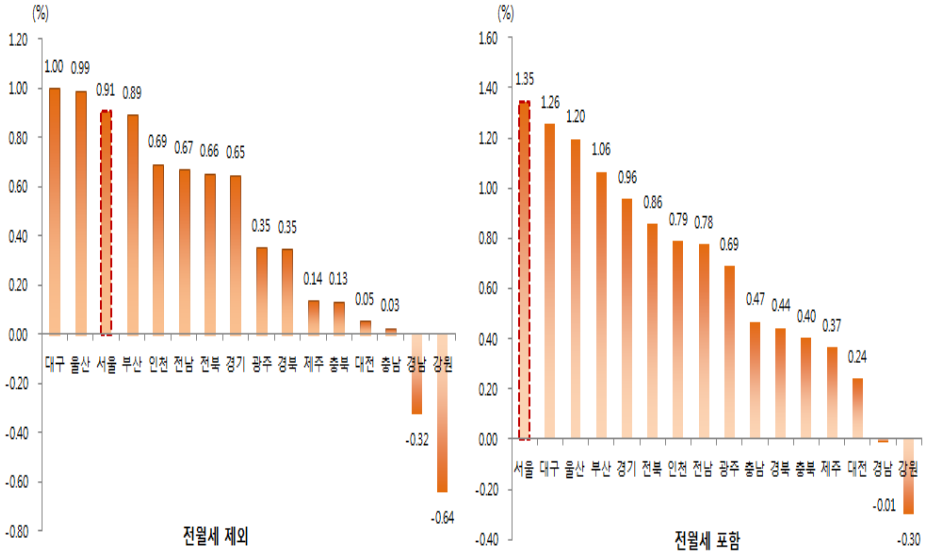


그림 2-4 16개 시·도의 2013년 1~7월 중 생활물가 상승률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KOSIS, 해당 연도

- 141 신선식품물가는 소비자물가보다 상승률이 높았다가 2013년에는 역전
- 2001~2013년(1~7월) 중 서울의 신선식품물가는 평균 5.7% 상승해 전반적으로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3.1%)을 상회
 - 그러나 기간별로 보면, 서울의 신선식품물가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격차는 점점 축소되는 추세
 - 신선식품물가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격차 : 2001~2005년 3.9%p → 2006~2010년 2.0%p → 2011~2013년(1~7월) 1.2%p
 - 특히 2013년 서울의 신선식품물가 상승률은 전국과 달리 전년동기 대비 -0.4%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9%p나 하회
 - 전국의 2013년 1~7월 중 신선식품물가 상승률은 2.3%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0%p 상회
 - 2001년 이후 서울의 신선식품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밑돈 것은 2006년, 2008년 2013년 단 3차례뿐

표 2-7 서울과 전국의 신선식품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

구분	2001~ 2013년	기간별 물가상승률			
		2001~2005년	2006~2010년	2011~2013년	2013년
서울 신선식품물가	5.7	7.5	4.9	3.8	-0.4
소비자물가	3.1	3.6	2.9	2.6	1.5
전국 신선식품물가	5.9	6.6	5.7	4.8	2.3
소비자물가	3.0	3.3	3.0	2.5	1.3

주 : 2013년은 1~7월 수치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KOSIS, 해당 연도

- 한편, 농산물과 수산물 위주로 구성된 신선식품은 가격변동성이 높지만 소비지출 비중이 과거 7%대에서 5% 미만으로 축소되어 소비자물가에 대한 영향은 점점 작아지는 추세

- 지난 13년간 서울의 신선식품물가는 최저-11.1%(2008년)에서 최고 15.9%(2010년)까지 급등락
- 서울의 소비자물가에서 신선식품 비중은 2000년 7.3%에서 2005년 3.8%, 2010년에는 4.0%로 축소

1.4.2 서울의 신선식품물가 상승률은 16개 시·도 중 14위

- 서울의 신선식품물가 상승률은 전국의 신선식품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
- 지난 13년간 서울의 신선식품물가 상승률은 전국보다 평균 0.2%p 낮은 수준이고, 최근 들어 이러한 경향이 더 확대되는 양상
- 서울과 전국의 신선식품물가 상승률 격차 : 2001~2005년 0.9%p → 2006~2010년 -0.8%p → 2011~2013년(1~7월) -1.0%p
- 특히 서울시의 2013년 신선식품 물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2.7%p 낮을 뿐 아니라 16개 시·도 중 14위로 안정적
- 생활물가지수 등과 달리 서울의 신선식품 물가 상승률이 특히 낮은 것은 서울에 도매업의 36.2%가 포진하는 등 유통이 다른 시·도에 비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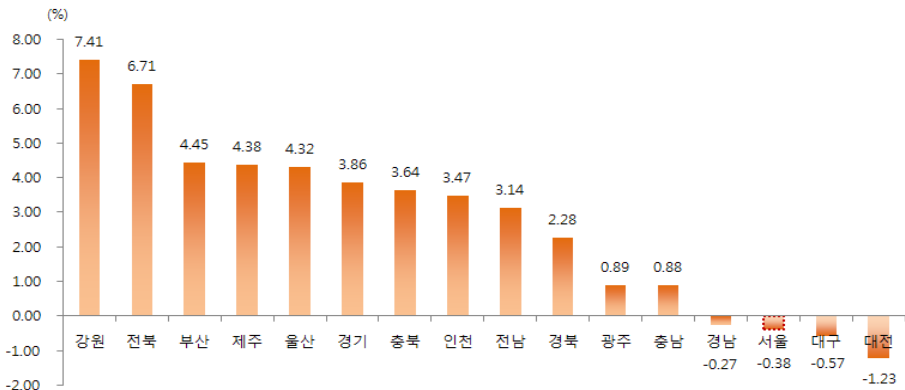


그림 2-5 16개 시·도의 2013년 1~7월 중 신선식품물가 상승률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KOSIS, 해당 연도

2.1 서울시 물가의 국제비교

2.1.1 2012년 서울의 물가수준은 세계 72개 도시 중 37위

- UBS에서 조사·발표한 2012년 뉴욕 물가 기준(100)으로 본 서울 물가는 뉴욕의 67% 내외 수준
- 2012년 집세를 제외한 서울 물가는 67.8, 집세를 포함한 서울 물가는 66.3
- 2012년 세계 72개 도시의 물가 순위는 오슬로, 취리히, 도쿄, 제네바 등의 순이며 서울은 72개 도시 중 중위권인 37위(집세 미포함 기준)
- 2012년 집세를 포함한 서울의 물가 순위는 33위로 집세 미포함보다 소폭 상승

표 2-8 2012년 서울시의 세계 주요도시 물가 순위

(단위 : 뉴욕=100)

순위	도시	집세 미포함 물가	집세 포함 물가	순위	도시	집세 미포함 물가	집세 포함 물가
1	오슬로	116	104.5	...	...	...	...
2	취리히	110.1	102.5	37	서울	67.8	66.3
3	도쿄	108.9	100.0	...	...	...	...
4	제네바	106.5	96.8	46	베이징	60.3	51.8
5	코펜하겐	100.9	88.8	...	...	...	...
6	뉴욕	100.0	100.0	72	델리	33.1	29.4

주 : 순위는 집세 미포함 물가 기준

자료 : Prices and earnings, 2012, UBS

- 해외 70여개 도시와 비교한 서울의 물가 순위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 서울의 물가 순위 추이(집세 미포함 기준) : 2009년 43위(총 73개국) → 2011년 35위(총 73개국) → 2012년 37위(총 72개국)

- 2012년 뉴욕기준 서울 물가는 전년보다 하락했으나 2009년에 비해서는 상승
- 집세 미포함 물가 : 2009년 62.9 → 2011년 84.5 → 2012년 67.8

표 2-9 뉴욕기준 서울 물가지수의 추이

(단위 : 당해 연도 뉴욕물가 = 100)

구분		2009년	2011년	2012년
집세 미포함	지수	62.9	84.5	67.8
	순위	43	35	37
집세 포함	지수	50.9	68.4	66.3
	순위	40	36	33

자료 : Prices and Earnings, 2012, UBS

〈참 고〉 UBS의 ‘Prices and Earnings’

- 1971년 31개 도시를 시작으로 최근 73개 도시의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 임금 및 근로시간 등 세계 도시별 물가와 시장 관련 자료를 당해 뉴욕 가격 기준(뉴욕=100)으로 지수화해 UBS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 2012년 현재 평균적인 서유럽 가정의 소비패턴을 반영하여 95개 재화와 27개 서비스를 포함한 물가지료를 구성

2.1.2 서울은 해외 주요도시에 비해 차량과 가전 등 내구재 가격이 비싼 편

- 2012년 서울 물가는 뉴욕에 비해 차량가격, 차량유류비 등 차량 관련비용과 가전 및 가사집기 비용 등이 비싼 편
- 품목별 뉴욕 물가를 100으로 할 때, 서울의 차량세금은 523.0으로 뉴욕 물가를 5배 웃돌고, 차량유류비(133.3), 차량가격(126.8) 가전 및 가사집기(121.0), 음식료품(113.9) 등이 뉴욕 물가수준을 상회

- 반면, 서울의 여성의류, 남성의류, 버스, 택시, 기차 등의 가격은 뉴욕 물가수준을 하회
- 품목별 뉴욕 물가를 100으로 할 때, 서울의 기차 요금은 20.3으로 뉴욕의 20% 수준이고, 남성의류(30.6), 버스(37.5), 여성의류(38.6), 택시(40.0), 이미용 등 서비스(59.0), 외식(85.9), 일반가구 집세(65.1) 등도 뉴욕 물가수준을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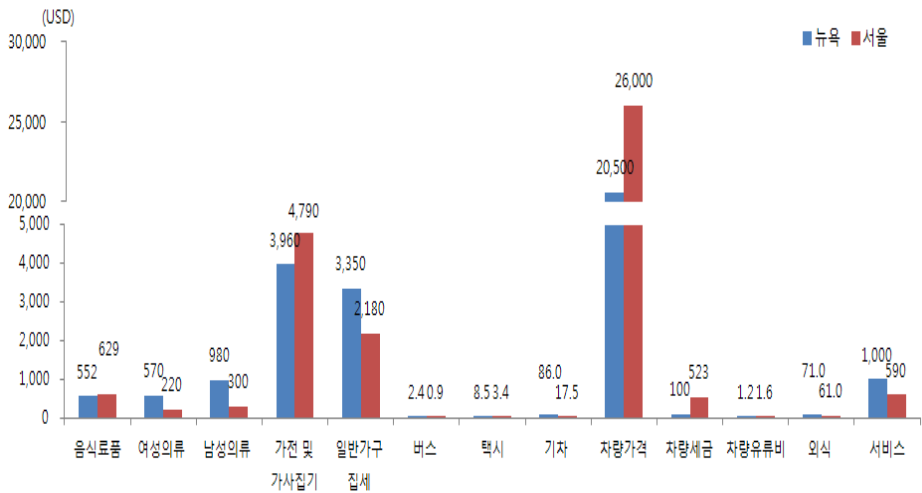


그림 2-6 2012년 뉴욕과 서울의 주요 품목별 가격수준 비교

자료 : Prices and Earnings, 2012, UBS

2.1.3 서울은 높은 도시경쟁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수준이 낮은 편

- 도시경쟁력과 물가수준의 관계를 보면, 전반적으로 도시경쟁력이 높을수록 물가수준도 높은 것으로 분석
- 2012년 모리재단의 상위 14개 도시 경쟁력과 UBS 물가수준의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0.52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임
- 이는 도시경쟁력이 높을수록 도시 내 유입인구가 늘어나고, 이는 다시 수요확대로 연결되어 물가압력을 증대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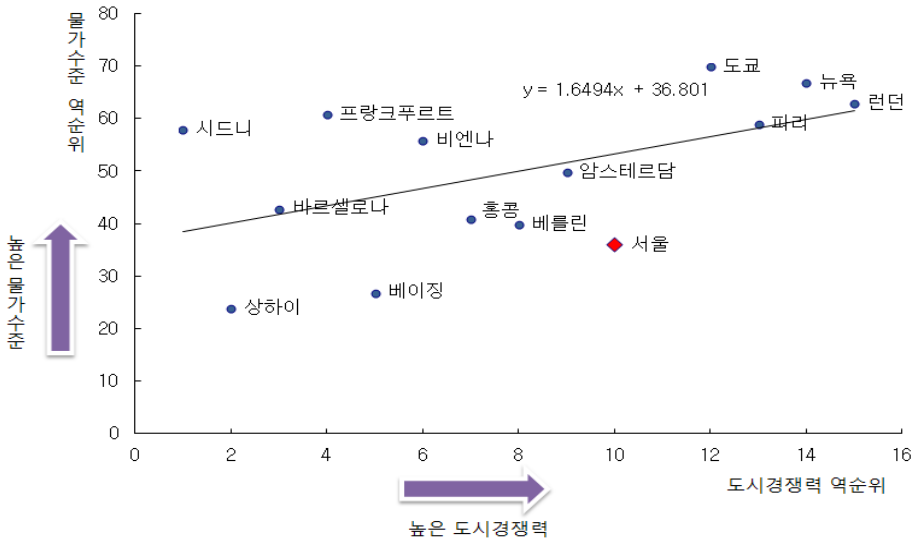


그림 2-7 모리재단의 도시경쟁력 순위와 UBS의 물가수준 비교

주 : 도시경쟁력 순위와 물가수준 순위는 모두 역순위로 순위가 높을수록 도시경쟁력 및 물가수준이 높음
 자료 : 도시경쟁력 평가체계 비교분석, 2012, 서울연구원; Prices and Earnings, 2012, UBS

〈참 고〉 모리기념재단의 국제도시 경쟁력 지수(Global Power City Index : GPCI)

- 모리기념재단은 2008년부터 국제도시 경쟁력지수(Global Power City Index : GPCI)를 발표
- 도시 간 경쟁에서 보다 매력적이고 창조적인 사람들과 기업을 전 세계로부터 끌어당기는 도시의 종합경쟁력을 평가해 순위를 매김
- 조사 분야는 경제, 연구개발, 문화·교류, 거주, 환경, 교통·접근성 등에 걸친 6개 분야로 총 70개 지표를 가중 평균해 순위를 산출

- 그러나 서울은 높은 도시경쟁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
- 2012년 모리재단의 도시경쟁력 6위인 서울의 물가수준은 37위로 도시경쟁력 상위 15위권 도시 중 상하이, 베이징 다음으로 낮고, 도시경쟁력

상위 10위권 도시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

- 상하이는 도시경쟁력 14위, 물가수준 49위이고, 베이징은 도시경쟁력 11위, 물가수준 46위
- 반면, 도시경쟁력 최상위권인 런던, 뉴욕, 파리, 도쿄 등의 물가수준은 각각 10위, 6위, 14위, 3위로 높은 편
- 이는 서울이 다른 대도시에 비해 공공요금, 서비스가격 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표 2-10 해외 주요도시의 도시경쟁력과 물가수준 순위 비교

모리재단의 경쟁력 순위		UBS의 뉴욕기준 물가지수 및 순위					
순위	도시	2009년		2011년		2012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1	런던	84.6	21	99.8	15	87.3	10
2	뉴욕	100.0	6	100.0	14	100.0	6
3	파리	93.3	9	100.9	12	83.9	14
4	도쿄	102.0	5	112.6	6	108.9	3
5	싱가포르	82.0	24	102.4	10	-	-
6	서울	62.9	43	84.5	35	67.8	37
7	암스테르담	83.0	23	88.2	29	77.0	23
8	베를린	81.0	27	87.5	33	72.3	33
9	홍콩	80.9	28	82.3	37	73.1	32
10	비엔나	93.5	8	102.0	11	81.3	17
11	베이징	57.4	52	62.3	58	60.3	46
12	프랑크푸르트	90.8	13	98.0	18	86.4	12
13	바르셀로나	83.5	22	90.9	25	74.7	30
14	상하이	64.1	41	69.6	49	56.1	49
15	시드니	68.5	38	107.7	7	83.6	15

주 : 물가수준은 집세 미포함 기준 순위 및 지수

자료 : 도시경쟁력 평가체계 비교분석, 2012, 서울연구원; Prices and Earnings, 각 연도, UBS

2.2.1 분석개요

- 앞서 분석한 통계청의 생활물가지수는 지역별로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산출한 물가지수로 지역별 생활물가 상승률 및 변동성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나, 지역 간 물가수준 차이를 규명할 수는 없음
- 따라서 이 절에서는 지역별 생활물가 수준을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는 것이 주목적
- 이를 위해 한국물가협회의 가격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주요 5개 도시의 상대적인 물가수준을 비교

〈참고〉 한국물가협회의 주간 생활품목 물가

- 한국물가협회는 5개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의 가격을 규격과 단위를 통일하여 조사해 발표
- 발표주기 : 주간단위로 매주 수요일 기준
- 조사품목 : 2013년 7월 31일 기준으로 곡물류(보리쌀, 쌀, 참쌀) 3개, 육란류(달걀,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4개, 채소·양념(감자, 고구마, 고춧가루, 당근, 배추 등) 17개, 과일류(배, 사과 등) 4개, 수산물(갈치, 고등어, 멸치 등) 9개, 가공식품(간장, 고추장, 두부, 설탕, 커피 등) 17개, 음료·주류(맥주, 생수, 우유 등) 6개, 일용품(샴푸, 치약, 화장지 등) 5개, 연료(휘발유, 경유, 도시가스 등) 4개, 귀금속(금, 은) 2개 등 총 71개 품목으로 구성된 10개 품목군
- 조사지역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역의 주요 재래시장 및 대형할인마트

- 국내 5개 도시의 생활품목 물가수준 분석의 대상과 주기는 다음과 같음
- 분석대상 품목은 한국 물가협회의 총 71개 품목 중 시계열적으로 품목 종류 및 규격 등의 변화가 없는 59개 품목으로 구성된 9개 품목군으로 한정

- 한국물가협회의 생활물가 원자료는 계절별로 조사품목이 다르거나 조
사규격이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료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품
목을 제외³
- 9개 품목군은 곡물류(보리쌀, 쌀 등), 육란류(닭고기, 돼지고기 등), 채
소·양념(감자, 배추 등), 과일류(배, 사과), 수산물(갈치, 고등어 등), 가
공식품(간장, 식용유 등), 음료·주류(맥주, 우유 등), 일용품(삼푸, 화장
지 등), 연료(휘발유, 경유 등)
- 또한 분석주기는 원자료가 주간 가격이므로 이를 연평균 가격으로 변환
하여 연간으로 설정
- 분석방법은 도시 간 비교의 용이성을 위해 도시별 지출비중을 고려한 서
울기준 품목군별 가격지수를 작성해 비교
- 먼저 도시별, 품목별 개별 품목 가격에 가중치를 적용해 품목군별 가격
을 산출⁴
- 한국물가협회 자료에는 가계의 소비지출 비중에 근거한 품목별 가중치가
없기 때문에 통계청 소비자물가의 2010년 기준 시·도별 가중치를 활용
- 그다음에 품목군별 가격을 활용해 도시별 전체 생활품목 가격을 도출
- 도출된 도시별 전체 생활품목 가격과 품목군별 가격을 각 연도 서울 가
격을 기준으로 지수화(서울 =100)
-
- 2.2.2 **서울의 59개 생활품목 물가수준은 2010년 이후 5개 도시 중 1위**
- 서울의 59개 생활품목 물가는 2010년 이후 5대 도시 중 가장 높은 것으
로 분석
- 각 연도 서울의 59개 생활품목 물가를 100으로 했을 때, 2010년 이후 부
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의 생활품목 물가수준은 모두 서울 수준을 하회

³ 분석대상 품목군 및 품목, 품목의 규격 및 단위 등은 부록 표 6 참조

⁴ 이때 도시별 가중치의 합은 도시별 59개 품목의 개별 합이고, 동일 품목이 제공되지 않는 품
목은 유사품목의 가중치로 대체

- 2013년 부산의 생활품목 물가수준은 서울의 91.0%로 그다음으로 높고, 광주가 서울의 78.1%로 가장 낮은 편
- 도시별 생활품목 물가수준은 연도별로 수준 차이가 있으나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으로 높은 편
- 특히 표 2-11에서 알 수 있듯이, 2011년 이후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의 생활품목 물가수준 격차는 확대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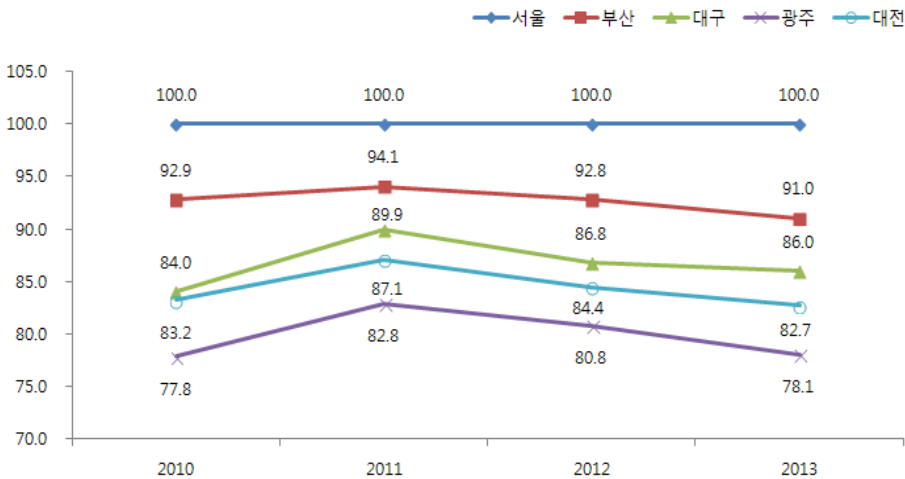


그림 2-8 국내 주요 5개 도시의 생활품목 물가지수

주 : 2013년 수치는 1~7월 평균 수치

자료 : 한국물가협회, 생활물가동향 및 시세표, 해당 연도

표 2-11 서울과 비교 도시의 생활품목 물가수준 격차

(단위 : p)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7월
서울 - 부산	7.1	5.9	7.2	9.0
서울 - 대구	16.0	10.1	13.2	14.0
서울 - 광주	22.2	17.2	19.2	21.9
서울 - 대전	16.8	12.9	15.6	17.3

자료 : 한국물가협회, 생활물가동향 및 시세표, 해당 연도

2 2 3

품목별로는 곡물류, 육란류, 수산물, 연료 등의 서울 물가가 높은 편

- 2013년 1~7월 중 서울의 곡물류 물가수준은 2위 도시인 대전과 비교해도 약 1.2배로 비교적 높은 편
- 특히 주요 주식 곡물인 쌀(20kg, 1포) 가격은 58,652원으로 조사되어 그 외 4개 도시 평균 가격(45,756원)의 1.3배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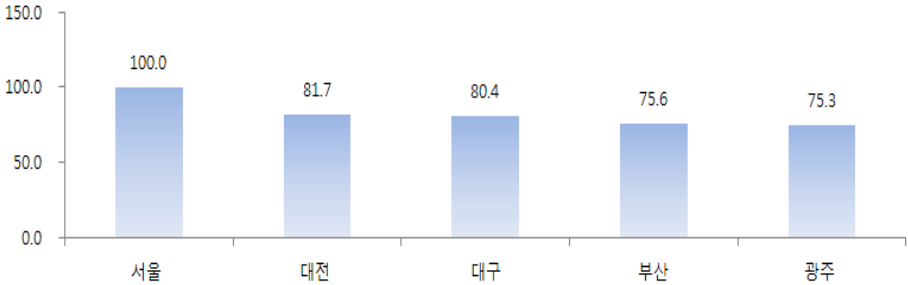


그림 2-9 2013년 1~7월 중 주요 5개 도시의 곡물류 물가수준

자료 : 한국물가협회, 생활물가동향 및 시세표, 2013

- 2013년 1~7월 중 육란류도 5개 도시 중 서울 물가가 가장 높음
- 서울의 육란류 가격은 비교도시의 1.1배(대구)~1.3배(광주)
- 그러나 5대 도시 간 가격 차이는 곡물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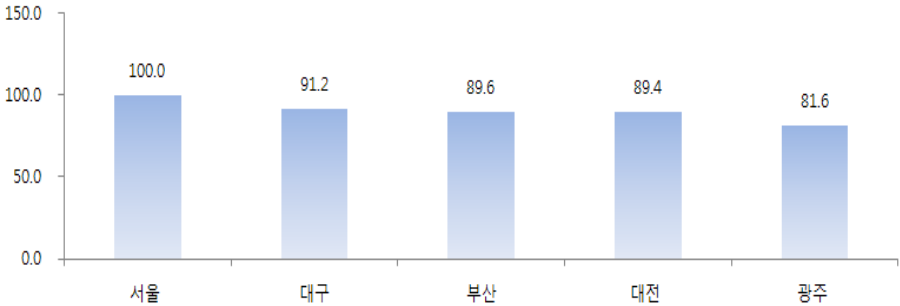


그림 2-10 2013년 1~7월 중 주요 5개 도시의 육란류 물가수준

자료 : 한국물가협회, 생활물가동향 및 시세표, 2013

- 2013년 1~7월 중 수산물 물가도 서울이 5개 도시 중 1위
- 서울의 수산물 물가는 비교도시의 약 1.1배(대구)~1.2배(부산)이고, 도시 간 물가수준 차이는 육란류와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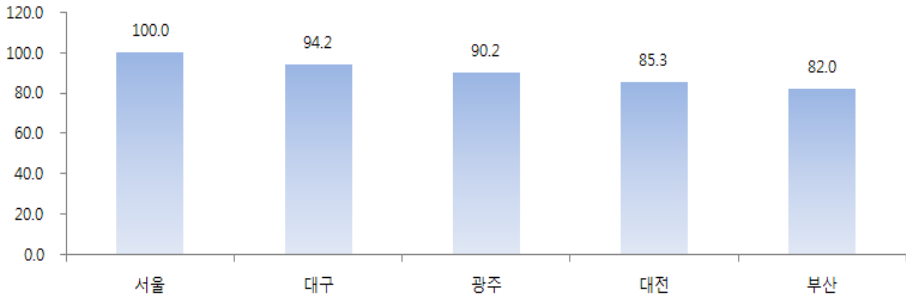


그림 2-11 2013년 1~7월 중 주요 5개 도시의 수산물 물가수준

자료 : 한국물가협회, 생활물가동향 및 시세표, 2013

- 휘발유, 경유 등 연료 물가수준은 서울이 다른 도시에 비해 높은 반면, 나머지 4개 도시 물가는 유사한 수준
- 2013년 1~7월 중 서울의 연료 물가수준은 부산 등 여타 도시의 1.1배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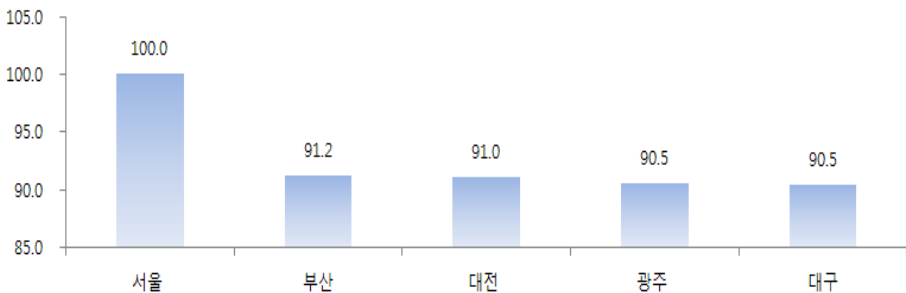


그림 2-12 2013년 1~7월 중 주요 5개 도시의 연료 물가수준

자료 : 한국물가협회, 생활물가동향 및 시세표, 2013

- 과일류, 가공식품, 음료·주류 등은 서울이 5개 도시 중 2~3위권
- 과일류 물가는 서울이 5개 도시 중 2위로 1위인 대구보다 약간 낮음
- 2013년 1~7월 중 여타 도시의 과일류 가격 수준은 서울의 0.97배(대전)~1.01배(대구)로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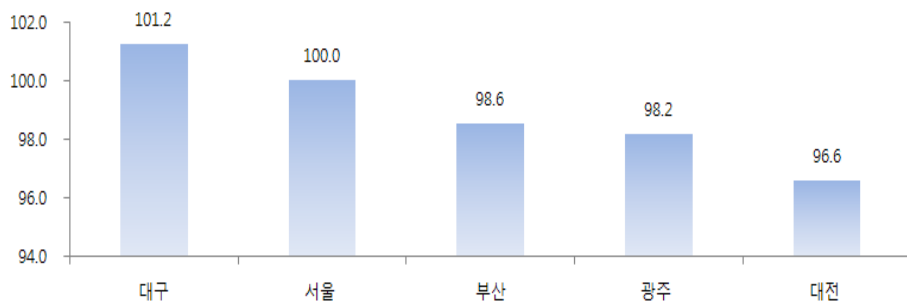


그림 2-13 2013년 1~7월 중 주요 5개 도시의 과일류 물가수준

자료 : 한국물가협회, 생활물가동향 및 시세표, 2013

- 가공식품 물가수준도 서울이 5개 도시 중 광주에 이어 2위
- 2013년 1~7월 중 가공식품 물가수준은 광주 106.3, 서울 100, 대전 96.1, 부산 95.6, 대구 90.7로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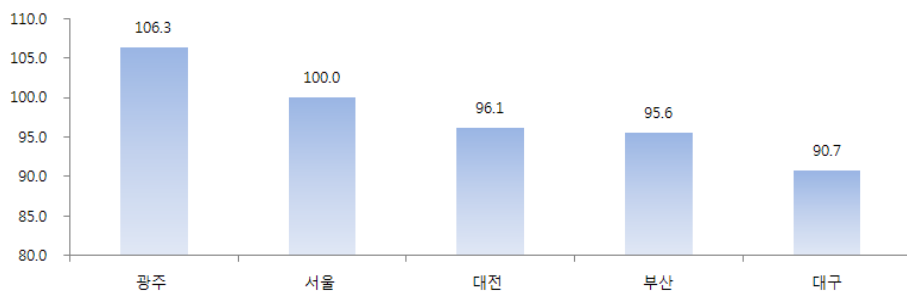


그림 2-14 2013년 1~7월 중 주요 5개 도시의 가공식품 물가수준

자료 : 한국물가협회, 생활물가동향 및 시세표, 2013

- 음료·주류 물가는 5개 도시 간 차이가 미미한 가운데, 서울이 대구, 부산에 이어 3위
- 여타 도시의 음료·주류 가격 수준은 서울의 0.98배(대전)~1.03배(대구)로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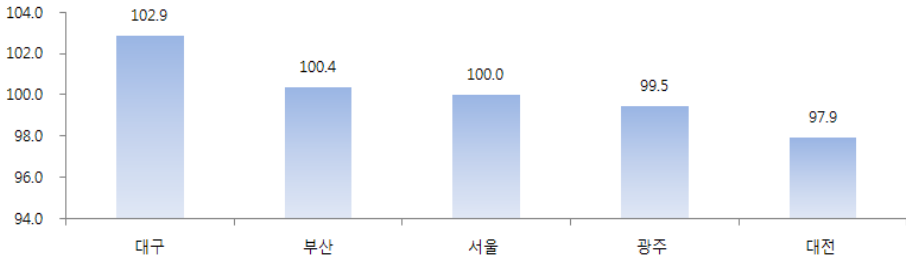


그림 2-15 2013년 1~7월 중 주요 5개 도시의 음료·주류 물가수준

자료 : 한국물가협회, 생활물가동향 및 시세표, 2013

- 한편, 삼푸, 치약 등 공산품으로 구성된 일용품과 배추 등의 채소·양념류 가격은 서울이 5개 도시 중 가장 낮음
- 2013년 1~7월 중 서울의 일용품 가격은 1위인 광주의 88% 수준
- 이는 공산품의 주요 유통망 중 하나인 대형마트, SSM의 성장세가 특히 높은 서울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대형마트와 SSM의 약 1/4이 서울에 분포(2011년 8월 기준)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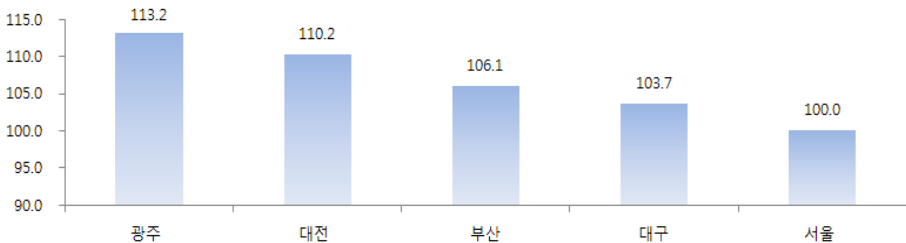


그림 2-16 2013년 1~7월 중 주요 5개 도시의 일용품 물가수준

자료 : 한국물가협회, 생활물가동향 및 시세표, 2013

⁵ 김범식, 조달호, 2012,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전통시장 매출증대에 대한 영향분석, 서울연구원

- 2013년 1~7월 중 채소·양념류 가격수준도 서울이 1위인 광주의 약 78%로 5개 도시 중 가장 낮음
- 채소·양념류는 통계청의 신선식품물가에 다수 포함되는 품목들로, 특히 서울은 배추, 무, 마늘 등의 가격수준이 낮고, 가격상승률도 안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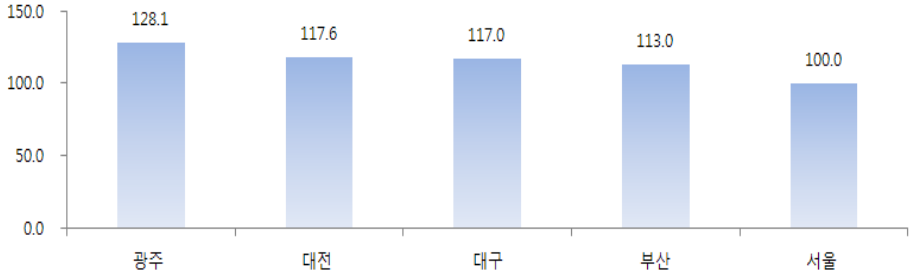


그림 2-17 2013년 1~7월 중 주요 5개 도시의 채소·양념류 물가수준

자료 : 한국물가협회, 생활물가동향 및 시세표, 2013

3 서울시 물가의 변동성 분석

3.1 서울의 물가지수별 변동성

3.1.1 서울의 물가 변동성⁶은 2001년 이후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서울의 소비자물가 변동성은 2000~2005년 0.73에서 2006~2010년 0.82, 2011년 이후 0.99로 확대
- 물가의 변동성이 높다는 것은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소비자 감시 미흡, 시장의 낮은 물가충격 흡수력 등을 의미

⁶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은 기간 내 분기자료의 표준편차 값으로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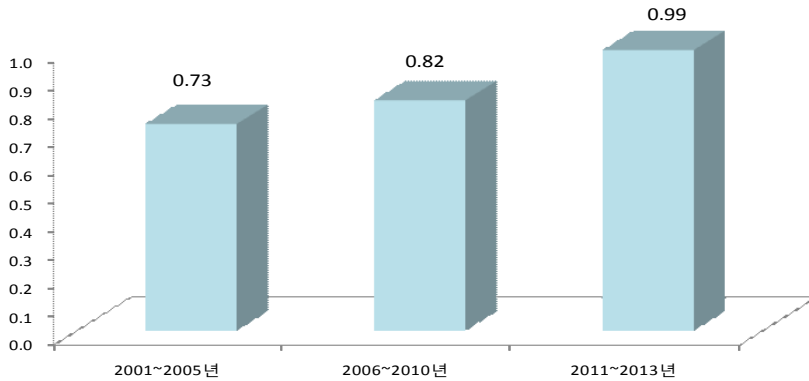


그림 2-18 서울시 소비자물가의 변동성 추이

주 : 2013년은 1/4~2/4분기 수치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KOSIS, 해당 연도

- 물가지수 종류별로 보면, 소비자물가보다 신선식품물가와 생활물가의 변동성이 더 큰 것으로 분석
- 2001~2013년 중 서울의 신선식품물가 변동성은 8.08로 소비자물가 변동성을 9배 이상 상회할 정도로 변동성이 매우 높은 수준
- 2001~2013년 중 서울의 생활물가 변동성도 1.30으로 같은 기간의 소비자물가 변동성(0.88)을 0.42p 상회
- 2001~2013년 중 전월세를 포함한 생활물가 변동성도 1.09로 소비자물가 변동성 수준을 0.21p 상회
- 소비자물가와 달리 신선식품물가와 생활물가의 변동성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다소 낮아졌다가 2011년 이후 다시 높아지는 추세

312 서울의 물가변동성 수준은 전국보다 다소 낮은 편

- 서울의 소비자물가 변동성을 전국과 비교하면, 추이는 유사하지만, 그 수준은 전국보다 다소 낮은 편
- 2000년대 초반에는 서울이 전국보다 물가변동성이 높았으나, 2006년 이후 서울은 전국보다 물가변동성이 다소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변동성 격차 : 2001~2005년 0.04p → 2006~2010년 -0.19p → 2011~2013년 -0.24p
- 이는 서울이 전국보다 물가에 대한 정보공유 및 소비자 감시 활동이 더 활발하고, 물가충격에 대한 흡수력도 높다는 것을 의미

표 2-12 서울 및 전국의 물가지수별 변동성 추이

구분		2001 ~ 2013년		기간별 물가 변동성	
			2001~2005년	2006~2010년	2011~2013년
소비자물가	서울	0.88	0.73	0.82	0.99
	전국	0.96	0.69	1.01	1.23
생활물가	서울	1.30	1.26	0.88	1.27
	전국	1.40	1.21	1.29	1.70
생활물가 (전월세포함)	서울	1.09	0.92	0.81	1.11
	전국	1.21	0.88	1.16	1.49
신선식품 물가	서울	8.08	5.33	10.49	7.32
	전국	8.42	5.83	11.03	7.45

주 : 2013년 수치는 2/4분기까지 수치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KOSIS, 해당 연도

4 소득계층별 물가수준 비교

4.1 분석개요

4.1.1 분석목적

- 가계의 평균적인 소비행태를 기준으로 작성된 소비자물가지수로 소득 계층별 물가수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
-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일상 소비활동에 쓸 용도로 구입하는 개별 상품 가격에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즉 지출비중을 감안해 가중 평균한 종합적인 물가수준

- 소득수준별로 물가상승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득계층별 물가지수의 작성이 필요
-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의 소득수준은 상이하고, 소득수준별로 소비지출 행태도 다르기 때문에 소득계층별로 물가상승 수준이 다르고, 이로 인해 물가상승에 대한 체감도도 상이

4.1.2 소득계층별 물가지수 작성방법 및 자료집합

- 소득계층별 물가지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
- 소비자를 균등화 소득⁷기준으로 계층별로 구분
- 소득계층은 균등화 소득⁸ 기준으로 10%씩 분위별로 할당하여 소득10분위별로 구분
- 10분위 소득계층은 다시 저소득층(1~3분위), 중산층(4~8분위), 고소득층(9~10분위)으로 그룹화
- 가계소득동향과 소비자물가조사 간 품목을 통합·조정
- 가계소득동향과 소비자물가조사 품목 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분류별 조정을 통해 가계소득동향 중분류를 소비자물가조사 대분류 기준으로 재조정
- 소득계층별·소비품목별 소비지출 비중을 구한 후, 이를 활용해 각 소비계층의 품목별 가중치를 산출
- 소득계층별 품목별 가중치와 품목별 소비자물가를 활용해 소득계층별 물가지수를 작성
- 2005년 이후 소득계층별 물가지수는 기준연도가 2005년, 2010년 두 해이므로 품목별 가중치도 2005년과 2010년 기준으로 각각 산출한 후 접속계수를 활용해 2010년 기준 지수로 환산

7 소비자의 소득으로 가계소득을 사용하는 경우 가계별로 가구원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가구 균등화지수를 고려하여 가계소득을 변형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OECD방식을 사용하여 가구 균등화소득을 도출함

8
$$\text{균등화 소득} = \frac{\text{가구소득}}{\sqrt{\text{가구원수}}}$$

표 2-13 소비자물가조사와 가계동향조사 간 소비품목의 분류 조정

소비자물가조사 (조정기준)			가계동향조사
	조정 후 분류		조정 전 분류
식료품	식료품	= 식료품 - 주류 - 외식	식료품
주류 및 담배	주류 및 담배	= 주류 + 담배	- 주류
피복 및 신발	피복 및 신발	= 피복 및 신발	- 외식
주거·광열·수도	주거·광열·수도	= 주거 + 광열·수도	주거
가구집기·가사용품	가구집기·가사용품	= 가구집기 가사용품	광열·수도
보건의료	보건의료	= 보건의료	가구집기·가사용품
교통	교통	= 교통	피복 및 신발
통신	통신	= 통신	보건의료
교양·오락	교양·오락	= 교양·오락	교양·오락
교육	교육	= 교육	교육
외식 및 숙박	외식 및 숙박	= 외식	교통·통신
기타소비지출	기타소비지출	= 기타소비지출 - 담배	- 교통
			- 통신
			기타소비지출
			- 담배

주 :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비품목 신분류는 지역구분 코드가 없기 때문에 구분류 자료를 사용

-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가계소득동향(2005년, 2008년)과 소비자물가동향(2005~2013년)을 활용
- 2005년과 2008년 가계소득동향은 2005년과 2010년 서울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품목의 가중치 산출에 활용
- 가계소득동향은 2008년 이후 서울 지역구분 코드가 없으므로 2008년 소득계층별 소비패턴을 2010년 소득계층별 소비패턴으로 가정
- 전국의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2008년과 2010년 소비품목별 비중차이는 모두 0.5%p 내외로 미미하고, 소득분위별로도 몇몇 품목을 제외하고는 2008년과 2010년 품목별 소비비중 차이가 1.0%p 이내
- 2005~2013년 중 소비자물가동향은 서울시 품목별 물가지수로 활용

표 2-14 2008년과 2010년의 전국 전체가구(2인 이상)의 품목별 소비비중 차이

(단위 : %p)

소득 분위	식료품	주류· 담배	피복· 신발	주거· 광열· 수도	가구 집기· 가사 용품	보건 의료	교통	통신	교양· 오락	교육	외식· 숙박	기타소 비
전가구	0.3	0.1	-0.2	-0.3	-0.3	-0.5	0.5	0.3	-0.4	-0.2	0.8	-0.2
1	0.2	0.3	0.3	-1.9	0.0	0.4	1.1	0.2	-0.1	0.1	0.3	-0.9
2	-0.8	0.2	0.0	-0.5	-0.1	-0.8	0.7	0.5	-0.2	1.2	0.6	-0.9
3	0.6	0.2	-0.6	0.4	0.2	-0.6	0.8	0.3	-0.2	0.8	-0.2	-1.6
4	0.3	0.1	-0.6	0.1	0.2	-0.4	-0.2	0.4	-0.5	1.0	0.4	-0.9
5	0.6	0.2	-0.3	-0.2	0.1	-0.5	0.6	0.2	-0.6	0.2	0.3	-0.5
6	0.3	0.4	-0.4	-0.7	-0.1	-0.6	0.3	0.6	-0.8	0.7	0.9	-0.5
7	1.0	0.1	-0.3	-0.2	0.0	-0.9	-0.1	0.2	-0.1	0.1	0.7	-0.5
8	0.3	0.0	-0.3	-0.1	-0.6	-0.3	1.2	0.2	0.0	-1.1	1.3	-0.6
9	0.1	0.2	0.0	-0.3	-1.0	-0.1	0.4	0.3	-0.2	-1.2	1.1	0.5
10	-0.2	0.0	0.2	-0.8	-0.6	-0.7	0.6	0.1	-0.7	-0.9	1.6	1.3

주 : 품목별 소비비중은 부록 표 7 및 표 8 참조

자료 : 가계동향조사, 2008, 2010, 통계청

4.2 서울의 소득계층별·소비품목별 지출구조

4.2.1 서울의 소득계층별 균등화 소득은 소득계층별로 매우 상이

- 2008년 서울의 소득계층별 평균 균등화 소득은 저소득층 70.3만원, 중산층 178만원, 고소득층 388.2만원⁹
-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 1분위와 10분위 간 격차가 14.1배 수준
- 2008년 서울의 소득 1분위 균등화 소득은 33.5만원인 반면, 소득 10분위 균등화 소득은 472.7만원
- 2008년 소득계층별 소득격차는 2005년보다 확대¹⁰

⁹ 소득은 명목소득 기준

¹⁰ 2005년 소득분위별·계층별 소득수준은 부록 표 9 참조

- 2005년 서울의 소득계층별 균등화 소득은 저소득층 79.7만원, 중산층 169.0만원, 고소득층 331.8만원으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격차가 4.2배로 2008년(5.5배)보다 다소 적은 편
- 소득분위별로도 소득 1분위와 10분위 간 격차가 8.4배로 2008년에 비해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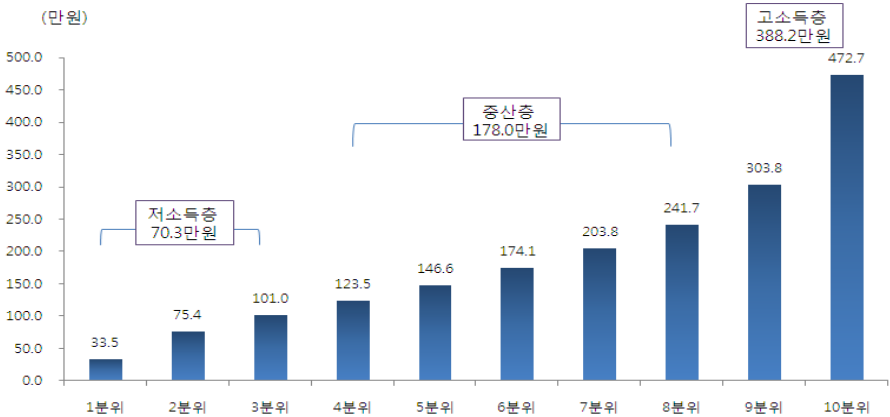


그림 2-19 2008년 서울시 소득계층별 균등화 소득

자료 : 가계소득동향, 2008, 통계청

4.2.2 소득계층별로 소비품목이 차별화

- 서울의 저소득층은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에 비해 식료품, 주거·광열·수도, 보건·의료 등 기본적 생활관련 지출비중이 높은 편
- 2008년 저소득층 가계는 식료품(외식 제외)에 소비지출의 17.6%, 주거·광열·수도에 소비지출의 14.2%를 사용¹¹
- 특히 소득 1분위 계층의 식료품 지출비중은 21.0%로 균등화소득의 약 60.5%를 식료품 구입에 사용
- 이는 고소득층의 식료품과 주거·광열·수도 지출비중이 각각 10.7%,

¹¹ 2005년 소득분위별·소비품목별 지출비중은 부록 표 10 참조

7.3%, 중산층의 식료품과 주거·광열·수도 지출비중은 각각 14.2%, 9.5%인 것과 비교해 대조적

- 이밖에 보건·의료, 통신, 주류 및 담배 등에 대한 저소득층의 지출비중도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o 서울의 중산층은 주로 교육, 외식 및 숙박 등의 품목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소득계층보다 높은 지출비중을 보임
- 2008년 서울의 중산층 가계는 소비지출의 13.0%를 교육에, 12.2%를 외식 및 숙박에 사용
 - 특히 중산층 가계의 교육 지출비중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지출비중 수준을 각각 4.0%p, 1.0%p 상회
- o 서울의 고소득층은 주로 교통(차량구입 및 유지비 등), 교양·오락, 가구집기·가사용품, 피복 및 신발, 그리고 이미용 등 개인서비스 품목이 포함된 기타소비지출 비중이 다른 소득계층보다 높은 편
- 2008년 서울의 고소득층은 소비지출의 11.3%를 교통에, 19.6%를 기타소비지출에 사용
 - 이에 비해 저소득층은 교통과 기타소비지출에 각각 소비지출의 6.8%, 13.6%만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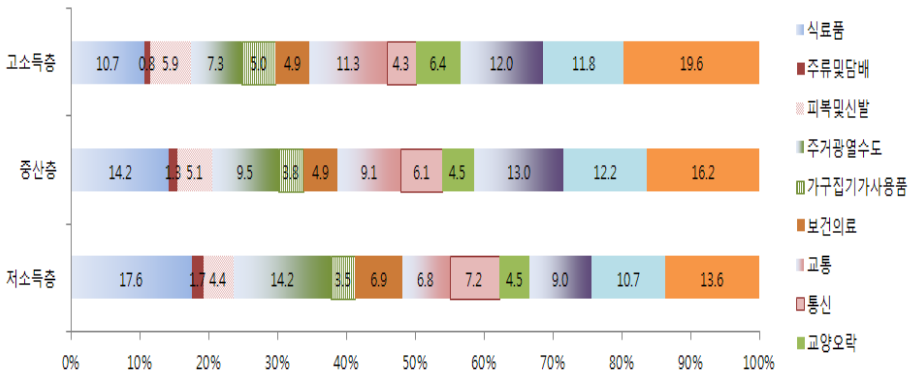


그림 2-20 2008년 서울의 소득계층별·소비품목별 지출비중

자료 : 가계소득동향, 2008, 통계청

표 2-15 2008년 서울의 소득분위별·소비품목별 지출비중

(단위 : %)

소득 분위	식료품	주류· 담배	피복· 신발	주거광 열수도	가구 집기· 가사 용품	보건 의료	교통	통신	교양· 오락	교육	외식· 숙박	기타소 비
1	21.0	1.8	3.5	14.8	3.4	9.9	5.9	6.4	5.1	5.9	8.7	13.6
2	16.8	1.6	5.1	14.4	3.5	5.8	6.7	7.5	4.4	10.7	10.7	12.9
3	15.9	1.7	4.3	13.5	3.7	5.8	7.6	7.4	4.2	9.4	12.0	14.4
4	16.3	1.5	4.1	12.6	3.5	5.4	7.8	6.9	3.9	13.0	11.2	13.7
5	15.3	1.5	5.1	10.3	4.1	5.1	8.4	6.9	4.1	12.4	12.0	14.8
6	14.3	1.4	5.0	10.0	3.2	5.6	8.7	6.3	4.5	12.4	12.6	16.0
7	13.3	1.1	5.9	8.2	3.6	4.4	9.2	6.0	4.9	12.9	12.9	17.6
8	13.0	1.1	5.2	7.6	4.2	4.4	10.6	5.1	5.0	14.1	11.8	17.9
9	11.6	1.0	5.6	8.4	4.6	5.0	10.5	4.7	5.9	12.6	11.6	18.4
10	10.0	0.7	6.2	6.5	5.2	4.8	11.9	3.9	6.8	11.5	11.9	20.6
저소득층	17.6	1.7	4.4	14.2	3.5	6.9	6.8	7.2	4.5	9.0	10.7	13.6
중산층	14.2	1.3	5.1	9.5	3.8	4.9	9.1	6.1	4.5	13.0	12.2	16.2
고소득층	10.7	0.8	5.9	7.3	5.0	4.9	11.3	4.3	6.4	12.0	11.8	19.6

자료 : 가계동향조사, 2008, 통계청

4.3 서울의 소득계층별 물가지수 수준 추이

4.3.1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은 물가수준에 직면

- 소득계층별 물가지수를 산출한 결과, 저소득층의 물가지수 수준이 고소득층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
- 2013년 1~7월 중 저소득층의 물가지수는 106.4로 중산층(106.0) 및 고소득층(105.7) 물가지수 수준보다 높은 수준
- 소득 분위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물가수준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수준에 직면
- 최저 소득계층인 1분위 물가지수는 106.6으로 모든 소득계층에서 가장 높은 반면, 최상위 소득계층인 10분위 물가지수는 105.6으로 모든 소득계층에서 가장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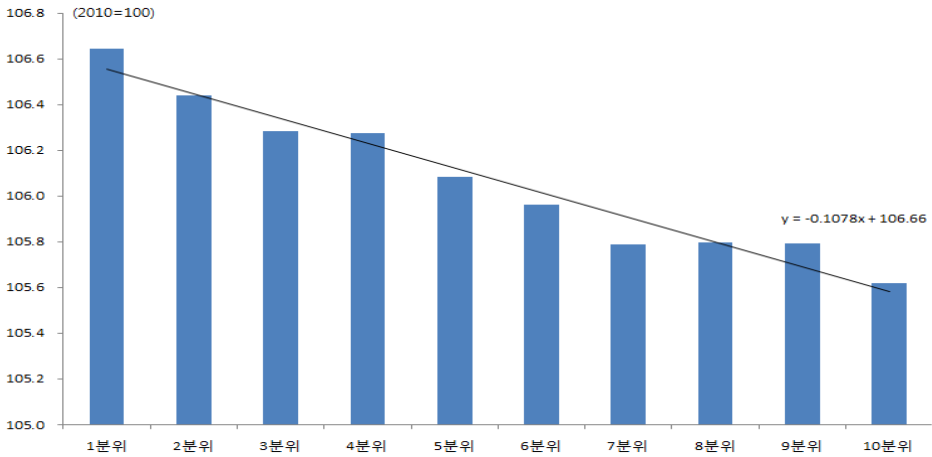


그림 2-21 2013년 1~7월 중 서울시 소득분위별 물가지수

자료 : 가계소득동향, 2005, 2008,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2005~2013, 통계청

- 2005년 이후 서울의 소득계층별 물가지수를 기간별로 보아도 유사한 특징이 발견
- 2005~2009년 중 서울의 소득계층별 물가지수 평균을 보면, 저소득층 물가지수가 90.6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중산층(90.4), 고소득층(90.3) 등의 순임
- 이 기간 중 소득 1분위 물가지수는 90.6으로 소득 10분위 물가지수를 0.3p 상회
- 2010~2013년 중 소득계층별 물가지수 평균도 저소득층(104.0) > 중산층(103.7) > 고소득층(103.6) 등의 순
- 이 기간 중 소득 1분위 물가지수는 104.1로 소득 10분위 물가지수를 0.5p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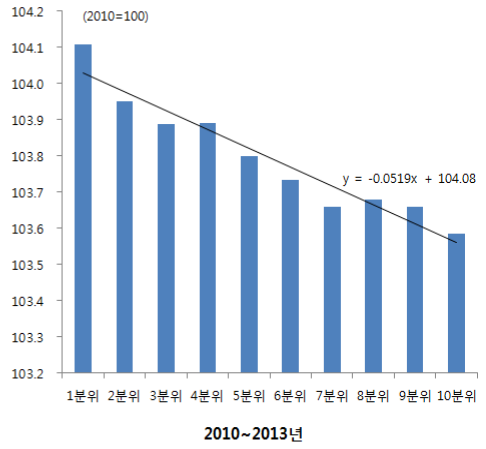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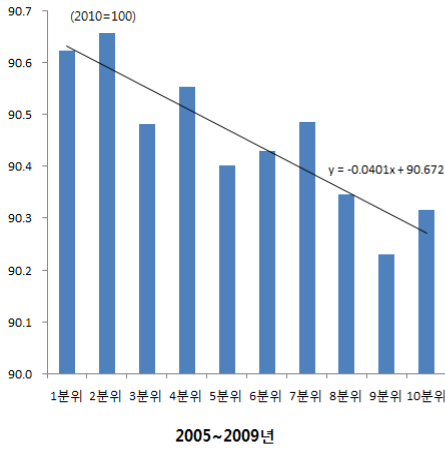


그림 2-22 2005~2009년 중 서울시 소득분위별 물가지수

주 : 2013년은 1~7월 기준

자료 : 가계소득동향, 2005, 2008,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2005~2013, 통계청

표 2-16 2005~2013년 중 소득계층별 물가지수 추이

(단위 : 지수, 2010년 = 100)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연도별 물가 지수	2005년	85.6	85.5	85.1	85.3	85.0	85.0	85.1	84.9	84.6	84.8	85.3	85.0	84.7
	2006년	87.3	87.3	87.0	87.1	86.9	86.9	87.0	86.8	86.6	86.7	87.2	86.9	86.7
	2007년	89.6	89.7	89.5	89.6	89.4	89.4	89.5	89.3	89.2	89.2	89.6	89.4	89.2
	2008년	93.6	93.7	93.7	93.7	93.6	93.7	93.8	93.6	93.6	93.7	93.7	93.7	93.7
	2009년	97.1	97.1	97.1	97.1	97.1	97.1	97.1	97.1	97.1	97.2	97.1	97.1	97.1
	2010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1년	103.9	103.7	103.7	103.8	103.7	103.7	103.7	103.7	103.7	103.6	103.8	103.7	103.7
	2012년	105.9	105.6	105.5	105.5	105.4	105.3	105.2	105.2	105.2	105.1	105.6	105.3	105.1
	2013년	106.6	106.4	106.3	106.3	106.1	106.0	105.8	105.8	105.8	105.6	106.4	106.0	105.7
기간별 평균 물가 지수	2005~2013년	96.6	96.6	96.4	96.5	96.4	96.3	96.3	96.3	96.2	96.2	96.5	96.3	96.2
	2005~2009년	90.6	90.7	90.5	90.6	90.4	90.4	90.5	90.3	90.2	90.3	90.6	90.4	90.3
	2010~2013년	104.1	104.0	103.9	103.9	103.8	103.7	103.7	103.7	103.7	103.6	104.0	103.7	103.6

주 : 2013년은 1~7월 기준

자료 : 가계소득동향, 2005, 2008,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2005~2013, 통계청

4 3 2 **물가상승률도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에서 더 높은 편**

- 서울시 소득계층별 물가상승률은 2010년 이후 전반적으로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임
- 2010~2013년 중 서울의 소득계층별 평균 물가상승률을 보면, 저소득층은 2.40%인 반면,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각각 2.28%, 2.20%에 불과하여 저소득층의 물가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시사
- 특히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 최하위 계층인 소득 1분위의 물가상승률이 가장 높고, 최상위 계층인 소득 10분위의 물가상승률이 가장 낮은 가운데 소득이 높을수록 그 소득계층이 직면한 물가상승률도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모습
- 2010~2013년 중 소득 1분위의 평균 물가상승률은 2.45%로 소득 10분위의 물가상승률(2.17%)을 0.28%p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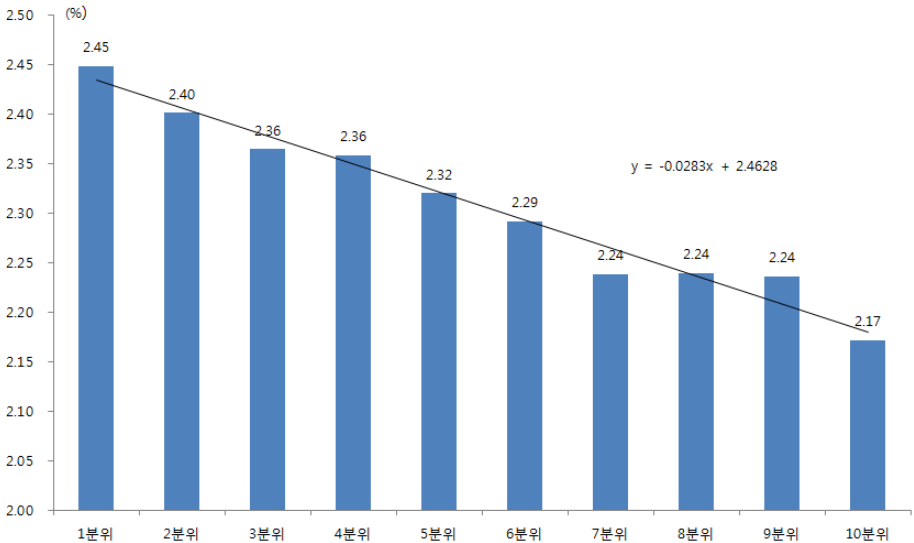


그림 2-23 2010~2013년 중 서울시 소득분위별 평균 물가상승률

주 : 2013년은 1~7월 기준

자료 : 가계소득동향, 2005, 2008,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2005~2013, 통계청

- 기간별로 보면, 소득계층별 물가상승률 차이는 2010년 이후 더 확대되는 경향
- 2006~2009년 중 소득계층별 물가상승률을 보면, 저소득층 3.28%, 중산층 3.38%, 고소득층 3.49%로 오히려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의 물가상승률이 더 높음
- 그러나 2010년 이후에는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의 순으로 물가상승률이 높게 발생
- 이러한 분석결과는 최저생계비 산정 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소득계층별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
- 현재 최저생계비는 3년마다 계측하여 산정하고, 그 외에는 기준 연도 최저생계비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산정

표 2-17 서울의 소득계층별 물가지수별 증가율 추이

(단위 : %)

구 분		2006~2013년			
		기간별 물가 상승률			
		2006~2009년	2010~2013년	2013년	
소득분위	1분위	2.83	3.21	2.45	1.01
	2분위	2.82	3.23	2.40	1.08
	3분위	2.86	3.36	2.36	1.01
	4분위	2.84	3.31	2.36	1.00
	5분위	2.85	3.37	2.32	0.93
	6분위	2.83	3.38	2.29	0.92
	7분위	2.80	3.36	2.24	0.86
	8분위	2.84	3.43	2.24	0.82
	9분위	2.87	3.50	2.24	0.84
	10분위	2.83	3.48	2.17	0.75
소득계층	저소득층	2.84	3.28	2.40	1.04
	중산층	2.83	3.38	2.28	0.90
	고소득층	2.85	3.49	2.20	0.79

주 : 2013년 수치는 1~7월 중 수치

자료 : 가계소득동향, 2005, 2008,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2005~2013, 통계청

저소득층 물가부담은 식료품, 주거·광열·수도 등의 가격상승 때문

- 소득계층별 물가상승률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인은 소비지출패턴 차이 (가중치 차이)와 해당 품목의 가격변동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
- 즉, 특정 소득계층이 물가상승률이 높은 품목군을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더 집중적으로 소비할 경우 소득계층 간 물가수준 및 물가상승률 차이를 유발
- 앞서 살펴보았듯이, 저소득층은 주로 식료품, 주거·광열·수도 등에서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소비지출 비중이 큰데, 이들 품목의 가격상승이 저소득층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유발
- 2010~2013년 중 12대 대분류 품목의 평균 물가상승률은 식료품이 4.3%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주거·광열·수도(3.9%), 교통(3.7%), 피복 및 신발(3.3%), 가구집기·가사용품(2.0%) 등의 순
- 이에 따라 2010~2013년 중 저소득층 물가지수가 2.4% 상승하는 데 있어 식료품의 물가상승 기여도가 가장 크고, 그다음이 주거·광열·수도로 분석
- 2010~2013년 중 저소득층에서 식료품과 주거·광열·수도의 물가상승에 대한 기여도는 각각 0.42%p, 0.34%p에 달함
- 이에 비해 2010~2013년 중 식료품과 주거·광열·수도의 물가상승에 대한 기여도는 중산층에서 각각 0.33%p, 0.22%p, 고소득층에서 각각 0.24%p, 0.16%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낮음
- 또한,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소비지출 비중이 큰 품목들의 물가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소득계층별 물가상승률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
- 중산층은 교육, 외식 및 숙박 등의 지출비중이 크지만, 2010~2013년 중 이들 품목의 물가상승률은 각각 1.7%, 2.5%에 불과
- 2010~2013년 중 중산층에서 교육, 외식 및 숙박의 물가상승에 대한 기여도는 각각 0.30%p, 0.28%p 수준

- 고소득층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교통, 교양·오락, 가구집기·가사용품, 피복 및 신발, 기타소비지출 등의 비중이 크지만 교통, 피복 및 신발을 제외하고는 물가상승률이 대부분 낮은 편
- 2010~2013년 중 품목별 물가상승률 : 교통 3.7%, 교양·오락 1.0%, 가구집기·가사용품 2.0%, 피복 및 신발 3.3%, 기타소비지출 0.8% 등

표 2-18 2010~2013년 중 소득계층별 물가상승에 대한 품목별 기여도

(단위 : %, %p)

구 분	물가상승률에 대한 품목별 기여도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계	2.40	2.28	2.20
식료품	0.42	0.33	0.24
주류 및 담배	0.04	0.03	0.02
피복 및 신발	0.11	0.12	0.13
주거·광열·수도	0.34	0.22	0.16
가구집기·가사용품	0.08	0.09	0.11
보건·의료	0.16	0.11	0.11
교통	0.16	0.21	0.25
통신	0.17	0.14	0.09
교양·오락	0.11	0.10	0.14
교육	0.21	0.30	0.26
외식 및 숙박	0.26	0.28	0.26
기타소비지출	0.33	0.37	0.43

주 : 2013년은 1~7월 기준

자료 : 소비자물가조사, 2005~2013, 통계청

III 서울시의 주요 품목별 물가구조 분석

- 1 지출목적별 품목구조
- 2 품목별 물가 기여도와 물가변동성 분석
- 3 물가불안 품목의 유형화
- 4 주요 물가불안 품목 진단

III 서울시의 주요 품목별 물가구조 분석

1 지출목적별 품목구조

1.1 지출목적에 따른 분류체계

- 지출목적별 품목¹²분류는 지출목적에 따라 총 481개 품목을 12개 대분류, 40개 중분류, 72개 소분류로 구성
- 12개 대분류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류 및 담배 등으로 구성되고, 40개 중분류는 식료품, 의류, 신발 등으로, 72개 소분류는 빵 및 곡류, 남자의류, 여자의류 등으로 구성
- 이 연구에서는 대분류를 중심으로 부문별 물가구조를 개관한 후, 72개 소분류와 481개 품목을 중심으로 구조적 물가불안 품목을 유형화

표 3-1 지출목적별 대분류 내역 및 중분류 이하 품목수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품 목 수
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2	11	134
2. 주류 및 담배	2	2	8
3. 의류 및 신발	2	7	34
4. 주택수도·전기·연료	4	7	21
5.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6	8	49
6. 보 건	3	5	28
7. 교 통	3	8	32
8. 통 신	3	3	8
9. 오락 및 문화	6	10	64
10. 교 육	4	5	20
11. 음식 및 숙박	2	2	42
12. 기타 상품 및 서비스	3	4	41
계	40	72	481

자료 : 소비자물가조사, 2010, 통계청

¹²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항목은 비목으로, 세분류는 품목으로 칭하나, 여기서는 모두 품목으로 지칭

표 3-2 지출목적별 분류의 품목구성 내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품목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식료품	빵 및 곡류	쌀, 찹쌀, 보리쌀 등
		육류	쇠고기(국산), 쇠고기(수입) 등
		어류 및 수산	갈치, 명태, 조기 등
		우유 · 치즈 및 계란	우유, 분유, 치즈 등
		식용유지	참기름, 식용유
		과일	사과, 배, 복숭아 등
		채소 및 해조	배추, 상추, 양상추 등
		과자 · 빙과류 및 당류	초콜릿, 사탕, 껌 등
		기타 식료품	고춧가루, 참깨 등
		커피 · 차 및 코코아	커피, 커피크림, 차 등
주류 및 담배	비주류 음료	생수 · 청량음료 · 과일주스 및 채소주스	과일주스, 두유, 생수 등
		주류	소주, 과일주, 맥주 등
		담배	담배(국산), 담배(수입)
의류 및 신발	의류	남자의류	남자정장, 남자외투 등
		여자의류	여자정장, 여자외투 등
		캐주얼의류	점퍼, 티셔츠, 스웨터 등
		아동복 · 유아복	아동복, 유아복
		기타의류 및 의류 장신구	양말, 모자, 넥타이 등
		의류 세탁 · 수선 및 임차	의복수선료, 세탁료 등
		신발	아동화, 남자구두 등
		주택임차료	전세, 월세
		주거시설 유지보수	벽지, 바닥재, 페인트 등
		상하수도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주택 · 수도 · 전기 및 연료	수도 및 주거관련 서비스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공동주택관리비 등
		전기	전기료
		가스	도시가스, LPG(취사용)
		기타연료 및 에너지	등유, 연탄 등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	가정 · 가사비품 및 카페트	가구 · 가사비품 및 카페트	장롱, 침대, 거실장 등
		가정용 섬유제품	침구, 커튼
		가정용 기기	전기밥솥, 가스레인지 등
		가정용 가구 수리서비스	가전제품수리비 등
		주방용품 및 가정용품	식기, 컵, 숟 등
		가정 · 정원용 공구 및 장비	보일러, 건전지 등
		일상 생활용품 및 가사 서비스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등
		가구 내 고용 및 가사 서비스	가사도우미료, 간병도우미료
보건	의료용품 및 장비	의약품	감기약, 진통제 등
		의료용품 및 치료기기	종이거저귀, 위생대 등
		의료서비스	외래진료비, 건강진단비 등
		기타 의료서비스	치과 진료비
		병원 서비스	입원치료비

자료 : 소비자물가조사, 2010, 통계청

표 계속 지출목적별 분류의 품목구성 내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품목
교통	운송장비	운송장비	소형승용차, 중형승용차 등
		개인운송장비 연료 및 윤활유	휘발유, 경유 등
	운송 서비스	개인운송장비 소모품 및 유지·수리	자동차용품, 자동차 타이머 등
		개인운송장비 관련 기타 서비스	자동차학원비, 주차료 등
		철도 여객수송	열차료, 전철료
		도로 여객수송	시내버스료, 시외버스료 등
		항공 및 수상여객운송	국내항공료, 국제항공료 등
통신	우편서비스	우편서비스	이삿짐운송료, 택배이용료 등
		전화 및 팩스장비	우편료
	전화 및 팩스서비스	전화 및 팩스장비	이동전화기, 스마트폰
		전화 및 팩스서비스	일반전화통화료, 이동전화료, 스마트폰 이용료 등
오락 및 문화	음향·영상·사진 및 정보처리 장비	영상·음향기기	TV, 미디어재생기기 등
		정보처리기기·소모품	컴퓨터본체, 모니터 등
	기타 오락 및 문화용 주요 내구재	기타 오락 및 문화용 주요 내구재	피아노, 현악기
		기타 오락용품·조경용품 및 애완동물	장난감, 어린이승용물 등
	오락 및 문화 서비스	기타 오락용품·조경용품 및 애완동물	수영장이용료, 스키장이용료 등
		오락 및 스포츠 서비스	영화관람료, 공연예술관람료 등
	신문·서적 및 문방구	문화 서비스	유아용학습교재 등
		서적	신문, 잡지
		신문 및 정기 간행물	공책, 스케치북 등
		문방구	단체여행비(국내) 등
교육	단체여행	단체여행	단체여행비(국내) 등
		유치원 및 초등교육	납입금(유치원)
		중등교육	납입금(고등학교)
		고등교육	납입금(전문대학) 등
		기타교육	학원비(초등학생) 등
음식 및 숙박	음식 서비스	음식 서비스	취업학원비, 외국어학원비 등
		음식 서비스	김치찌개백반 등
		숙박 서비스	숙박료(호텔), 숙박료(여관) 등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미용용품 및 미용 서비스	이미용 및 미용시설	목욕료, 찜질방이용료 등
		개인용 전기용품 및 미용용품	면도기, 헤어드라이어 등
	기타 개인용품	기타 개인용품	손목시계, 장신구 등
		기타서비스	산후조리원이용료 등

자료 : 소비자물가조사, 2010, 통계청

121 대분류 품목별 가중치는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식료품 등이 큰 편

- 서울의 지출목적별 품목의 가중치 구조를 보면, 12대 대분류 기준 상위 3대 품목이 46.4%를 차지
- 2010년 기준으로 서울의 지출품목별 가중치는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22.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12.8%), 교육(11.5%), 음식 및 숙박(11.0%), 교통(9.3%), 보건(7.0%), 의류 및 신발(5.9%) 등의 순
- 서울의 품목별 가중치 구조는 전국에 비해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와 교육 품목의 가중치가 더 크고 다른 품목의 가중치는 전국 평균 이하
- 전국 평균의 품목별 가중치 구조는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17.0%),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13.6%), 음식 및 숙박(12.0%), 교육(11.4%), 교통(10.9%), 보건(7.3%) 등의 순으로 서울의 가중치 구조와 차별화
- 특히 서울의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품목의 가중치는 전국 수준을 5.1%p 상회하고, 교육 품목의 가중치는 전국 수준을 0.1%p 상회
- 이는 상대적으로 서울의 높은 전세 및 월세 수준을 반영하여 서울의 주택임차료 가중치(148.2)가 전국 수준(91.8)을 56.4p 웃돌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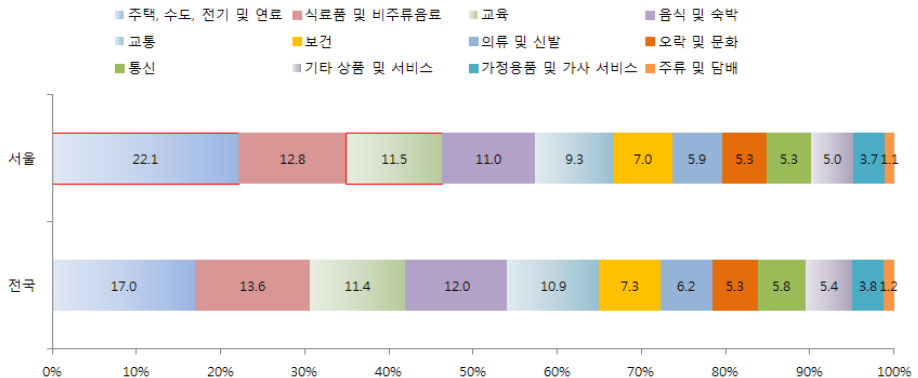


그림 3-1 2010년 서울과 전국의 대분류 품목별 가중치 비교

자료 : 소비자물가조사, 2010, 통계청

2005년 이후 가중치는 보건 등이 확대되고, 음식·숙박 등은 축소

- 2005년 이후 서울의 지출품목별 가중치 구조의 변화추이를 보면, 보건,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교육 등의 품목 가중치가 확대된 반면, 음식 및 숙박 품목 등의 가중치는 축소
 - 2010년 보건 품목 가중치는 70.0으로 2005년 대비 21.3p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2000년 이후 품목별 가중치 중 가장 크게 확대
 - 보건 품목 가중치 : 2000년 40.9 → 2005년 48.7 → 2010년 70.0
 - 이는 2000년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고령화에 따른 보건비 지출 확대 등 가계 소비행태가 반영된 결과
 - 또한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의류 및 신발, 교육,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등의 품목 가중치도 2005년에 비해 확대
 - 2005년 대비 2010년 품목별 가중치 증감분 :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5.1p, 의류 및 신발 3.7p, 교육 3.1p,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2.1p,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0.3p, 기타 상품 및 서비스 0.2p
- 반면, 2005년 이후 음식 및 숙박, 주류 및 담배, 교통 등의 품목 가중치는 축소
 - 음식 및 숙박 품목 가중치는 2005년에 확대되었다가 2010년에 12대 품목 중 가장 큰 폭인 17.4p나 축소
 - 음식 및 숙박 품목 가중치 : 2000년 104.4 → 2005년 127.7 → 2010년 110.3
 - 이밖에 교통, 통신, 오락 및 문화, 주류 및 담배 등의 품목도 2010년에 2005년보다 가중치가 축소
 - 2005년 대비 2010년 품목별 가중치 증감분 : 교통 -8.4p, 통신 -5.5p, 오락 및 문화 -3.1p, 주류 및 담배 -1.4p

표 3-3 2000년 이후 서울의 지출목적별 품목의 가중치 추이

(단위 : p)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05년 대비 2010년 증감분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148.5	125.4	127.5	2.1
주류 및 담배	19.1	12.0	10.6	-1.4
의류 및 신발	52.3	54.8	58.5	3.7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260.6	215.8	220.9	5.1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	35.2	37.0	37.3	0.3
보건	40.9	48.7	70.0	21.3
교통	95.1	101.6	93.2	-8.4
통신	46.1	58.7	53.2	-5.5
오락 및 문화	55.5	56.4	53.3	-3.1
교육	107.3	111.8	114.9	3.1
음식 및 숙박	104.4	127.7	110.3	-17.4
기타 상품 및 서비스	35.0	50.1	50.3	0.2

주 : 1. 2000년도 대분류 품목은 2010년 기준 품목과 다르기 때문에 소분류 품목을 기준으로 재분류

2. 전체 가중치의 합은 1,000임

자료 : 소비자물가조사, 각 연도, 통계청

2 품목별 물가 기여도와 물가변동성 분석

2.1 소분류 품목별 가중치 구조와 물가상승률 수준

- 2.1.1 소분류 품목별 가중치는 주택임차료 등 상위 3대 품목이 32.2% 차지
- 2010년 서울의 72개 소분류 품목별 가중치 구조를 보면, 주택임차료, 음식서비스, 학원 및 보습 교육 등 상위 3대 품목이 총 32.2%를 차지
 - 서울의 소분류 기준 품목별 가중치 비중은 주택임차료(14.8%), 음식서비스(10.8%), 학원 및 보습교육(6.6%), 전화 및 팩스 서비스(5.3%), 개인운송장비 연료 및 윤활유(3.5%), 고등교육(2.7%) 등의 순
 - 총 72개 품목 중 1% 이상의 가중치 비중을 가지는 품목은 총 29개

표 3-4 2010년 서울의 소분류 품목 중 상위 1% 이상 가중치 비중 품목

(단위 : %)

순위	품목명	비중	순위	품목명	비중
1	주택임차료	14.82	16	과일	1.62
2	음식 서비스	10.82	17	도로 여객수송	1.60
3	학원 및 보습교육	6.60	18	기타서비스	1.56
4	전화 및 팩스 서비스	5.25	19	개인용 전기용품 및 미용용품	1.54
5	개인운송장비 연료 및 윤활유	3.54	20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1.38
6	고등교육	2.71	21	캐주얼의류	1.31
7	가스	2.50	22	어류 및 수산	1.28
8	육류	2.19	23	이미용 및 미용시설	1.26
9	빵 및 곡물	2.17	24	병원 서비스	1.25
10	의료서비스	2.04	25	기타의료서비스	1.17
11	전기	1.93	26	철도 여객수송	1.12
12	의약품	1.90	27	단체여행	1.11
13	채소 및 해조	1.82	28	우유, 치즈 및 계란	1.08
14	여자의류	1.78	29	남자의류	1.02
15	운송장비	1.75	-	-	-

자료 : 소비자물가조사, 2010, 통계청

- 상위 29개 품목 중 전국과 비교해 서울의 가중치 비중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주택임차료이며, 나머지는 모두 1% 이하의 차이를 보임
- 서울의 주택임차료 가중치(14.8%)는 전국(9.2%)에 비해 5.6%p나 높은 수준인데, 이는 주로 높은 전세 비중에 기인
- 서울의 주택임차료를 구성하는 전세와 월세 품목 비중은 각각 10.8%, 4.0%로 전국 수준을 각각 4.7%p, 1.0%p 상회
- 한편, 서울의 소분류별 품목 가중치의 시계열을 보면, 상위 품목에 변화가 발생
- 2005년 가중치 비중으로 상위 3대 품목이었던 집세, 외식, 전화·정보 이용료가 주택임차료, 음식서비스, 학원 및 보습교육으로 재편
- 2010년 주택임차료 구성 품목은 전세와 월세로 2005년 집세와 동일하

지만, 명칭이 변경되고 가중치도 월세 비중 확대로 2005년에 비해 0.2%p 확대

- 2010년 전세 가중치 비중(10.79%)은 2005년 대비 0.38%p 축소된 반면, 월세 가중치 비중(4.03%)은 0.58%p 확대
- 2010년 음식서비스 품목은 2005년 외식 품목과 동일하지만, 구성 품목 수가 2005년 39개에서 2010년 38개로 1개가 줄고, 구성품목도 일부 변경되면서 가중치 비중이 1.74%p 축소
- 2010년 음식서비스 품목은 떡볶이, 막걸리, 해장국 등이 추가된 반면, 샐러드, 아이스크림, 자판기 커피 등이 제외
- 학원 및 보습교육은 2005년에 중등교육과 유치원·초등교육에 포함되었으나, 2010년에는 전체 학령 사교육비를 포함하는 학원 및 보습교육¹³ 품목으로 재편되면서 3위로 상승
- 2005년에 중등교육¹⁴과 유치원·초등교육¹⁵의 가중치 비중 순위는 각각 4위와 6위
- 2005년 중등교육과 유치원·초등교육의 사교육 관련 품목들로만 한정된 가중치 비중은 6.30%였으나 2010년에는 6.60%로 확대
- 이밖에 전화·정보이용료(전화 및 팩스서비스) 품목은 2005년 대비 가중치 비중이 0.32%p 축소되면서 2005년 3위에서 2010년 4위로 밀려남

13 2010년에 학원 및 보습교육 품목의 가중치 비중은 학원비(초등학생) 1.32%, 학원비(중학생) 1.95%, 학원비(고등학생) 1.24%, 음악학원비 0.45%, 미술학원비 0.25%, 운동학원비 0.42%, 전산학원비 0.03%, 가정학습지 0.65%, 이러닝이용료 0.01%, 학교보충교육비 0.28%로 구성되고, 학령별 납입금을 제외한 전체 학령대의 사교육비로 구성

14 2005년 중등교육 품목의 가중치 비중은 납입금(고등학교) 0.85%, 대입학원비(단과) 0.83%, 고입학원비(단과) 0.83%, 대입학원비(종합) 0.85%, 고입학원비(종합) 0.85%, 독서실비 0.08%로 구성

15 2005년 유치원·초등교육 품목의 가중치 비중은 납입금(유치원) 0.87%, 피아노학원비 0.50%, 미술학원비 0.32%, 보습학원비 0.61%, 가정학습지 1.16%, 학교보충학습비 0.27%로 구성

표 3-5 2005년과 2010년 서울의 소분류 10대 품목의 가중치 비중 비교

(단위 : %)

2005년			2010년		
순위	품목명	비중	순위	품목명	비중
1	집세	14.62	1	주택임차료	14.82
2	외식	12.56	2	음식 서비스	10.82
3	전화 · 정보 이용료	5.57	3	학원 및 보습교육	6.60
4	중등교육	4.29	4	전화 및 팩스 서비스	5.25
5	차량연료	3.76	5	개인운송장비 연료 및 윤활유	3.54
6	유치원 · 초등교육	3.73	6	고등교육	2.71
7	의료서비스	2.95	7	가스	2.50
8	곡물	2.51	8	육류	2.19
9	고등교육	2.39	9	빵 및 곡물	2.17
10	가스료	2.16	10	의료서비스	2.04

자료 : 소비자물가조사, 2010, 통계청

2.1.2 물가상승률이 높은 품목은 주로 식료품과 주거관련 공공요금

- 2010~2013년 중 서울에서 소분류 품목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높은 품목은 기타 식료품¹⁶, 가스¹⁷, 상하수도료¹⁸, 과일¹⁹, 기타연료 및 에너지²⁰ 등 주로 식료품과 수도, 가스 등 주거관련 공공요금
- 2010~2013년 중 서울의 소분류 품목별 물가상승률은 기타 식료품(10.6%), 가스(8.1%), 상하수도료(7.5%), 과일(6.6%), 기타연료 및 에너지(6.5%), 기타 여객운송²¹(6.2%) 등의 순

16 기타 식료품은 고춧가루, 참깨, 생강, 소금, 간장, 된장, 양념장, 고추장, 카레, 케찹, 드레싱, 혼합조미료, 스프, 이유식, 김치, 밀반찬, 냉동식품, 즉석식품, 삼각김밥 등 19개 품목으로 구성

17 가스는 도시가스와 LPG(취사용) 등 2개 품목으로 구성

18 상하수도료는 상수도료와 하수도료 등 2개 품목으로 구성

19 과일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밤, 감, 귤, 오렌지, 참외, 수박, 과일통조림 등 14개 품목으로 구성

20 기타연료 및 에너지는 등유, 지역난방비, 부탄가스 등 3개 품목으로 구성

21 기타 여객운송은 이삿짐운송료, 택배이용료 등 2개 품목으로 구성

표 3-6 2010~2013년 중 서울의 평균 물가상승률 상위 10대 품목

(단위 : %)

소분류 품목	전년대비 증가율			2011~2013년 중 평균 물가상승률
	2011년	2012년	2013년	
기타 식료품	18.2	14.6	-1.2	10.6
가스	9.0	7.9	7.3	8.1
상하수도료	1.4	13.8	7.3	7.5
과일	15.4	10.1	-5.5	6.6
기타 연료 및 에너지	2.6	12.3	4.7	6.5
기타 여객운송	9.4	5.7	3.5	6.2
빵 및 곡물	9.9	4.3	3.3	5.8
과자, 빙과류 및 당류	9.8	3.7	3.7	5.7
아동복·유아복	4.3	6.4	5.8	5.5
숙박 서비스	6.5	5.9	2.5	5.0

주 : 2013년 물가상승률은 1~7월 중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한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 소비자물가조사, 2010~2013, 통계청

- 2010~2013년 중 식료품군은 기타 식료품, 과일, 빵 및 곡물, 과자·빙과류 및 당류 등 4개 품목이 물가상승률 상위 10대 품목에 포함
- 기타 식료품에서 물가상승률이 높은 개별 품목은 고춧가루(27.0%), 소금(17.4%), 고추장(15.0%) 등
- 과일에서 물가상승률이 높은 개별 품목은 밤(25.4%), 배(22.0%), 귤(9.4%), 감(9.2%), 사과(9.1%) 등
- 빵 및 곡물에서 물가상승률이 높은 개별 품목은 보리쌀(14.1%), 혼식곡(12.8%), 콩(12.3%), 땅콩(11.0%), 두부(9.3%) 등
- 과자·빙과류 및 당류 중에서는 물엿(10.6%), 사탕(10.8%), 그리고 설탕(7.9%) 등의 물가상승률이 높은 편
- 2010~2013년 중 가스, 상하수도료, 기타연료 및 에너지 등 주거관련 공공요금의 물가오름세도 7% 내외의 증가세를 시현
- 가스에서 도시가스가 8.1%, LPG(취사용)는 5.6% 물가 상승

- 상하수도료는 하수도료 19.1%, 상수도료 3.1%로 하수도료의 물가 오름세가 큰 편
- 기타연료 및 에너지의 물가상승세는 부탄가스 9.3%, 등유 8.9%, 지역 난방비 6.2% 등 모든 품목이 6% 이상 상승
- o 이밖에 2010~2013년 중 기타 여객운송에서는 이사집운송료, 아동복·유아복에서는 아동복, 숙박서비스에서는 호텔숙박료와 콘도 등이 물가 오름세를 주도
- 기타 여객운송 품목군의 물가상승률 : 이사집운송료 8.6%, 택배이용료 0.0%
- 아동복·유아복 품목군의 물가상승률 : 아동복 6.0%, 유아복 3.9%
- 숙박서비스 품목군의 물가상승률 : 콘도이용료 8.7%, 호텔숙박료 6.7%, 학교기숙사비 4.1%, 여관숙박료 1.5%,

2.2 소분류 품목별 물가상승 기여도 분석

- ### 2.2.1 물가기여도 상위 3대 품목은 주택임차료, 학원·보습교육, 음식 서비스
- o 서울의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상위 3대 품목은 주택임차료, 학원 및 보습교육, 음식 서비스 등으로 가중치 분석 결과와 동일
 - 2011~2013년 중 품목별 물가상승 기여도는 주택임차료(0.56%p), 학원 및 보습교육(0.26%p), 음식 서비스(0.24%p), 가스(0.20%p), 개인 운송장비 연료 및 윤활유(0.17%p), 빵 및 곡물(0.13%p) 등의 순

표 3-7 2011~2013년 중 서울의 물가상승률에 대한 평균 기여도 상위 10대 품목

(단위 : %p)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1~2013년
총지수	3.80	2.50	1.47	2.59
주택임차료	0.64	0.63	0.42	0.56
학원 및 보습교육	0.22	0.25	0.31	0.26
음식 서비스	0.48	0.09	0.14	0.24
가스	0.23	0.20	0.18	0.20
개인운송장비 연료 및 윤활유	0.46	0.14	-0.10	0.17
빵 및 곡물	0.21	0.09	0.07	0.13
과일	0.25	0.16	-0.09	0.11
기타 식료품	0.16	0.13	-0.01	0.09
채소 및 해조	-0.04	0.10	0.14	0.07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0.01	0.06	0.12	0.06

주 : 2013년 수치는 1~7월 기준

자료 : 소비자물가조사, 2010~2013년, 통계청

- 한편, 학원 및 보습교육(기여도 2위), 채소 및 해조(기여도 9위),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기여도 10위) 등의 물가상승에 대한 기여도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학원 및 보습교육 : 2011년 0.22%p → 2012년 0.25%p → 2013년 1~7월 0.31%p
- 채소 및 해조 : 2011년 -0.04%p → 2012년 0.10%p → 2013년 1~7월 0.14%p
-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 2011년 0.01%p → 2012년 0.06%p → 2013년 1~7월 0.12%p

2.2.2 세부 품목별로는 전세, 학원비, 가스 등이 물가상승 기여도를 주도

- 2011~2013년 중 주택임차료의 높은 물가상승 기여도는 전세가 주도
- 이 기간 중 전세의 물가상승 기여도는 0.45%p로 월세의 물가상승 기여

- 도(0.11%p)를 크게 상회
- 이 기간 중 주택임차료의 소비자물가에 대한 기여율은 21.7%로 이를 분해하면, 전세 기여율이 17.4%이고, 월세 기여율은 4.3%에 불과
- o 2011~2013년 중 학원 및 보습교육의 물가상승 기여도는 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원비가 주도하고, 학교보충교육비는 물가상승 억제 요인으로 작용
- 물가 기여도 : 중학생 학원비 0.09%p, 고등학생 학원비 0.09%p, 초등학생 학원비 0.03%p, 음악학원비 0.02%p, 미술학원비 0.01%p, 학교보충교육비 -0.003%p 등
- 이 기간 중 학원 및 보습교육의 소비자물가에 대한 기여율은 10.0%로 이를 구성항목별로 분해하면, 고등학생 학원비와 중학생 학원비가 각각 3.6%, 3.4%로 가장 크게 발생하고, 나머지는 1% 이하 수준
- 물가기여율 : 고등학생 학원비 3.6%, 중학생 학원비 3.4%, 초등학생 학원비 1.1%, 음악학원비 0.6%, 학교보충교육비 -0.1% 등
- o 2011~2013년 중 음식서비스의 물가상승 기여도는 특정 품목이 주도하기보다 많은 품목이 서로 나누어 기여하는 형태
- 총 38개 품목으로 구성된 음식서비스는 학교급식비를 제외한 37개 품목이 전반적으로 0.00~0.04%p 정도로 각각 기여
- 주요 품목 기여도 : 삼겹살(외식) 0.04%p, 돼지갈비(외식) 0.03%p, 맥주(외식) 0.03%p, 된장찌개백반 0.02%p, 생선회(외식) 0.02%p 등
- 그러나 음식서비스 중 학교급식비 기여도는 -0.11%p로 물가상승에 대한 기여율이 -4.4%를 기록
- o 2011~2013년 중 가스, 개인운송장비 연료 및 윤활유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은 주로 도시가스와 휘발유가 물가상승을 주도
- 가스 품목 : 도시가스 0.20%p , LPG(취사용) 0.00%p
- 개인운송장비 연료 및 윤활유 : 휘발유 0.11%p, 경유 0.04%p, LPG(자동차용) 0.02%p

- 2011~2013년 중 빵 및 곡물, 과일, 기타식료품, 채소 및 해조 등 식료품 관련 품목은 대부분 품목이 물가상승에 기여했으나, 특히 쌀, 고춧가루 등의 물가상승 기여도가 높은 편
- 빵 및 곡물 : 보리쌀을 제외한 16개 품목이 물가상승에 기여하거나 포함이고, 특히 주식인 쌀의 물가상승 기여도가 0.05%p로 가장 큼
- 기타 식료품 : 19개 전체 품목 모두 물가상승에 기여하거나 포함이고, 특히 고춧가루의 물가상승 기여도가 0.04%p로 가장 큼
- 2011~2013년 중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는 공동주택관리비가 물가상승을 주도
- 품목별 기여도 : 공동주택관리비 0.06%p, 정화조청소료 0.001%p, 쓰레기봉투료 0.00%p
- 공동주택관리비는 소비자물가 내 가중치 비중이 1.26%로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중 가장 클 뿐 아니라 2011~2013년 중 평균 5.0% 상승해 정화조청소료(1.1%)와 쓰레기봉투료(0.3%) 상승률을 상회

2.3 소분류 품목별 물가변동성 분석

2.3.1 물가변동성이 큰 품목은 식료품 관련 품목이 다수

- 2011~2013년 중 서울에서 물가변동성이 큰 상위 3대 품목은 채소 및 해조, 기타 식료품, 기타서비스로 구성
- 소분류 기준으로 본 물가변동성은 채소 및 해조(11.72), 기타 식료품(10.45), 기타서비스(10.05), 과일(9.87), 유치원 및 초등교육(8.34), 육류(7.16) 등의 순
- 특히 채소 및 해조, 기타 식료품, 기타서비스의 변동성 수준은 10 이상으로 여타 품목에 비해 변동성이 심한 편
- 변동성 상위 20대 품목 중 채소 및 해조, 기타 식료품, 과일, 육류, 파자·빙과류 및 당류, 빵 및 곡물 등 식료품 품목이 6개나 포함

- 이밖에 개인운송장비 연료·유탄유 등 교통관련 품목은 4개, 오락·문화, 교육, 수도·전기·연료, 그리고 일상생활용품·가사서비스 관련 품목이 각각 2개, 통신과 기타서비스 관련 품목이 각각 1개

표 3-8 서울의 2011~2013년 중 소분류 기준 물가변동성 상위 품목

순위	품목명	변동성	순위	품목명	변동성
1	채소 및 해조	11.72	11	기타연료 및 에너지	5.63
2	기타 식료품	10.45	12	항공 및 수상여객운송	5.52
3	기타서비스	10.05	13	가구 내 고용 및 가사 서비스	5.28
4	과일	9.87	14	비내구성 가정용품	5.03
5	유치원 및 초등교육	8.34	15	과자, 빙과류 및 당류	4.57
6	육류	7.16	16	문방구	4.45
7	개인운송장비 연료 및 유탄유	6.95	17	영상·음향기기	4.12
8	상하수도료	6.14	18	도로 여객수송	3.97
9	철도 여객수송	6.13	19	빵 및 곡물	3.91
10	중등교육	5.92	20	우편서비스	3.72

주 : 물가변동성은 품목별로 2011년 1/4분기~2013년 2/4분기 중 전년동기 대비 물가상승률의 표준편차 값으로 산출

자료 : 소비자물가조사, 2010, 통계청

2.3.2 세부 품목별로는 계절성 관련 채소류 등의 변동성이 지대

- 2011~2013년 중 식료품군의 가격변동성은 주로 계절성이 강한 채소류와 양념류, 과일류 등이 주도
- 채소 및 해조는 총 31개 품목 중 22개 품목의 변동성 수준이 20 이상
- 특히 배추(71.39), 양배추(67.07), 열무(54.44), 당근(53.81), 그리고 파(53.26) 등의 가격변동성은 50 이상일 정도로 변동성이 지대
- 기타 식료품은 총 19개 품목 중 3개 품목의 변동성이 20 이상을 기록하고, 특히 양념류의 변동성이 심한 것으로 분석
- 기타 식료품 구성품목의 변동성 : 고춧가루 44.91, 생강 24.49, 소금 21.45, 간장 10.05, 양념장 8.80, 고추장 8.01 등

- 과일은 총 14개 품목 중 5개 품목의 변동성이 20 이상을 기록
 - 과일 구성품목의 가격 변동성 : 복숭아 35.68, 귤 30.29, 수박 22.28, 참외 20.45, 감 20.14 등
- 육류는 총 7개 품목 중 돼지고기의 가격변동성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
 - 육류 구성품목의 가격 변동성 : 돼지고기 24.84, 국산 쇠고기 7.99, 소시지 7.91, 수입 쇠고기 7.19, 닭고기 7.01 등
- 기타서비스, 유치원 및 초등교육은 금융수수료, 무상보육 등 정책변수에 따른 가격 하락이 변동성을 확대시킨 요인으로 작용
- 기타서비스의 높은 물가변동성은 12개 구성품목 중 보육시설이용료(변동성 21.81)와 금융수수료(변동성 11.53)가 주도하고 다른 항목의 변동성은 모두 4 이하
 - 보육시설이용료는 2011년 이후 하락세로 반전하면서 물가변동성이 확대(보육시설이용료 : 2011년 3.0% → 2012년 -36.2% → 2013년 1~7월 -32.1%)
 - 금융수수료도 2011~2012년의 수수료 인하 정책 등에 힘입어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보합세로 전환(금융수수료 : 2011년 -4.4% → 2012년 -22.0% → 2013년 1~7월 0.0%)
- 유치원 및 초등교육은 구성품목인 유치원 납입금 품목이 2011년에 증가했으나, 그 이후 하락세로 반전하면서 물가변동성이 8.34로 확대
 - 유치원 납입금 물가상승률 : 2011년 2.2% → 2012년 -7.3% → 2013년 1~7월 -17.9%
- 교통관련 품목의 변동성은 주로, 휘발유, 경유, LPG(자동차), 전철료, 시내버스료 등이 주도
- 개인운송장비 연료 및 유탄유류의 품목인 휘발유, 경유, LPG(자동차)는 2011년, 2012년 2년 연속 상승하였다가 유가 하락 등으로 2013년에 감소세로 전환²²하면서 변동성 확대
 - 개인운송장비 연료 및 유탄유류 품목의 가격 변동성 : 휘발유 6.54, 경유

8.24, LPG(자동차용) 7.65

- 철도여객수송, 도로여객수송, 항공 및 수상여객수송의 변동성은 각각 전철료, 시내버스료, 국제항공료가 주도
- 철도여객수송 중 열차료의 변동성은 1.35인 데 비해 전철료는 6.96
- 도로여객수송 중 시내버스료의 변동성은 6.04인 반면, 시외버스료, 고속버스료, 택시료 등의 변동성은 모두 3 미만
- 항공 및 수상여객운송 중 국제항공료의 변동성은 6.26이고, 나머지의 변동성은 모두 4 미만
- 이밖에 상하수도료와 기타연료·에너지의 변동성은 하수도료와 등유, 지역난방비가 주도
- 상하수도료 품목의 가격 변동성 : 상수도료 2.93, 하수도료²³ 17.08
- 기타연료 및 에너지의 품목별 가격 변동성 : 등유 8.74, 지역난방비 7.16, 부탄가스 4.84

3 물가불안 품목의 유형화

3.1 분석개요

- 이 절에서는 서울시 물가안정을 위한 중점관리 품목을 선정하기 위해 물가불안 품목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려고 함
- 이를 위해 서울의 물가불안 품목이 무엇인지를 다각도로 유형화하는 작업을 시도
- 물가불안 품목의 유형화는 다음과 같은 3단계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진행
- 1단계 : 2011~2013년 중 개별 품목의 소비비중과 물가상승률 평균을

²² 휘발유 가격상승률은 2011년 12.3% → 2012년 4.3% → 2013년 1~7월 -2.2%로, 경유 가격상승률은 2011년 15.4% → 2012년 4.5% → 2013년 1~7월 -3.6%로, LPG(자동차용) 가격상승률은 2011년 13.1% → 2012년 2.6% → 2013년 1~7월 -3.8%로 변동

²³ 하수도료 가격은 2011년 보합에서 2012년 34.4%, 2013년 1~7월 23.0%로 급상승

기준으로 유형화

- 2단계 : 2011~2013년 중 개별 품목의 소비비중과 물가변동성 평균 수준을 기준으로 유형화
- 3단계 : 2011~2013년 중 개별품목의 물가상승에 대한 기여도와 가격 변동성의 평균 수준을 기준으로 유형화

표 3-9 물가불안 품목의 유형화 방식

	1단계 : 소비비중과 물가상승률 기준 유형화	2단계 : 소비비중과 가격변동성 기준 유형화	3단계 : 물가기여도와 가격변동성 기준 유형화
기준	▷ 2010년 소비지출 비중 ▷ 2011~2013년 중 평균 물가상승률	▷ 2010년 소비지출 비중 ▷ 2011년~2013년 중 가격변동성이 평균 수준	▷ 2011~2013년 중 물가상승 기여도 평균 ▷ 2011년~ 2013년 중 가격변동성이 평균 수준
목적	▷ 가게 내 소비지출 비중이 크면서 물가상승률도 높은 품목들을 규명	▷ 가게 내 소비지출 비중이 크면서 물가불안정을 유발하거나 물가수준이 높은 품목들을 규명	▷ 전체 물가에 대한 기여도가 높으면서 고물가 및 물가불안정을 유발하는 품목들을 규명
모니터링 품목 후보군	▷ 소비지출 비중이 평균 수준 이상이고 물가상승률도 평균 수준 이상인 품목	▷ 소비지출 비중이 평균 수준 이상이고 가격변동성도 큰 품목	▷ 물가상승 기여도가 높고 가격변동성도 큰 품목

3.2 소비비중과 물가상승률 기준 유형화

3.2.1 소비비중이 높고 물가상승률이 높은 품목이 중점 모니터링 후보군

- 소비비중과 물가상승률을 이용한 유형화는 다음과 같이 4개 유형으로 분류
 - 1사분면 : 소비비중과 물가상승률이 모두 평균 이상인 품목
 - 가게 내 소비비중이 크면서 물가상승률도 높은 품목들로 중점 모니터링 대상 후보
 - 2사분면 : 소비비중은 평균 이하이나, 물가상승률은 평균 이상인 품목
 - 평균적으로 가게 내 소비비중은 낮지만 물가상승률이 높아 특정 가구는 높은 물가상승이 부담이 될 수도 있는 품목

- 3사분면 : 소비비중과 물가상승률이 모두 평균 수준 이하인 품목
- 4사분면 : 소비비중은 평균 이상이지만,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품목
- o 분석대상 품목과 분석변수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음
- 분석대상 : 72개 소분류 품목과 481개 개별 품목
- 소비비중 :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조사에서 72개 소분류 기준 서울의 가중치와 481개 세분류 가중치를 활용
- 물가상승률 : 2011~2013년 7월의 소분류 및 세분류 품목의 서울 물가 지수 증가율의 평균을 활용

3.2.2 중점 모니터링 후보군은 주택임차료, 사교육비 등 9개 품목

- o 소비비중과 물가상승률을 이용한 유형화방식으로는 주택임차료, 학원 및 보습교육, 개인운송장비 연료 및 윤활유 등 총 9개 품목이 선별
- 1사분면(9개) : 주택임차료, 학원 및 보습교육, 개인운송장비 연료 및 윤활유, 가스, 빵 및 곡물, 전기, 채소 및 해조, 과일 등
- 2사분면(27개) :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캐주얼의류, 이미용 및 이용시설, 철도여객수송, 단체여행, 유유·치즈 및 계란 등
- 3사분면(26개) : 어류 및 수산, 병원서비스, 기타의료서비스, 문화서비스, 유치원 및 초등교육, 신발 등
- 4사분면(10개) : 음식서비스, 전화 및 팩스 서비스, 고등교육, 육류, 의료서비스, 의약품, 여자의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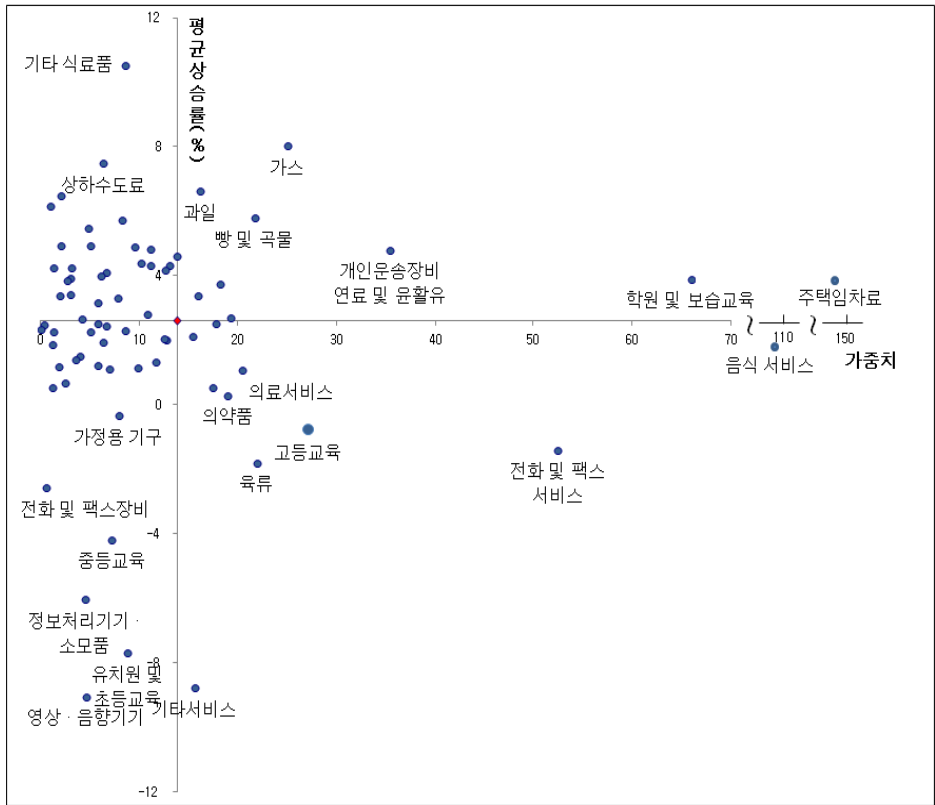


그림 3-2 소비비중과 물가상승률에 의한 품목 분류

표 3-10 소비비중과 물가상승률 기준 소분류 품목의 유형화

(단위 : %)

1사분면			2사분면		
품목	가중치	물가 상승률	품목	가중치	물가 상승률
주택임차료	148.2	3.8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13.8	4.6
학원 및 보습교육	66.0	3.9	캐주얼의류	13.1	4.3
개인운송장비 연료 및 윤활유	35.4	4.8	이미용 및 미용시설	12.6	4.2
가스	25.0	8.1	철도 여객수송	11.2	4.9
빵 및 곡물	21.7	5.8	단체여행	11.1	4.3
전기	19.3	2.7	우유, 치즈 및 계란	10.8	2.8
채소 및 해조	18.2	3.8	남자의류	10.2	4.4
과일	16.2	6.6	가구 내 고용 및 가사 서비스	9.5	4.9
도로 여객수송	16.0	3.4	기타 식료품	8.6	10.6
			과자, 빙과류 및 당류	8.3	5.7
			서적	7.8	3.3
			기타 개인용품	6.7	4.1
			상하수도료	6.4	7.5
			주거시설 유지·보수	6.1	4.0
			성인학원 및 기타교육	5.8	3.2
			생수, 청량음료, 과일주스 및 채소주스	5.1	4.9
			아동복·유아복	4.9	5.5
			비내구성 가정용품	4.2	2.7
			주방용품 및 가정용품	3.1	4.3
			항공 및 수상여객운송	3.0	4.0
			가정용 섬유제품	3.0	3.5
			커피, 차 및 코코아	2.7	3.9
			기타연료 및 에너지	2.1	6.5
			숙박 서비스	2.1	5.0
			기타의류 및 의류 장신구	2.0	3.4
			문방구	1.3	4.3
			기타 여객운송	1.0	6.2

표 계속 소비비중과 물가상승률 기준 소분류 품목의 유형화

(단위 : %)

3 사분면			4사분면		
품목	가중치	물가 상승률	품목	가중치	물가 상승률
어류 및 수산	12.8	2.0	음식 서비스	108.2	2.2
병원 서비스	12.5	2.1	전화 및 팩스 서비스	52.5	-1.4
기타의료서비스	11.7	1.4	고등교육	27.1	-0.8
문화 서비스	9.9	1.2	육류	21.9	-1.8
유치원 및 초등교육	8.8	-7.7	의료서비스	20.4	1.1
신발	8.6	2.3	의약품	19.0	0.3
가정용 기구	7.9	-0.3	여자의류	17.8	2.6
중등교육	7.2	-4.2	운송장비	17.5	0.6
담배	7.0	1.1	기타서비스	15.6	-8.8
오락 및 스포츠 서비스	6.7	2.5	개인용 전기용품 및 미용용품	15.4	2.1
의료용품 및 치료기기	6.4	2.0			
가구, 가사비품 및 카펫	5.8	2.6			
기타 오락용품, 조경용품 및 애완동물	5.8	1.3			
개인운송장비 관련 기타 서비스	5.1	2.3			
영상·음향기기	4.6	-9.0			
정보처리기기·소모품	4.5	-6.0			
개인운송장비 소모품 및 유지 ·수리	4.0	1.5			
주류	3.6	1.4			
가정용 기구 수리서비스	2.5	0.7			
의류 세탁, 수선 및 임차	1.9	1.2			
가정·정원용 공구 및 장비	1.3	2.3			
식용유지	1.2	1.9			
신문 및 정기 간행물	1.2	0.6			
전화 및 팩스장비	0.6	-2.5			
기타 오락 및 문화용 주요 내구재	0.4	2.5			
우편서비스	0.1	2.4			

3.3 소비비중과 가격변동성 기준 유형화

3.3.1 소비비중이 높고 가격변동성이 큰 품목이 중점 모니터링 후보군

- 소비비중과 가격변동성을 이용한 유형화는 다음과 같이 4개 유형으로 분류
 - 1사분면 : 소비비중과 가격변동성이 모두 평균 이상인 품목
 - 가계 내 소비비중이 크면서 가격변동성도 높은 품목들로 중점 모니터링 대상 후보
 - 2사분면 : 소비비중은 평균 이하이나, 가격변동성은 평균 이상인 품목
 - 평균적으로 가계 내 소비비중은 낮지만 가격변동성이 높아 수급불안정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품목
 - 3사분면 : 소비비중과 가격변동성이 모두 평균 수준 이하인 품목
 - 4사분면 : 소비비중은 평균 이상이고 가격변동성이 안정적인 품목
 - 이 품목군은 물가가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경우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중점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
- 분석대상 품목과 분석변수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음
 - 분석대상 : 72개 소분류 품목과 481개 개별 품목
 - 소비비중 :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조사의 72개 소분류 기준 서울의 소비비중과 481개 세분류 소비비중을 활용
 - 가격변동성 : 2011 1/4~2013년 2/4분기의 소분류 및 세분류 품목의 전년동기 대비 서울 물가지수 증가율의 표준편차

3.3.2 중점 모니터링 후보군은 채소 및 해조, 과일 등 19개 품목

- 중점 모니터링 후보군은 1사분면과 4사분면에 속하는 채소 및 해조, 과일, 학원 및 보습교육, 주택임차료 등 19개 품목
- 1사분면(13개) : 채소 및 해조, 과일, 빵 및 곡물, 과일, 의약품, 가스, 육류, 여자의류, 음식서비스, 개인운송장비 연료 및 윤활유 등

- 2사분면(42개) :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캐주얼의류, 어류 및 수산, 철도 여객수송, 가정용 가구, 영상·음향기기 등
- 3사분면(11개) : 이미용 및 미용시설, 병원서비스, 기타 의료서비스, 남자의류, 문화서비스 등
- 4사분면(6개) : 주택임차료, 학원 및 보습교육, 의료서비스, 전기, 운송장비, 개인용 전기용품 및 미용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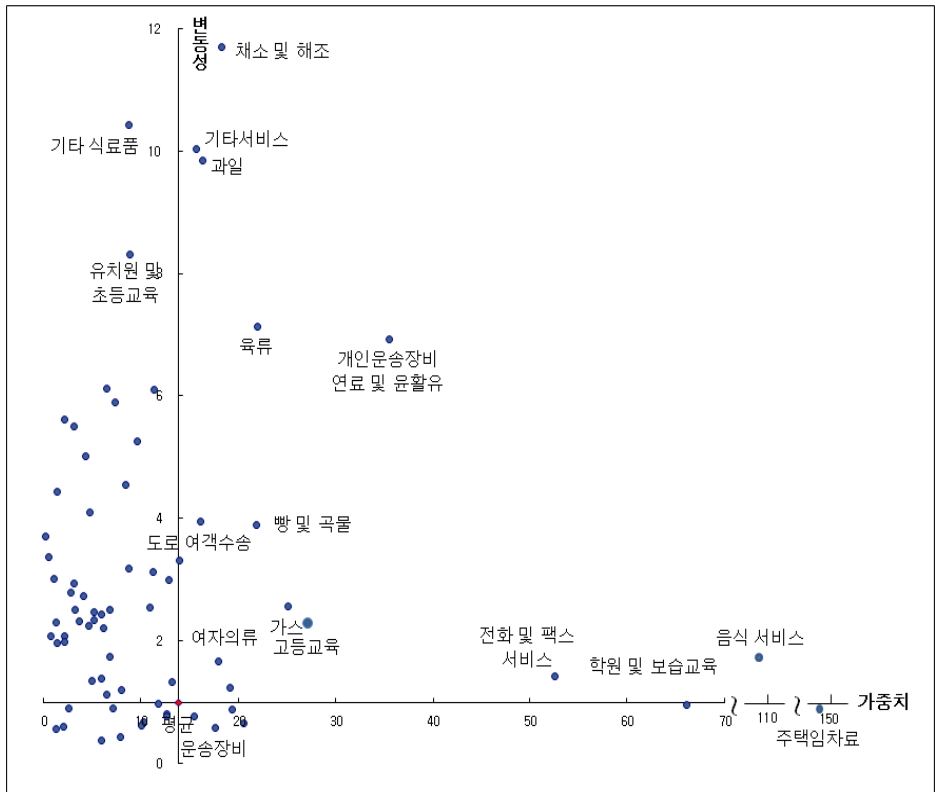


그림 3-3 소비비중과 가격변동성에 의한 품목 분류

표 3-11 소비비중과 변동성 기준 소분류 품목의 유형화

1사분면			2사분면		
품목	소비비중	변동성	품목	소비비중	변동성
음식 서비스	108.2	1.86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13.8	3.33
전화 및 팩스 서비스	52.5	1.45	캐주얼의류	13.1	1.34
개인운송장비 연료 및 윤활유	35.4	6.95	어류 및 수산	12.8	3.02
고등교육	27.1	2.29	철도 여객수송	11.2	6.13
가스	25.0	2.58	단체여행	11.1	3.15
육류	21.9	7.16	우유, 치즈 및 계란	10.8	2.56
빵 및 곡물	21.7	3.91	가구 내 고용 및 가사 서비스	9.5	5.28
의약품	19.0	1.26	유치원 및 초등교육	8.8	8.34
채소 및 해조	18.2	11.72	기타 식료품	8.6	10.45
여자의류	17.8	1.68	신발	8.6	3.21
과일	16.2	9.87	과자, 빙과류 및 당류	8.3	4.57
도로 여객수송	16.0	3.97	가정용 기구	7.9	1.22
기타서비스	15.6	10.05	중등교육	7.2	5.92
			오락 및 스포츠 서비스	6.7	2.53
			기타 개인용품	6.7	1.76
			상하수도료	6.4	6.14
			의료용품 및 치료기기	6.4	1.15
			주거시설 유지·보수	6.1	2.22
			가구, 가사비품 및 카페트	5.8	2.45
			기타 오락용품, 조경용품 및 애완동물	5.8	1.41
			생수, 청량음료, 과일주스 및 채소주스	5.1	2.48
			개인운송장비 관련 기타 서비스	5.1	2.37
			아동복·유아복	4.9	1.36
			영상·음향기기	4.6	4.12
			정보처리기기·소모품	4.5	2.27
			비내구성 가정용품	4.2	5.03
			개인운송장비 소모품 및 유지·수리	4.0	2.75
			주류	3.6	2.34
			주방용품 및 가정용품	3.1	2.52
			항공 및 수상여객운송	3.0	5.52
			가정용 섬유제품	3.0	2.96

표 계속 소비비중과 변동성 기준 소분류 소분류 품목의 유형화

1사분면			2사분면		
품목	소비비중	변동성	품목	소비비중	변동성
			커피, 차 및 코코아	2.7	2.81
			기타연료 및 에너지	2.1	5.63
			숙박 서비스	2.1	2.10
			기타의류 및 의류 장신구	2.0	2.00
			문방구	1.3	4.45
			가정 · 정원용 공구 및 장비	1.3	1.99
			식용유지	1.2	2.32
			기타 여객운송	1.0	3.04
			전화 및 팩스장비	0.6	2.10
			기타 오락 및 문화용 주요 내구재	0.4	3.40
			우편서비스	0.1	3.72
3 사분면			4사분면		
품목	소비비중	변동성	품목	소비비중	변동성
이미용 및 미용시설	12.6	0.83	주택임차료	148.2	0.91
병원 서비스	12.5	0.78	학원 및 보습교육	66.0	0.98
기타 의료서비스	11.7	0.99	의료서비스	20.4	0.68
남자의류	10.2	0.70	전기	19.3	0.90
문화서비스	9.9	0.63	운송장비	17.5	0.60
서적	7.8	0.45	개인용 전기용품 및 미용용품	15.4	0.78
담배	7.0	0.91			
성인학원 및 기타교육	5.8	0.39			
가정용 기구 수리서비스	2.5	0.91			
의류 세탁, 수선 및 임차	1.9	0.61			
신문 및 정기 간행물	1.2	0.57			

- 341 **물가상승에 대한 영향력과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이 모니터링 후보군**
- 기여도와 가격변동성을 이용한 유형화는 다음과 같이 4개 유형으로 분류
 - 1사분면 : 기여도와 가격변동성이 모두 평균 이상인 품목
 - 전체 물가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크면서 가격도 불안정한 품목으로 중점 모니터링 대상 후보
 - 2사분면 : 기여도는 평균 이하이나, 가격변동성이 평균 이상인 품목
 - 3사분면 : 기여도와 가격변동성이 모두 평균 수준 이하인 품목
 - 4사분면 : 기여도는 평균 이상이지만, 가격변동성은 안정적인 품목
 - 이들 품목은 가격변동성이 낮지만, 가격수준 자체가 높을 수가 있고 전체 물가에 대한 영향력이 크므로 중점 모니터링 대상 후보군에 추가
 - 분석대상 품목과 분석변수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음
 - 분석대상 : 72개 소분류 품목과 481개 개별 품목
 - 기여도 : 2011~2013년 7월 서울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소분류 및 세분류 품목의 평균 기여도
 - 가격변동성 : 2011 1/4~2013년 2/4분기의 소분류 및 세분류 품목의 전년동기 대비 물가지수 증가율의 표준편차
- 342 **물가 모니터링 후보군은 식료품, 주거, 주택임차료 등 21개 품목**
- 중점 모니터링 후보군은 1사분면과 4사분면에 속하는 채소 및 해조, 과일, 빵 및 곡물, 학원 및 보습교육, 주택임차료 등 21개 품목
 - 1사분면(16개) : 채소 및 해조, 과일, 빵 및 곡물, 과자·빙과류 및 당류, 음식서비스, 가스, 개인운송장비 연료 및 윤활유,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캐주얼의류, 상하수도료 등

- 2사분면(29개) : 우유·치즈 및 계란, 기타 개인용품, 아동복·유아복, 어류 및 수산, 주거시설 유지·보수, 신발, 주방용품 및 가정용품, 숙박서비스, 의약품 등
- 3사분면(11개) : 개인용 전기용품 및 미용용품, 병원서비스, 서적, 의료서비스, 담배, 신문 및 정기 간행물 등
- 4사분면(5개) : 주택임차료, 학원 및 보습교육, 이미용 및 미용시설, 전기, 남자의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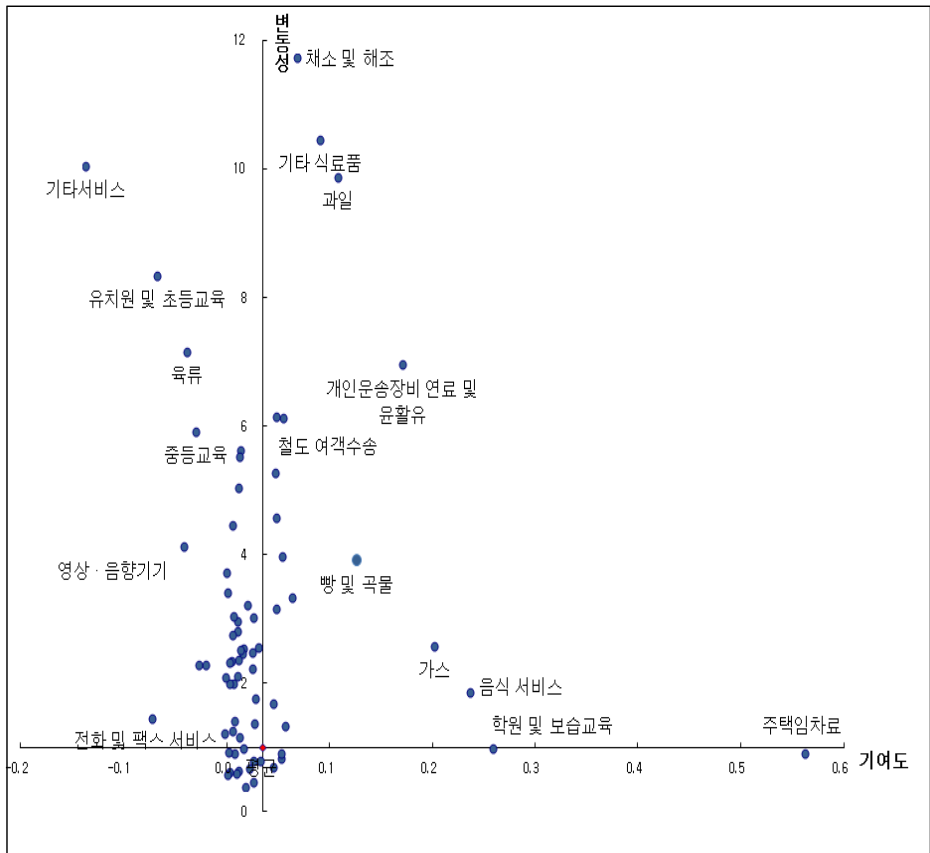


그림 3-4 품목별 기여도와 가격변동성에 의한 품목 분류

표 3-12 기여도와 가격변동성 기준 소분류 품목의 유형화

1사분면			2사분면		
품목	기여도	변동성	품목	기여도	변동성
음식 서비스	0.24	1.86	우유, 치즈 및 계란	0.03	2.56
가스	0.20	2.58	기타 개인용품	0.03	1.76
개인운송장비 연료 및 윤활유	0.17	6.95	아동복 · 유아복	0.03	1.36
빵 및 곡물	0.13	3.91	어류 및 수산	0.03	3.02
과일	0.11	9.87	생수, 청량음료, 과일주스 및 채소주스	0.03	2.48
기타 식료품	0.09	10.45	주거시설 유지 · 보수	0.02	2.22
채소 및 해조	0.07	11.72	신발	0.02	3.21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0.06	3.33	오락 및 스포츠 서비스	0.02	2.53
캐주얼의류	0.06	1.34	기타 의료서비스	0.02	0.99
철도 여객수송	0.05	6.13	가구, 가사비품 및 카펫	0.01	2.45
도로 여객수송	0.05	3.97	기타 연료 및 에너지	0.01	5.63
단체여행	0.05	3.15	주방용품 및 가정용품	0.01	2.52
상하수도료	0.05	6.14	의료용품 및 치료기기	0.01	1.15
과자, 빙과류 및 당류	0.05	4.57	항공 및 수상여객운송	0.01	5.52
가구 내 고용 및 가사 서비스	0.05	5.28	개인운송장비 관련 기타 서비스	0.01	2.37
여자의류	0.05	1.68	비내구성 가정용품	0.01	5.03
			커피, 차 및 코코아	0.01	2.81
			숙박 서비스	0.01	2.10
			가정용 섬유제품	0.01	2.96
			기타 오락용품, 조경용품 및 애완동물	0.01	1.41
			기타 의류 및 의류 장신구	0.01	2.00
			기타 여객운송	0.01	3.04
			개인운송장비 소모품 및 유지 · 수리	0.01	2.75
			의약품	0.01	1.26
			문방구	0.01	4.45
			주류	0.01	2.34
			가정 · 정원용 공구 및 장비	0.00	1.99
			식용유지	0.00	2.32
			기타 오락 및 문화용 주요 내구재	0.00	3.40

표 계속 기여도와 가격변동성 기준 소분류 품목의 유형화

3 사분면			4사분면		
품목	기여도	변동성	품목	기여도	변동성
개인용 전기용품 및 미용용품	0.03	0.78	주택임차료	0.56	0.91
병원 서비스	0.03	0.78	학원 및 보습교육	0.26	0.98
서적	0.03	0.45	이미용 및 미용시설	0.05	0.83
의료서비스	0.02	0.68	전기	0.05	0.90
성인학원 및 기타교육	0.02	0.39	남자의류	0.05	0.70
문화서비스	0.01	0.63			
운송장비	0.01	0.60			
담배	0.01	0.91			
의류 세탁, 수선 및 임차	0.00	0.61			
가정용 기구 수리서비스	0.00	0.91			
신문 및 정기 간행물	0.00	0.57			

3.5 물가불안 품목의 유형화에 대한 종합판단

- 3가지 유형화 방식의 결과를 보면, 다소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인 특징도 보이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볼 때 물가 기여도와 가격변동성 기준 유형화가 물가불안 품목 규명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
- 물가 기여도와 가격변동성 기준은 개념적 측면에서 소비비중과 물가상승률 기준, 소비비중과 가격변동성 기준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 물가 기여도는 개념적으로 소비비중과 물가상승률의 곱으로 표현되므로 소비비중과 물가상승률 기준을 포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 소비비중과 물가변동성 기준은 소비비중을 포함하고 있으나, 물가변동성이 낮더라도 물가수준이 높을 수 있으므로 분석기준으로 다소의 약점을 보유
- 또한 분석결과를 보면, 물가 기여도와 가격변동성 기준으로 선별된 중점 모니터링 후보군이 21개로 가장 많고, 특히 소비비중과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선별된 후보군을 모두 포함

- 물가 기여도와 가격변동성 기준 중점 모니터링 후보군은 19개 품목 중 11개 품목이 포함되고 8개 품목(전화 및 팩스 서비스, 고등교육, 육류, 의약품, 기타서비스, 의료서비스, 운송장비, 개인용 전기용품 및 미용용품)만 물가 기여도와 가격변동성 기준에 미포함
- 따라서 물가 기여도와 가격변동성 기준으로 선별된 후보군 중에서 서울시 정책을 통해 물가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품목을 서울시 물가불안 요인 품목으로 선별하고 주요 품목군에 대한 진단을 실시
- 주요 품목군은 주택임차료 등 ‘주거비’, 학원 및 보습교육 등의 ‘사교육비’, 빵 및 곡물, 과일, 채소 및 야채 등의 ‘식료품’

표 3-13 분류 유형별 소분류 기준 물가 모니터링 품목 후보군

분류 기준	물가 모니터링 품목 후보군
소비비중 과 물가상승률 (9개 품목)	주택임차료, 학원 및 보습교육, 개인운송장비 연료 및 윤활유, 가스, 빵 및 곡물, 전기, 채소 및 해조, 과일, 도로 여객수송
소비비중과 가격변동성 (19개 품목)	음식서비스, 전화 및 팩스 서비스, 개인운송장비 연료 및 윤활유, 고등교육, 가스, 육류, 빵 및 곡물, 의약품, 채소 및 해조, 여자의류, 과일, 도로 여객수송, 기타서비스, 주택임차료, 학원 및 보습교육, 의료서비스, 전기, 운송장비, 개인용 전기용품 및 미용용품
물가기여도와 가격변동성 (21개 품목)	음식서비스, 가스, 개인운송장비 연료 및 윤활유, 빵 및 곡물, 과일, 기타 식료품, 채소 및 해조,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캐주얼의류, 철도 여객수송, 도로 여객수송, 단체여행, 상하수도료, 과자·빙과류 및 당류, 가구 내 고용 및 가사 서비스, 여자의류, 주택임차료, 학원 및 보습교육, 이미용 및 미용시설, 전기, 남자의류

4 주요 물가불안 품목 진단

4.1 주거비

4.1.1 주거관련 비용이 서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타 품목에 비해 큰 편

- 서울의 주택임차료는 가격변동성이 다소 낮지만, 평균 이상의 높은 지출 비중과 물가 기여도를 보임
- 서울의 주택임차료 가중치는 148.2로 소분류 품목 평균(13.9)을 상회

할 뿐 아니라 전국 평균(91.8)의 1.6배 수준

- 2011~2013년 중 주택임차료 물가상승률도 3.8%로 평균(2.6%) 이상이고, 물가상승 기여도도 0.56%p로 평균(0.04%p) 수준 상회
- 2011~2013년 중 가격변동성은 0.91로 소분류 품목의 평균(0.99) 수준과 유사
 - o 서울의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는 지출비중이 평균 수준과 유사하지만, 물가상승률과 가격변동성은 큰 품목
-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가중치는 13.8로 평균(13.9) 수준과 유사
- 반면, 2010~2013년 중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의 물가상승률과 물가상승 기여도, 가격변동성은 각각 4.6%, 0.06%p, 3.33으로 평균 수준을 상회

4.1.2 주거비 불안은 전세가격 상승과 공동주택관리비 상승 등이 주요인

- o 서울의 주택임차료 물가불안은 전세의 높은 지출비중과 가격상승 등이 주요인
- 서울의 전세의 가중치는 107.9로 주택임차료 가중치의 72.8%를 차지
- 전세와 월세의 물가상승률은 모두 평균 수준을 상회하지만, 특히 전세의 물가상승률이 높은 편
 - 2011~2013년 중 전세물가 상승률은 4.2%인 반면, 월세는 2.8%
- 2011~2013년 중 주택임차료의 가격변동성은 평균 수준을 소폭 하회하지만, 전세 품목의 가격변동성은 1.05로 평균 수준을 상회
- o 서울의 전세가격 상승은 주택 매매가격 하락세 지속에 대한 기대심리 확대로 임대수요가 확대된 것이 주요인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지수는 2010~2013년²⁴ 중 평균 2.3% 하락
- 같은 기간 중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지수가 1.5%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

24

2013년 수치는 앞서 물가지수 분석기간과 동일하게 1~7월 수치

- 2011~2013년 중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지수 증가율 : 2011년 0.0% → 2012년 -2.4% → 2013년 -4.5%
- 주택매매가격의 하락세 지속과 추가하락에 대한 우려로 소비자의 주택 구입태도가 위축되면서 임대수요가 확대되고 전세가격 상승세 유도
- 서울의 주택구입태도는 2010년 이후 몇 차례²⁵를 제외하면 모두 기준값(100)을 하회²⁶
- 2010~2013년 중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지수는 평균 5.1% 상승(2011년 9.5%, 2012년 3.3%, 2013년 2.3%)

표 3-14 2011~2013년 중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지수 및 전세가격지수의 전년대비 증가율

(단위 : %)

구 분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2011	0.0	9.5
2012	-2.4	3.3
2013	-4.5	2.3
평균	-2.3	5.1

주 : 주택매매가격지수 및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주택종합유형을 기준으로 산출

자료 : 전국주택가격동향, 2010~2013, 통계청

- 한편, 서울의 기타 주거관리 서비스의 물가불안은 공동주택관리비의 높은 물가상승이 주요인
- 기타 주거관리 서비스 비용은 공동주택관리비, 쓰레기 봉투료, 정화조 청소료로 구성
- 이들 구성품목 중 공동주택관리비는 지출비중이 가장 크고 물가상승률과 가격변동성도 모두 높은 실정
- 2010~2013년 중 공동주택관리비의 물가상승률은 5.0%, 가격변동성

²⁵ 2010년 4/4분기, 2011년 1/4분기, 2012년 2/4분기, 2013년 2/4 분기

²⁶ 서울연구원, 2010~2013, 서울지역 소비자 체감경기 전망

은 3.62로 평균 수준을 상회

- 특히 공동주택관리비는 공동주택별로 관리품목 및 비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일괄적인 가격관리 및 안정화가 어려운 실정

4.2 사교육비

4.2.1 학원 및 보습교육은 지출비중, 가격상승률, 기여도가 모두 평균 이상

- 학원 및 보습교육은 주택임차료와 같이 3가지 유형분류 기준에서 모두 중점 모니터링 품목으로 분류될 정도로 지출비중, 가격상승률, 기여도가 모두 높은 품목
- 서울의 학원 및 보습교육 가중치는 66.0이고, 2011~2013년 중 물가상승률과 기여도, 가격변동성이 각각 3.9%, 0.26%P, 4.0으로 모두 평균 수준을 상회

4.2.2 중·고등학생의 보습학원비가 주요인

- 서울의 사교육비 지출비중의 48.3%는 중·고등학생 학원비이며, 이들 품목의 물가상승률과 가격변동성이 높은 편
- 중학생 및 고등학생 학원비 품목의 가중치는 각각 19.5, 12.4
- 2010~2013년 중 중학생 및 고등학생 학원비 품목의 물가상승률은 각각 4.5%, 7.6%
- 중학생 학원비와 고등학생 학원비의 변동성은 각각 2.43, 2.88
- 중고등학생 학원비가 서울의 물가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서울의 사교육비 지출규모와 사교육 참여율이 높기 때문²⁷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31만 2천원으로 16개 시·도 중 최고 수준

27

통계청 보도자료, 2013/2/6, '2012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보도자료' 참조

표 3-15 2012년 시·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 만원)

구 분	전체 평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전 체	23.6	21.9	27.6	22.4	26.5
서울	31.2	26.1	34.0	36.1	41.1
부산	23.0	21.3	28.1	20.8	25.6
대구	24.8	24.0	28.5	22.5	26.8
인천	20.3	18.3	22.7	20.9	24.7
광주	23.1	25.2	27.3	15.8	18.3
대전	24.3	23.0	26.5	24.4	28.0
울산	22.4	21.0	25.7	21.4	24.3
경기	24.9	21.9	29.9	24.8	28.5
강원	18.2	18.8	22.3	13.1	16.5
충북	17.7	18.6	21.4	12.6	16.4
충남	17.7	18.9	21.7	11.7	13.5
전북	17.9	16.8	22.3	15.4	19.1
전남	17.2	17.6	22.3	11.8	15.1
경북	19.5	20.3	24.2	14.0	17.4
경남	21.2	22.1	24.8	16.3	18.6
제주	20.3	22.7	23.9	12.7	16.0

자료 : 통계청, '2012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보도자료'

- 2012년 서울의 사교육 참여율도 16개 시·도 중 대구에 이어 2위 수준
- 사교육 참여율 : 대구 75.4%, 서울 73.5%, 대전 73.4% 등의 순
- 특히, 예체능, 취미 등 교양사교육²⁸보다 일반교과²⁹ 사교육 참여비중이 월등히 높은 실정
- 학령별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율³⁰ : 초등학교 64.6%, 중학교 65.9%, 고등학교 42.2%(전체 평균 58.6%)

28 예체능, 취미, 교양사교육은 음악, 미술, 체육, 취미·교양, 취업관련 사교육을 의미

29 일반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제2외국어, 한문, 컴퓨터, 논술을 의미

30 통계청, '2012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보도자료'

- 학령별 예체능 취미 등 교양사교육 참여율 : 초등학교 53.0%, 중학교 16.6%, 고등학교 10.7%(전체평균 30.9%)

표 3-16 2012년 시·도별 사교육 참여율

(단위 : %)

구 분	전체 평균	초·중·고등학교			일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 체	69.4	80.9	70.6	50.7	57.6
서울	73.5	82.0	72.7	61.8	68.2
부산	68.7	80.6	72.2	49.4	58.1
대구	75.4	90.8	76.5	53.2	61.3
인천	66.6	78.9	63.6	50.7	58.0
광주	70.8	85.7	74.3	44.7	50.0
대전	73.4	84.3	72.2	57.6	63.0
울산	70.9	83.1	69.3	55.3	61.0
경기	70.9	79.1	73.3	54.8	60.9
강원	64.5	79.9	65.3	39.4	46.6
충북	63.9	78.8	64.1	40.2	50.7
충남	61.2	77.6	60.8	34.8	38.8
전북	62.0	74.1	63.2	42.4	49.5
전남	62.1	79.2	62.3	36.8	44.0
경북	67.6	81.8	72.9	41.1	49.0
경남	68.6	82.2	70.3	45.4	51.0
제주	66.5	80.6	71.5	37.8	46.1

자료 : 통계청, '2012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보도자료'

4.3 식료품

4.3.1 빵 및 곡물, 과일, 채소 및 해조 품목 등이 물가불안 품목

- 빵 및 곡물, 과일, 채소 및 해조 품목은 소비지출비중, 물가상승률 및 기여도, 가격변동성 모두 평균 수준 이상

- 빵 및 곡물 품목 : 2011~2013년 중 물가상승률과 기여도, 물가 변동성은 각각 5.8%, 0.13%p, 7.1이고 가중치는 21.7
- 과일 품목 : 2011~2013년 중 물가상승률과 기여도, 가격변동성은 각각 6.6%, 0.11%p, 11.9³¹이고 가중치는 16.2
- 채소 및 해조 품목 : 201~2013년 중 물가상승률과 기여도, 가격변동성은 각각 3.8%, 0.07%p, 8.5이고 가중치는 18.2
- o 특히 빵 및 곡물, 과일, 채소 및 해조 등을 개별 품목별로 보면, 물가불안을 주도하는 품목이 매우 다양
- 빵 및 곡물은 주로 쌀, 콩, 라면, 두부, 빵 등이 물가불안을 주도
 - 특히 쌀은 소비 비중이 가장 높을 뿐 아니라 가격상승률 및 기여도와 변동성도 모두 평균 수준 이상
 - 2011~2013년 중 쌀의 물가상승률과 기여도, 변동성은 각각 8.8%, 0.05%p, 6.11
- 과일은 주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밤, 감, 귤, 수박, 바나나 등이 물가불안을 주도
 - 특히 2011~2013년 중 과일 중에서 소비지출비중이 가장 큰 사과는 물가 상승률이 9.1%(기여도 0.03%p), 가격변동성도 7.91로 높은 편
- 채소 및 해조류는 배추, 당근, 고구마, 양파, 미역 등이 물가불안 주도
 - 채소 및 해조류 중에서 소비지출비중이 가장 큰 배추의 물가는 2011~2013년 중 11.7% 상승(기여도 0.02%p)했으며, 특히 가격 변동성이 71.39로 매우 높음

4.3.2 식료품 가격불안의 주요인은 낮은 곡물 자급률과 유통구조 왜곡

- o 한국은 곡물 자급률이 낮아 곡물가격 상승 시 식료품 가격상승을 유발
- 2011년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23.1%로 주요국과 비교할 때, 일본과 더

31 과일 품목의 물가 변동성은 72개 소분류 품목 중 2위

불어 매우 낮은 편

-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국들은 주요 식품의 자급률이 대부분 100%를 상회
- 일본은 곡물 자급률이 낮지만, 1970년대부터 해외곡물 생산기지와 유통시설에 투자함으로써 가격안정을 실현³²
- 또한 일부 곡물 수입가격과 국내 곡물가공품가격 간에 비대칭성이 존재
해 국제 곡물가격 상승은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직결되지만, 국제 곡물가격 하락은 소비자물가 하락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³³

표 3-17 주요국의 주요 식품 자급률 비교

(단위 : %)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곡물	23.1	30.7	129.4	100.0	143.5	190.6	116.4	82.2	114.7
두류	7.6	3.5	128.8	36.5	199.4	92.5	39.4	38.9	31.1
우유류	53.4	76.4	103.0	87.9	96.7	123.7	130.1	71.8	99.2

주 : 1. 자급률 = (국내생산량/국내소비량) × 100

2. 곡류는 쌀, 보리, 밀, 옥수수, 호밀, 조, 수수, 메밀 등

3. 한국은 2011년, 나머지 국가는 2005년 기준

자료 : 황운재, 2012, 『2011 식품수급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특히 식료가공품의 원재료이면서 주요 식재료인 농산물은 복잡한 유통구조를 거치면서 유통마진이 매우 높아지고, 이는 최종가격의 상승압력으로 작용
- 주식인 쌀의 유통마진은 약 21%이지만, 사과, 귤 등 과일류의 유통마진은 42~52% 수준이고, 특히 저장성이 좋지 못한 채소 및 해조 품목 중 대파는 유통경로에 따라 약 55~62%가 유통마진인 것으로 분석

32 정진영, 이찬영 외, 2011, “한국 소비자물가 구조의 특징과 물가안정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33 정진영, 이찬영 외, 2011, “한국 소비자물가 구조의 특징과 물가안정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표 3-18 주요 농산물의 유통마진

(단위 : %)

	쌀		사과		귤		대파	
	A경로	B경로	A경로	B경로	A경로	B경로	A경로	B경로
농가수취율	79.1	78.5	57.3	55.3	48.0	48.5	37.6	44.7
유통마진	21.0	21.6	42.7	44.7	52.0	51.6	62.4	55.3

주 : 1. A경로는 대형유통업체를 경유하지 않는 전통적인 유통방식(생산자→도매상→소매상→소비자), B경로는 하나로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를 경유하는 방식(생산자→산지유통인→도매상→소매상→소비자 혹은 생산자→대형유통→대형마트→소비자)

2. 2010~2011년 지역 구분 없이 평균 수치를 활용

자료 : 농수산물유통정보, 2010~2011, 품목별 유통실태정보

IV 향후 정책방향

- 1 중점 물가모니터링 품목의 선정과 관리
- 2 주요 서민물가 안정화 방안

IV 향후 정책방향

1 중점 물가모니터링 품목의 선정과 관리

1.1 중점 물가모니터링 품목의 선정과 주기적인 관리 필요

- 유가, 공공요금 등과 같은 전국적인 물가불안 요인 외에도 서울 고유의 유통구조, 시장특성에 따라 물가불안을 초래하는 품목이 다수 존재
- 주거비, 사교육비 등은 전국에 비해 서울 고유의 물가특성이 나타나는 만큼 시 차원에서의 물가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특히 품목별로 소비지출비중, 물가상승률, 가격변동성 등을 활용하여 물가불안 품목을 선별하여 주기적으로 이들 품목의 물가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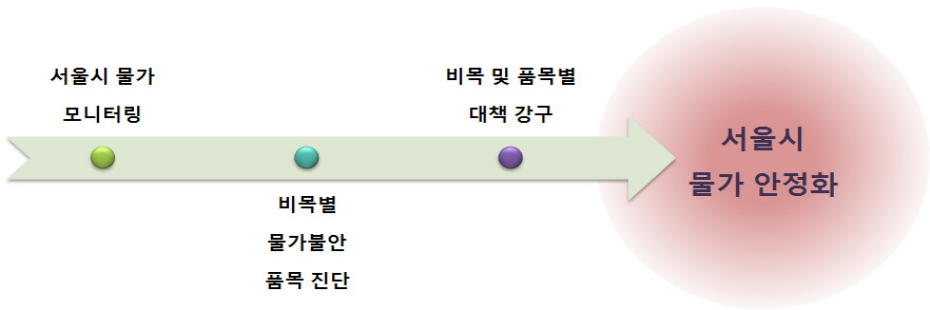


그림 4-1 서울시 중점 물가모니터링 품목의 선정과 관리

1.2 서울의 중점 물가모니터링 품목은 총 116개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

- 서울의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여도와 가격변동성을 기준으로 물가불안 품목을 유형화한 결과, 소분류 기준으로는 21개 품목이 중점 물가모니터링 품목으로 선별

- 21개 소분류 품목은 음식서비스, 가스, 개인운송장비 연료 및 윤활유, 빵 및 곡물, 과일, 기타 식료품, 채소 및 해조,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캐주얼의류, 철도 여객수송, 도로 여객수송, 단체여행, 상하수도료, 과자, 병과류 및 당류, 가구 내 고용 및 가사 서비스, 여자의류, 주택임차료, 학원 및 보습교육, 이미용 및 미용시설, 전기, 남자의류
- o 이를 481개 세분류 품목을 대상으로 물가상승에 대한 기여도와 가격변동성을 기준으로 유형화를 다시 하면, 총 116개 품목이 중점 물가모니터링 품목으로 선별
- 116개 품목은 쌀, 콩, 라면, 생선통조림, 우유, 사과, 배추, 아이스크림, 커피, 수입담배, 남자정장, 여자정장, 아동복, 구두, 전세, 월세, 설비수리비, 상하수도료, 공동주택관리비, 전기료, 지역난방비, 가사도우미료, 한방약, 외래진료비, 학원비, 도시가스, 휘발유 등

표 4-1 서울의 중점 물가모니터링 품목

소분류 품목	세분류 품목	소분류 품목	세분류 품목
빵 및 곡물	쌀, 콩, 라면, 두부, 빵	의료용품 및 치료기기	위생대
어류 및 수산	생선통조림	의료서비스	외래진료비
우유, 치즈 및 계란	우유, 발효유, 달걀	기타 의료서비스	치과진료비
과일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밤, 감, 귤, 수박, 바나나	병원 서비스	입원진료비
채소 및 해조	배추, 당근, 고구마, 양파, 미역	개인운송장비 연료 및 윤활유	휘발유, 경유, LPG(자동차용)
과자, 빙과류 및 당류	아이스크림, 비스킷, 스낵과자	개인운송장비 관련 기타 서비스	승용차임차료
기타 식료품	고춧가루, 간장, 고추장, 김치, 밑반찬, 즉석식품	철도 여객수송	전철료
커피, 차 및 코코아	커피	도로 여객수송	시내버스료
생수, 청량음료, 과일주스 및 채소주스	과일주스, 탄산음료	항공 및 수상여객운송	국제항공료
담배	담배(수입)	기타 여객운송	이삿짐운송료
남자의류	남자정장, 남자외투, 남자내의	오락 및 스포츠 서비스	골프장이용료
여자의류	여자정장, 여자외투, 원피스	문화서비스	사진촬영료
캐주얼의류	점퍼, 티셔츠, 청바지, 운동복,	서적	서적
아동복 · 유아복	아동복	단체여행	단체여행비(국내), 단체여행비(해외)
신발	남자구두, 여자구두	학원 및 보습교육	학원비(초등학교), 학원비(중학생), 학원비(고등학교), 음악학원비, 미술학원비, 운동학원비, 가정학습지
주택임차료	전세, 월세	성인학원 및 기타교육	취업학원비, 외국어학원비
주거시설 유지 · 보수	설비수리비	음식 서비스	김치찌개백반, 된장찌개백반, 비빔밥, 설렁탕, 해물짬, 해장국, 쇠고기(외식), 돼지갈비(외식), 삼겹살(외식), 오리고기(외식), 냉면, 칼국수, 생선회(외식), 자장면, 돈가스, 피자, 커피(외식), 소주(외식), 맥주(외식), 구내식당식사비
상하수도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개인용 전기용품 및 미용용품	로션, 선크림, 영양크림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공동주택관리비	기타 개인용품	장신구, 가방
전기	전기료		
가스	도시가스		
기타연료 및 에너지	지역난방비		
가정용 섬유제품	침구		
주방용품 및 가정용품	부엌용 용구		
가구 내 고용 및 가사 서비스	가사도우미료		
약약품	한방약		

주요 서민물가 안정화 방안

2.1 주거비 안정화

-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함께 상승하는 전국과 달리 서울은 매매가격 하락과 더불어 전세가격이 상승
- 주택매매가 하락으로 인한 전세수요 증가로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세입자와 집주인 간 분쟁도 급증
- 2013년 10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상담은 1,287건으로 개소 이후 최대³⁴
- 전세수요 충족을 위한 공급물량 확대 및 세입자 권익보호 등을 통한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 필요
- 서울의 가구특성³⁵을 고려해 소형주택 등 시장수요 반영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을 확대
- 또한 공공임대주택이 질적 향상을 통해 주택시장에서 수요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등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

〈참고〉 서울시의 부동산 및 전세 시장 안정대책

- 서울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1년 시프트 총 3,525호를 공급하고, 2014년까지 2만 5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공급규모도 60㎡ 이하, 60㎡ 이상, 85㎡ 이하 등으로 다양화
-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 지원을 비롯해 임대차 상담, 사법적 구제지원, 분쟁 조정 등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전문인력이 상담하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운영 중

출처 : 서울시 보도자료, 2011/2/6, '서울시, 올해 시프트 총 3,252호 공급한다';
<http://cb-counsel.seoul.go.kr/rentprice/rentpriceInfo.do>, 전월세 상담·지원센터

³⁴ 파이낸셜뉴스, 2013/11/24, '10월 서울시 전세보증금 상담 1287건 사상최대' 기사 참조

³⁵ 서울시 가구의 약 1/4인 23.9%는 1인가구로 구성(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 공동주택관리비의 비합리적인 인상을 억제하고 관리비 절감을 유도
- 공동주택의 관리비 비교, 회계자료 등의 서비스제공을 더욱 강화
- 공동주택 관리비와 관련 회계서류를 일정 기간 보관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한 방안
- 또한 철저한 시설관리 등의 홍보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비 절감을 유도
- 정기적인 급수관 청소 등으로 공동수도료 절감, 실외기의 먼지청소 등을 통한 공동전기료 절감 등

〈참고〉 서울시의 공동주택 통합 정보마당

- 2012년에 개발해 2013년부터 개방된 통합 정보마당으로 관리비 등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비리, 분쟁을 예방 및 해소하는 것이 그 목표
- 타 공동주택의 관리비 비교, 회계자료 공개 서비스, 입주민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의무공개정보 제공, 서울시 공동주택관리 표준회계 처리기준을 적용한 회계 프로그램 운영 등

출처 : <http://openapt.seoul.go.kr/>,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 정보마당

2.2 사교육비 안정화

- 사교육비 안정화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대안은 공교육의 질적 향상
- 학교 수업외의 보습학원비가 주요 물가 상승요인이므로 학교보충교육의 질적 강화가 요구
- 방과후학교 지원예산을 확대하여 방과후 프로그램을 내실화
- ‘수준별 방과후 학습’, ‘EBS 자율학습기기’ 등의 지원과 저소득층 초·중고생용 방과후 돌봄을 강화
- 특히 현재 강동구 등 3개구에서 자치구 사업으로 시행 중인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

〈참고〉 강동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 2010년 11월 30일 설립된 기관으로 교육기관, 학생 및 학부모가 모두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설립
- 자기주도형 학습활동 지원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 진로, 학습에 관한 상담지원, 저소득층 자녀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 진로프로그램, 진학프로그램,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 체험활동 프로그램, 입학설명회 등의 프로그램 운영

출처 : 강동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http://slc.gangdong.go.kr/open_content/

- 현재 돌봄, 보육, 교육 분야에서 활동 중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사교육시장을 다양화
- 서울시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인 사단법인 ‘서경뮤직스쿨’은 지역 내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학교 음악교육 프로그램 진행

〈참고〉 예비 사회적기업 ‘서경뮤직스쿨’의 방과후학교



- 2011년 설립된 서경대학교 주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선정
- 2012년 3월 성북구 문예체 멘토링 교육지원사업 ‘화음을 만들어요’와 연계 사업 실시
- 총 19개교 800여명 대상 방과후학교 음악교육 실시
- 2013년 3월 23개교(초·중등) 대상 방과후학교 음악교육 진행
- 2013년 4월 성북구 문예체 멘토링 교육지원사업 ‘살짝 활짝 단짝’과 음악분야 연계교육 시행

출처 : 서경뮤직스쿨 홈페이지, <http://www.musicsku.com/main/main.php>

농산물 가격관리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

- 일반 소비자들의 도·농 간 농수산물 직거래 유통경로 확대를 위해 농수산물 등 먹거리 관련 소비자협동조합 등의 홍보 및 지원을 통해 도·농 간 직거래 운동을 장려
- 현재 ‘한살림’, ‘쌈지 농부로부터’와 같은 생활협동조합 형태의 유통망을 통해 생산자·소비자 간 직거래가 일부 이뤄지고 있음

〈참고〉 농수산물 생활협동조합 ‘한살림’



- 지역생활협동조합을 통해 운영되는 농수산물 소비자협동조합
- 서울, 성남용인, 경기남부 등 총 21개 지역 회원생협이 운영 중
- 소비자와 생산자는 각각 지역회원 생협의 조합원 가입을 통해 구매 및 판매 활동
- 밥상살림, 농업살림이란 이름으로 소비자-생산자 간 협동조합 결성
- 밥상살림(소비자운동)
 - 생산자·소비자 직거래를 통한 먹을거리 나눔
 - 먹을거리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참여 활동
 - 농산물, 축·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판매
- 농업살림(생산자운동)
 - 친환경 유기 농산물 등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
 - 생태적인 지역농업 유지·육성을 위한 기금운영
 - 노동 공동체를 위한 교류와 협력활동

출처 : 한살림 홈페이지, <http://www.hansalim.or.kr/>

- 서울은 대형 도매시장을 이용한 유통망 관리 및 수급상황 실시간 예보, 가격공시 등을 통해 도매시세가 어느 정도 관리 가능

- 서울은 가락시장, 양곡시장 등 전국유통망을 가진 대형 도매시장이 입지해 각 산지의 수급물량에 맞춘 도소매가 형성되는 시장거점
- 서울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관리·운영하는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 등을 통해 농수산식품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 가격을 유지
- 지속적인 유통정보 제공을 통한 유통품목의 경매정보, 등급별 가격, 거래가격 등 시장 정보 제공

〈참고〉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의 주요 업무

- 가락시장, 강서시장, 양곡시장,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등 관리 및 운영
- 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기타 시장관계자에 대한 지원 및 지도 감독, 농수산물 및 농수산식품 유통구조 개선 등

출처 :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 홈페이지, <http://www.garak.co.kr>

-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산지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서울시 등이 미리 선구매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소비비중이 높은 필수 농수산물의 공급 및 수요 급증을 미리 예방하는 것도 대안
- 산지직거래 활성화, 온라인 거래 등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농산물 가격 안정을 모색
- 산지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고정 장소를 마련해 매월 혹은 계절별로 직거래 참여 희망 산지 및 참여 희망 업체를 선별한 후, 서울시민과 산지 간 농수산물 직거래 창구를 확대 구축
- 서울시는 서울광장, 평화문광장 등 서울시의 열린 공간을 통해 서울시 주도의 임시 직거래 장터를 운영
- 그 외에도 서울시의 서울광장 등에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지방신문협회 등 산지관련 생산자 및 판매자 단체 주도의 장터가 한시적으로 열림

〈참고〉 서울시 열린 광장을 통한 직거래장터 행사 및 성과

- 서울시 주최로 ‘나눔가득 농수산물 서울장터’, ‘서울시 농부의 시장’ 등 농수산물 산지 직거래 장터가 운영
- 서울시 주최 ‘나눔가득 농수산물 서울장터’
 - 행사기간 : 2013. 9. 4 ~ 9. 8(5일간)
 - 행사장소 : 서울광장, 청계광장, 태평로 일원
 - 장터규모 : 전국 11개 시·도, 133개 시·군, 2,000여 명품 농수특산물 참여
 - 성 과 : 방문객 152만명, 총매출 78억원 이상 달성, 국내 최대 직거래 장터
 - 연도별 실적추이



- 서울시 주최 ‘도심공원 농부의 시장’
 - 행사기간 : 2013. 4.20 ~ 2013.11.10(매주 토·일, 10:00~17:00)
 - 행사장소 : 광화문광장, 북서울 꿈의숲, 보라매공원
 - 행사규모 : 농수특산물 판매부스 등 50여 부스
 - 참가규모 : 29개 시·군, 130여 농가, 10개 도시농부(단체)
- 서울시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산지 생산자 및 판매자 주도 직거래 장터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제6회 한우의날 기념식 및 한우고기 직거래 행사’
 - 행사기간 : 2013. 10.31 ~ 2013.11. 1
- 한국지방신문협회의 ‘8도 농수산물 5일장’
 - 행사기간 : 2013. 9. 9 ~ 2013. 9. 12

출처 : 서울특별시 내부자료, 2013.10, 나눔가득 농수산물 서울장터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내부자료, 2013, 4, ‘서울시 농부의 시장’ 세부추진 계획
 서울특별시 열린광장 홈페이지, <http://plaza.seoul.go.kr/>

-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 유통망 및 이용점포 확대 등을 통해 농수산물 영세 소매업체들의 농수산물 유통망을 개선하고, 서울시 영세소매업의 판매가격 안정화를 도모
- 2013년 2월 양재동에 개장된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는 냉장·냉동창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점포 확대 및 시설 활용도를 제고할 경우 유통단계 축소 등 유통물류비 절감 기대

참고문헌

참고문헌

- 김범식·조달호, 2012,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전통시장 매출증대에 대한 영향분석』, 서울연구원
- 김범식·조달호, 2011, 『서울시 가계의 소득 및 소비특성 분석』, 서울연구원
- 김진옥, 2008, “소득계층별 물가상승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4(1)
- 서울연구원, 2012, 도시경쟁력 평가체계 비교분석, 서울연구원
- 서울연구원, 2010~2013, 서울지역 소비자 체감경기 전망, 서울연구원
- 손민중, 2011, “한국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물가”, SERI 경제 포커스 336호
- 이용성, 성명환 외 2인, 2011, 『수입원재료 가정 상승의 식품물가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진영·이찬영 외, 2011, “한국 소비자물가 구조의 특징과 물가안정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 통계청, ‘2012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보도자료’, 통계청
- 한국은행, 2010, 『알기쉬운 경제지표 해설』, 한국은행
- 한국은행, 2013, 『한국은행 물가보고서』, 한국은행
- 황윤재, 2012, 『2011 식품수급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Ahmed, R. and A. Bernard, 1999, “Rice Price Fluctuation and an Approach to Price Stabilization in Bangladesh.”, **Research Report 72**,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 Boskin, M. J., E. R. Dulberger, Z. Griliches, R. J. Gordon and D. W. Jorgenson, 1996, “Toward a More Accurate Measure of the Cost of Living”, **Final Report to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from the Advisory Commission to Study the Consumer Price Index**, December 1996.
- Jenkins, S.P. and Cowell, F.A., 1994, “Parametric Equivalence Scales and Scale Relativities”, **Economic Journal**, Vol. 104, pp891-900.
- UBS, 2012, **Prices and Earnings**, UBS
- UBS, 2011, **Prices and Earnings**, UBS
- UBS, 2009, **Prices and Earnings**, UBS
- U.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1994, “Is the Growth of the CPI a Biased Measure of Changes in the Cost of Living?”, **CBO Papers**, October 1994.

<http://stat.seoul.go.kr/>

<http://www.kosis.kr/>

<http://www.kostat.go.kr/>

<http://www.seoul.go.kr/>

<http://www.musicsku.com/main/main.php>

<http://www.garak.co.kr>

<http://plaza.seoul.go.kr>

<http://www.hansalim.or.kr/>

http://slc.gangdong.go.kr/open_content/

<http://openapt.seoul.go.kr/>

<http://cb-counsel.seoul.go.kr/>

<http://www.kprc.or.kr>

<http://www.kamis.or.kr>

서울통계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서울시청

서경뮤직스쿨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서울특별시 열린광장

한살림

강동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서울시공동주택통합 정보마당

전월세상담·지원센터

한국물가협회

농수산물유통정보

부 록

부록 표 1 2000~2013년 중 서울 및 전국의 소비자물가지수와 상승률 추이

(단위 : 2010=100, %)

	서울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2000	72.6		73.1	
2001	75.8	4.3	76.1	4.1
2002	78.3	3.3	78.2	2.8
2003	81.2	3.8	80.9	3.5
2004	84.4	3.9	83.8	3.6
2005	86.6	2.6	86.1	2.8
2006	88.4	2.1	88.1	2.2
2007	90.7	2.6	90.3	2.5
2008	94.5	4.2	94.5	4.7
2009	97.3	2.9	97.1	2.8
2010	100.0	2.8	100.0	3.0
2011	103.8	3.8	104.0	4.0
2012	106.4	2.5	106.3	2.2
2013.1~7	107.6	1.5	107.4	1.3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KOSIS, 해당 연도

부록 표 2 2000~2013년 중 서울 및 전국의 근원물가지수와 상승률 추이

(단위 : 2010=100, %)

	서울		전국	
	근원물가지수	상승률	근원물가지수	상승률
2000	74.8		75.4	
2001	77.8	4.0	78.1	3.6
2002	80.6	3.6	80.5	3.0
2003	83.3	3.4	82.9	3.0
2004	85.9	3.2	85.3	2.9
2005	87.8	2.1	87.3	2.4
2006	89.2	1.7	88.9	1.8
2007	91.3	2.4	91.0	2.3
2008	95.0	4.0	94.9	4.3
2009	98.1	3.3	98.2	3.5
2010	100.0	1.9	100.0	1.8
2011	103.2	3.2	103.2	3.2
2012	105.2	2.0	104.9	1.7
2013.1~7	105.5	1.5	106.1	1.4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KOSIS, 해당 연도

부록 표 3 2000~2013년 중 서울 및 전국의 생활물가지수와 상승률 추이

(단위 : 2010=100, %)

	서울		전국	
	생활물가지수	상승률	생활물가지수	상승률
2000	69.0		69.2	
2001	72.6	5.1	72.7	5.1
2002	74.4	2.5	74.5	2.5
2003	77.5	4.2	77.5	4.0
2004	81.7	5.3	81.3	4.9
2005	85.1	4.2	84.6	4.0
2006	87.7	3.0	87.2	3.1
2007	90.6	3.3	90.0	3.2
2008	94.7	4.5	94.8	5.3
2009	97.0	2.5	96.7	2.1
2010	100.0	3.0	100.0	3.4
2011	103.9	3.9	104.4	4.4
2012	105.9	1.9	106.1	1.6
2013.1~7	106.5	0.9	106.6	0.6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KOSIS, 해당 연도

부록 표 4 2000~2013년 중 서울 및 전국의 생활물가(전월세포함)지수와 상승률 추이

(단위 : 2010=100, %)

	서울		전국	
	생활물가지수	상승률	생활물가지수	상승률
2000	70.2		70.9	
2001	74.0	5.3	74.3	4.9
2002	76.9	3.9	76.7	3.1
2003	80.2	4.3	79.7	3.9
2004	83.7	4.4	83.1	4.3
2005	86.2	3.0	85.7	3.2
2006	88.4	2.4	88.0	2.7
2007	91.1	3.1	90.6	3.0
2008	94.9	4.2	95.1	4.9
2009	97.2	2.4	96.9	2.0
2010	100.0	2.9	100.0	3.2
2011	104.0	4.0	104.3	4.3
2012	106.5	2.4	106.5	2.1
2013.1~7	107.5	1.3	107.2	0.9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KOSIS, 해당 연도

부록 표 5 2000~2013년 중 서울 및 전국의 신선식품물가지수와 상승률 추이

(단위 : 2010=100, %)

	서울		전국	
	신선식품물가지수	상승률	신선식품물가지수	상승률
2000	55.7		56.0	
2001	59.4	6.6	60.0	7.1
2002	64.0	7.9	65.6	9.3
2003	69.2	8.1	70.1	7.0
2004	76.9	11.2	75.8	8.0
2005	79.9	3.8	77.1	1.8
2006	80.4	0.6	77.9	1.0
2007	84.4	5.0	81.4	4.5
2008	78.6	-6.9	76.6	-5.8
2009	84.2	7.2	82.4	7.6
2010	100.0	18.8	100.0	21.3
2011	105.8	5.8	106.3	6.3
2012	112.2	6.0	112.5	5.8
2013.1~7	111.4	-0.4	113.9	2.3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KOSIS, 해당 연도

부록 표 6 한국물가협회 주간 생활품목의 대상 품목과 규격 및 단위

품목	규격	단위	품목	규격	단위
보리쌀	상품	1kg	간장	진간장 930ml	병
쌀	상품 20kg	포	고추장	순창 500g	통
참쌀	상품	1kg	두부	300g	모
달걀	특란 개당 60g	10개	라면	120g	개
닭고기	손질 육계 1kg	마리	마요네즈	500g	병
돼지고기	삼겹살	500g	밀가루	중력분 1kg	포
쇠고기	한우 등심 1등급 이상	500g	분유	800g	통
감자	상품	1kg	생선통조림	참치캔 150g	캔
고구마	상품	1kg	설탕	정백당 1kg	봉
고춧가루	상품	1kg	소금	제재염 맛소금 1kg	봉
당근	상품	1kg	식용유	1.5L	병
마늘	상품 깎 마늘	1kg	참기름	320ml	병
무	상품 1.5~2.0kg	개	커피	175g	병
배추	상품 2.5kg	통	케찹	500g	병
버섯	상품 양송이, 신선한 것	100g	치즈	200g	봉
상추	상품 100g	100g	햄	스팸 340g	캔
시금치	상품 400g	단	혼합조미료	쇠고기 다시다 500g	봉
양파	상품	kg	맥주	500ml	병
오이	상품 취청 150g	개	생수	500ml	병
콩나물	상품 신선한 것	360g	소주	360ml	병
토마토	상품 신선한 것	kg	오렌지쥬스	950ml	병
파	상품(연백부길이 20~30cm)	kg	우유	1000ml	병
풋고추	상품	kg	콜라	1.5L Pet	병
호박	상품 애호박 500g	개	가루비누	6kg	봉
배	개당 600g	개	부엌용 세제	1.4kg	봉
사과	개당 300g	개	삼푸	780ml	통
갈치	상품 70cm	마리	치약	160g	개
고등어	상품 30cm	마리	화장지	24롤	묶음
김	상품 개량김, 100장	속	휘발유	주유소판매	ℓ
멸치	복음용, 황백색(가이리)	kg	경유	주유소판매	ℓ
생태	40cm	마리	도시가스	주택(취사용) (VAT별도)	mj
미역	봉지미역 150g	봉	등유	주유소판매	ℓ
오징어	25cm	마리	금	99%	3.75g
조개	바지락 껍질 안 깎 것	kg	은	99%	3.75g
조기	부세 20cm	마리			

부록 표 7 2008년 전국 전체가구(2인 이상)의 품목별 소비지출비중

(단위 : %)

	01.식료품 · 비주류음료	02.주류· 담배	03.의류 · 신발	04.주거 · 수도 · 광열	05.가정용품 · 가사서비스	06.보건
평균소득	14.1	1.3	6.2	9.7	3.5	6.2
1분위	22.8	2.1	4.5	15.6	3.5	11.9
2분위	18.2	1.8	4.8	14.4	3.0	8.0
3분위	16.9	1.8	5.1	12.9	3.2	6.6
4분위	15.6	1.6	5.5	11.2	3.1	6.2
5분위	15.1	1.5	5.6	10.2	3.1	5.9
6분위	13.9	1.6	6.0	9.5	3.2	5.3
7분위	13.9	1.4	6.2	9.0	3.4	5.4
8분위	12.9	1.1	6.5	8.0	3.3	6.0
9분위	12.0	1.2	7.1	7.9	3.5	5.8
10분위	10.9	0.7	7.4	7.5	4.4	5.5

자료 : 가계동향조사, 2008, 통계청

부록 표 계속 2008년 전국 전체가구(2인 이상)의 품목별 소비지출비중

(단위 : %)

	07.교통	08.통신	09.오락 · 문화	10.교육	11.음식 · 숙박	12.기타상품 · 서비스
평균소득	12.4	6.3	5.2	12.8	13.6	8.7
1분위	8.4	6.9	4.0	6.2	8.7	5.4
2분위	10.0	7.7	4.1	9.7	11.8	6.5
3분위	10.8	7.7	4.5	10.6	12.7	7.2
4분위	11.6	7.5	4.6	11.8	13.5	7.9
5분위	12.3	7.0	4.6	12.8	13.6	8.2
6분위	12.1	7.1	4.7	13.5	14.4	8.8
7분위	12.2	6.4	5.1	14.2	14.3	8.7
8분위	13.6	6.0	5.7	13.7	14.5	8.7
9분위	13.5	5.7	5.6	14.1	14.1	9.5
10분위	13.9	4.5	6.1	14.2	13.8	11.0

자료 : 가계동향조사, 2008, 통계청

부록 표 8 2010년 전국 전체가구(2인 이상)의 품목별 소비지출비중

(단위 : %)

	01.식료품 · 비주류음료	02.주류· 담배	03.의류 · 신발	04.주거 · 수도 · 광열	05.가정용품 · 가사서비스	06.보건
평균소득	13.9	1.2	6.4	10.1	3.8	6.7
1분위	22.6	1.8	4.2	17.6	3.5	11.5
2분위	18.9	1.6	4.9	14.9	3.1	8.7
3분위	16.3	1.6	5.7	12.5	3.0	7.2
4분위	15.3	1.5	6.1	11.1	2.9	6.6
5분위	14.5	1.4	5.9	10.4	3.0	6.5
6분위	13.6	1.2	6.4	10.3	3.3	5.9
7분위	13.0	1.3	6.4	9.2	3.4	6.3
8분위	12.7	1.1	6.8	8.1	3.9	6.3
9분위	11.9	1.0	7.1	8.2	4.5	5.9
10분위	11.1	0.7	7.2	8.2	5.0	6.2

자료 : 가계동향조사, 2010, 통계청

부록 표 계속 2010년 전국 전체가구(2인 이상)의 품목별 소비지출비중

(단위 : %)

	07.교통	08.통신	09.오락 · 문화	10.교육	11.음식 · 숙박	12.기타상품 · 서비스
평균소득	11.9	6.1	5.5	13.0	12.7	8.9
1분위	7.3	6.7	4.1	6.1	8.4	6.3
2분위	9.3	7.2	4.4	8.5	11.2	7.4
3분위	9.9	7.5	4.7	9.8	13.0	8.8
4분위	11.7	7.1	5.1	10.8	13.0	8.7
5분위	11.7	6.9	5.2	12.6	13.3	8.7
6분위	11.8	6.5	5.4	12.8	13.6	9.3
7분위	12.2	6.1	5.3	14.2	13.6	9.2
8분위	12.3	5.8	5.8	14.8	13.2	9.3
9분위	13.0	5.3	5.8	15.2	13.0	8.9
10분위	13.3	4.5	6.8	15.1	12.2	9.7

자료 : 가계동향조사, 2010, 통계청

부록 표 9 2005년 서울의 소득 분위별·계층별 소득수준

(단위 : 원)

	균등화소득	소비지출	식료품	주류 및 담배	피복 및 신발
1분위	476,467.9	1,161,454.6	212,305.3	19,850.8	42,390.2
2분위	830,918.5	1,243,815.2	206,723.0	21,315.2	51,806.8
3분위	1,068,167.5	1,718,618.6	237,649.4	21,486.7	63,250.8
4분위	1,256,236.6	1,815,527.4	270,235.6	27,778.4	82,419.2
5분위	1,456,022.5	1,999,638.6	269,961.8	27,644.2	96,747.1
6분위	1,652,049.4	2,167,954.8	298,831.0	24,286.1	118,401.9
7분위	1,894,232.0	2,388,007.5	304,751.0	30,920.4	138,849.6
8분위	2,189,784.6	2,572,923.7	328,900.4	25,724.0	156,887.5
9분위	2,645,393.8	3,031,534.3	341,293.7	25,542.2	185,618.6
10분위	3,989,713.4	3,957,678.9	398,642.2	24,405.5	269,315.6
소득하위	796,801.3	1,377,975.3	218,996.0	20,900.4	52,641.0
소득중위	1,689,665.0	2,188,810.4	294,536.0	27,270.6	118,661.1
소득상위	3,317,553.6	3,494,606.6	369,967.9	24,973.9	227,467.1

자료 : 가계동향조사, 2005, 통계청

부록 표 계속 2005년 서울의 소득 분위별·계층별 소득수준

(단위 : 원)

	주거광열수도	가구집기 가사용품	보건의료	교통	통신
1분위	161,807.6	33,067.3	69,137.6	89,223.2	96,244.5
2분위	152,267.1	38,069.0	71,952.4	98,523.6	106,379.7
3분위	201,153.2	47,949.2	85,364.1	168,596.0	129,131.9
4분위	187,654.8	55,777.7	78,149.2	146,125.5	134,420.6
5분위	185,703.3	59,853.6	101,787.4	188,259.6	147,423.1
6분위	176,198.8	74,211.5	92,538.8	230,676.1	156,161.7
7분위	202,908.7	88,973.5	120,345.2	249,541.6	157,900.2
8분위	188,037.8	116,878.9	121,697.1	245,174.9	158,239.5
9분위	205,787.2	142,804.6	134,370.6	302,017.6	168,088.6
10분위	294,896.1	311,154.4	165,376.5	442,150.2	177,046.3
소득하위	171,898.6	39,799.2	75,584.3	119,244.9	110,810.4
소득중위	188,100.7	79,139.0	102,903.6	211,955.5	150,829.0
소득상위	250,341.6	226,979.5	149,873.6	372,083.9	172,567.5

자료 : 가계동향조사, 2005, 통계청

부록 표 계속 2005년 서울의 소득 분위별·계층별 소득수준

(단위 : 원)

	교양오락	교육	외식 및 숙박	기타소비지출
1분위	46,872.8	123,148.2	116,389.7	151,017.4
2분위	40,673.0	143,681.1	149,850.6	162,573.8
3분위	68,266.6	223,487.5	207,990.6	264,292.8
4분위	83,943.2	261,267.6	237,249.4	250,506.1
5분위	86,105.2	233,522.3	275,604.5	327,026.6
6분위	94,301.3	290,535.8	284,880.6	326,931.1
7분위	123,021.5	303,475.3	299,788.5	367,531.9
8분위	137,644.5	345,707.4	331,153.7	416,877.9
9분위	192,291.6	413,859.0	368,314.5	551,546.1
10분위	295,815.3	422,730.6	445,428.1	710,718.0
소득하위	52,017.0	164,071.3	158,731.2	193,281.1
소득중위	105,003.2	286,901.7	285,735.3	337,774.7
소득상위	244,053.5	418,294.8	406,871.3	631,132.1

자료 : 가계동향조사, 2005, 통계청

부록 표 10 2005년 서울의 소득분위별·소비품목별 소비지출비중

(단위 : %)

	식료품	주류 및 담배	피복 및 신발	주거광열수 도	가구집기 가사용품	보건의료
1분위	18.3	1.7	3.6	13.9	2.8	6.0
2분위	16.6	1.7	4.2	12.2	3.1	5.8
3분위	13.8	1.3	3.7	11.7	2.8	5.0
4분위	14.9	1.5	4.5	10.3	3.1	4.3
5분위	13.5	1.4	4.8	9.3	3.0	5.1
6분위	13.8	1.1	5.5	8.1	3.4	4.3
7분위	12.8	1.3	5.8	8.5	3.7	5.0
8분위	12.8	1.0	6.1	7.3	4.5	4.7
9분위	11.3	0.8	6.1	6.8	4.7	4.4
10분위	10.1	0.6	6.8	7.5	7.9	4.2
소득하위	15.9	1.5	3.8	12.5	2.9	5.5
소득중위	13.5	1.2	5.4	8.6	3.6	4.7
소득상위	10.6	0.7	6.5	7.2	6.5	4.3

자료 : 가계동향조사, 2005, 통계청

부록 표 계속 2005년 서울의 소득분위별·소비품목별 소비지출비중

(단위 : %)

	교통	통신	교양오락	교육	외식 및 숙박	기타 소비지출
1분위	7.7	8.3	4.0	10.6	10.0	13.0
2분위	7.9	8.6	3.3	11.6	12.0	13.1
3분위	9.8	7.5	4.0	13.0	12.1	15.4
4분위	8.0	7.4	4.6	14.4	13.1	13.8
5분위	9.4	7.4	4.3	11.7	13.8	16.4
6분위	10.6	7.2	4.3	13.4	13.1	15.1
7분위	10.4	6.6	5.2	12.7	12.6	15.4
8분위	9.5	6.2	5.3	13.4	12.9	16.2
9분위	10.0	5.5	6.3	13.7	12.1	18.2
10분위	11.2	4.5	7.5	10.7	11.3	18.0
소득하위	8.7	8.0	3.8	11.9	11.5	14.0
소득중위	9.7	6.9	4.8	13.1	13.1	15.4
소득상위	10.6	4.9	7.0	12.0	11.6	18.1

자료 : 가계동향조사, 2005, 통계청

부록 표 11 기여도와 가격변동성 기준 481개 개별품목의 유형화

1사분면					
비목	기여도	변동성	비목	기여도	변동성
전세	0.45	4.8	설비수리비	0.02	6.2
도시가스	0.20	9.2	음악학원비	0.02	4.3
휘발유	0.11	7.4	상수도료	0.02	4.4
월세	0.11	3.1	티셔츠	0.02	4.0
학원비(고등학생)	0.09	7.4	해장국	0.01	6.2
학원비(중학생)	0.09	4.7	서적	0.01	4.8
공동주택관리비	0.06	5.6	운동학원비	0.01	3.8
전철료	0.05	7.3	두부	0.01	11.9
시내버스료	0.05	6.3	미술학원비	0.01	6.3
쌀	0.05	11.2	김치찌개백반	0.01	3.9
가사도우미료	0.04	8.1	여자정장	0.01	3.6
경유	0.04	8.9	스낵과자	0.01	7.7
삼겹살(외식)	0.04	9.3	해물찜	0.01	6.0
단체여행비(해외)	0.04	6.0	아이스크림	0.01	7.5
고춧가루	0.04	53.6	지역난방비	0.01	7.8
미용료	0.03	5.4	골프장이용료	0.01	7.4
돼지갈비(외식)	0.03	7.2	비스킷	0.01	8.2
맥주(외식)	0.03	3.6	포도	0.01	9.8
사과	0.03	12.1	당근	0.01	37.3
하수도료	0.03	24.4	자장면	0.01	4.5
양파	0.03	37.9	밀반찬	0.01	11.2
빵	0.03	7.0	돈가스	0.01	4.4
된장찌개백반	0.02	5.4	청바지	0.01	6.5
아동복	0.02	6.5	침구	0.01	4.6
배	0.02	26.9	국제항공료	0.01	7.1
남자정장	0.02	6.1	칼국수	0.01	4.5
운동복	0.02	9.6	생선통조림	0.01	8.6
우유	0.02	5.2	오리고기(외식)	0.01	4.6
굴	0.02	31.8	냉면	0.01	5.2
가방	0.02	6.9	과일주스	0.01	6.6
한방약	0.02	4.6	즉석식품	0.01	12.3
수박	0.02	18.8	위생대	0.01	7.2
배추	0.02	26.0	목욕료	0.01	5.8
생선회(외식)	0.02	4.5	선크림	0.01	4.7
LPG(자동차용)	0.02	7.2	탄산음료	0.01	8.3

자료 : 소비자물가조사, 2010, 통계청

부록 표 계속 기여도와 가격변동성 기준 481개 개별품목의 유형화

1사분면					
비목	기여도	변동성	비목	기여도	변동성
비빔밥	0.01	3.9	찜질방이용료	0.01	4.5
남자외투	0.01	4.5	감	0.01	22.2
취업학원비	0.01	3.6	사진촬영료	0.01	7.2
남자내의	0.01	7.7	승용차임차료	0.01	8.3
장신구	0.01	6.8	콩	0.01	19.4
담배(수입)	0.01	3.6	원피스	0.01	5.6
김치	0.01	9.2	이삿짐운송료	0.01	10.7
밤	0.01	36.3	고추장	0.01	19.4
영양크림	0.01	4.2	고구마	0.01	21.8
여자구두	0.01	4.9	부엌용 용구	0.01	28.3
커피	0.01	5.1	미역	0.01	23.2
단체여행비(국내)	0.01	4.9	발효유	0.01	3.5
커피(외식)	0.01	3.1	외국어학원비	0.01	3.2
남자구두	0.01	5.9	바나나	0.01	14.4
달걀	0.01	9.4	로션	0.01	3.4
복숭아	0.01	19.9	라면	0.01	4.1
설령탕	0.01	4.6	간장	0.01	15.3
2사분면					
비목	기여도	변동성	비목	기여도	변동성
오이	0.01	20.3	자동차학원비	0.00	5.3
남자하의	0.01	4.5	조개	0.00	10.7
훈식곡	0.01	14.7	김	0.00	7.2
운동강습료	0.01	3.6	탕수육	0.00	3.8
맛김	0.01	10.5	과실통조림	0.00	17.4
버섯	0.01	6.5	케이크	0.00	3.6
유아복	0.00	4.9	화장지	0.00	4.3
스테이크	0.00	3.7	돼지고기	0.00	15.8
숙박료(호텔)	0.00	9.2	한방진료비	0.00	4.2
종이거저귀	0.00	3.7	싱크대	0.00	4.2
갈치	0.00	11.3	장롱	0.00	5.1
마늘	0.00	16.3	육류통조림	0.00	4.2
참고서(초등학교)	0.00	5.6	소금	0.00	28.7
어묵	0.00	5.2	국수	0.00	5.5
콩나물	0.00	9.1	혼합비타민제	0.00	5.6
삼계탕	0.00	3.2	젓갈	0.00	6.5

자료 : 소비자물가조사, 2010, 통계청

부록 표 계속 기여도와 가격변동성 기준 481개 개별품목의 유형화

2사분면					
비목	기여도	변동성	비목	기여도	변동성
학교기숙사비	0.00	5.1	살충제	0.00	10.1
장갑	0.00	22.3	분유	0.00	4.2
침대	0.00	3.3	짬뽕	0.00	4.3
사탕	0.00	11.2	혼합음료	0.00	3.9
인삼	0.00	13.7	교과서(고등학교)	0.00	29.0
두유	0.00	4.9	우황청심원	0.00	4.8
운동화	0.00	3.9	산후조리원이용료	0.00	4.4
설탕	0.00	12.5	물엿	0.00	13.7
홍삼	0.00	3.6	국내항공료	0.00	7.7
불고기	0.00	3.2	섬유유연제	0.00	9.7
핸드백	0.00	5.0	남자학생복	0.00	5.8
애완동물용사료	0.00	5.8	혼합조미료	0.00	6.1
오징어채	0.00	22.7	피망	0.00	20.4
식기	0.00	5.8	필기구	0.00	7.3
보일러수리비	0.00	10.3	등유	0.00	12.3
마른 오징어	0.00	19.0	식용유	0.00	4.1
부침가루	0.00	9.4	냄비	0.00	3.6
여자학생복	0.00	7.1	콘도이용료	0.00	13.1
보리쌀	0.00	14.8	디지털도어록	0.00	6.0
된장	0.00	9.5	당면	0.00	10.1
풋고추	0.00	19.8	의자	0.00	8.7
키친타월	0.00	6.5	화장비누	0.00	11.0
스웨터	0.00	3.7	여자상의	0.00	3.3
라면(외식)	0.00	4.1	아동화	0.00	3.5
경승용차	0.00	3.6	식빵	0.00	5.3
초코파이	0.00	5.0	애완동물병원비	0.00	5.7
냉동식품	0.00	5.3	커피크림	0.00	5.6
양말	0.00	3.4	전구	0.00	9.8
밀폐용기	0.00	7.3	카레	0.00	10.6
자동차타이어	0.00	6.1	자전거	0.00	6.2
생수	0.00	6.5	등산용품	0.00	8.8
캠핑용품	0.00	9.7	스프	0.00	9.4
페인트	0.00	6.8	도라지	0.00	8.0
죽(외식)	0.00	5.2	소시지	0.00	5.5
브로콜리	0.00	19.5	양배추	0.00	31.8

자료 : 소비자물가조사, 2010, 통계청

부록 표 계속 기여도와 가격변동성 기준 481개 개별품목의 유형화

2사분면					
비목	기여도	변동성	비목	기여도	변동성
상추	0.00	30.3	단무지	0.00	3.4
꿀	0.00	5.5	색메모지	0.00	9.7
드레싱	0.00	8.5	커튼	0.00	3.4
차	0.00	5.3	선풍기	0.00	10.8
공책	0.00	7.7	정장제	0.00	4.2
소염진통제	0.00	4.2	잡지	0.00	6.7
땅콩	0.00	19.1	스케치북	0.00	4.5
전복	0.00	8.3	잼	0.00	6.8
가정용 비닐용품	0.00	7.0	케첩	0.00	8.1
습기제거제	0.00	6.3	LPG(취사용)	0.00	8.0
회화용구	0.00	6.7	칫솔	0.00	3.3
부엌용 세제	0.00	5.4	가지	0.00	18.2
우산	0.00	6.0	계	0.00	3.3
전산학원비	0.00	3.9	현악기	0.00	6.0
도시가스연결비	0.00	4.2	고사리	0.00	4.8
립스틱	0.00	3.5	어린이승용물	0.00	7.0
참깨	0.00	4.1	난방기기	0.00	6.5
거실장	0.00	4.0	등산복	0.00	3.1
면도기	0.00	3.7	소화제	0.00	5.4
부탄가스	0.00	12.2	밀가루	0.00	5.2
소주	0.00	3.0	청소용 세제	0.00	5.8
책상	0.00	3.7	파운데이션	0.00	4.7
사진인화료	0.00	3.6	볼링장이용료	0.00	3.9
생화	0.00	17.8	운동경기관람료	0.00	4.0
식탁	0.00	4.6	이러닝이용료	0.00	4.4
바디워시	0.00	4.3	여객선료	0.00	5.0
세차료	0.00	4.9	세면기	0.00	3.4
양념장	0.00	8.2	신발세탁료	0.00	3.3
씨리얼식품	0.00	3.8	우편료	0.00	3.7
깻잎	0.00	14.6	오징어	0.00	12.0
생강	0.00	13.2	양상추	0.00	22.0
엔진오일교체료	0.00	3.7	파	0.00	25.1
볶음밥	0.00	3.5	햄버거	0.00	3.4
애완동물미용료	0.00	4.1	공치	0.00	5.8
구강세정제	0.00	3.9	키위	0.00	6.7

자료 : 소비자물가조사, 2010, 통계청

부록 표 계속 기여도와 가격변동성 기준 481개 개별품목의 유형화

2사분면					
비목	기여도	변동성	비목	기여도	변동성
굴	0.00	9.0	프린터	0.00	9.3
쇠고기(수입)	0.00	4.4	딸기	0.00	14.4
자동차용품	0.00	10.4	게임기	0.00	8.9
호박	0.00	17.8	휴대용 멀티미디어기기	0.00	7.6
비데	0.00	3.2	김치냉장고	0.00	5.7
세탁세제	0.00	5.8	노트북컴퓨터	0.00	12.9
미나리	0.00	23.4	오렌지	0.00	8.3
스마트폰	0.00	5.2	미디어재생기기	0.00	7.6
혈당계	0.00	5.7	열무	-0.01	38.8
청소기	0.00	3.1	명태	-0.01	12.0
기록매체	0.00	14.2	참외	-0.01	22.6
고등어	0.00	11.4	모니터	-0.01	10.3
토마토	0.00	15.5	납입금(국공립대학교)	-0.01	8.7
치약	0.00	6.0	컴퓨터본체	-0.01	7.3
치즈	0.00	3.2	무	-0.01	27.7
대입전형료	0.00	4.0	사진기	-0.01	11.9
금융수수료	0.00	12.6	TV	-0.02	11.2
부추	0.00	24.8	납입금(고등학교)	-0.03	5.8
감자	0.00	20.1	조제약	-0.03	7.0
참쌀	0.00	7.1	쇠고기(국산)	-0.04	7.2
닭고기	0.00	5.5	이동전화료	-0.06	3.6
복어채	0.00	4.3	납입금(유치원)	-0.07	8.3
유모차	0.00	6.0	학교급식비	-0.11	23.0
시금치	0.00	34.3	보육시설이용료	-0.15	23.2

3사분면					
비목	기여도	변동성	비목	기여도	변동성
김밥	0.00	2.0	간병도우미료	0.00	1.9
여자하의	0.00	2.4	햄	0.00	2.8
갈비탕	0.00	2.8	남자상의	0.00	2.2
여자내의	0.00	2.7	떡	0.00	2.4
맥주	0.00	2.0	자동차수리비	0.00	1.8
치킨	0.00	1.3	건강기능식품	0.00	0.9
소형승용차	0.00	1.5	문화강습료	0.00	2.4
다목적승용차	0.00	0.9	시외버스료	0.00	2.5
건강진단비	0.00	1.8	떡볶이	0.00	2.3

자료 : 소비자물가조사, 2010, 통계청

부록 표 계속 기여도와 가격변동성 기준 481개 개별품목의 유형화

3사분면					
비목	기여도	변동성	비목	기여도	변동성
화장수	0.00	1.5	막걸리(외식)	0.00	0.5
참고서(중학교)	0.00	2.8	숙박료(여관)	0.00	1.7
납입금(사립대학원)	0.00	1.3	감기약	0.00	1.9
행정수수료	0.00	1.8	위스키	0.00	2.7
유아용 학습교재	0.00	2.4	온라인콘텐츠이용료	0.00	1.3
가전제품렌탈비	0.00	1.5	진통제	0.00	2.0
마른 멸치	0.00	2.7	요양시설이용료	0.00	1.9
스파게티	0.00	2.3	영화관람료	0.00	0.3
뷰티미용료	0.00	1.6	참기름	0.00	1.9
열차료	0.00	1.4	피아노	0.00	2.5
노래방이용료	0.00	2.9	의복수선료	0.00	2.2
중형승용차	0.00	0.7	위장약	0.00	2.3
냉장고	0.00	1.4	실내화	0.00	2.3
세탁료	0.00	1.2	안경	0.00	0.3
바닥재	0.00	2.1	참고서(고등학교)	0.00	0.9
이용료	0.00	1.6	당구장이용료	0.00	1.1
생선초밥	0.00	1.0	대형승용차	0.00	1.0
헬스클럽이용료	0.00	2.3	벽지	0.00	1.0
도로통행료	0.00	1.6	술	0.00	2.1
보일러	0.00	2.3	전자레인지	0.00	2.5
조기	0.00	2.5	사전	0.00	1.6
시험응시료	0.00	2.6	맛살	0.00	1.9
세탁기	0.00	2.3	삼각김밥	0.00	1.3
낙시용품	0.00	2.3	차음료	0.00	1.4
독서실비	0.00	1.9	공연예술관람료	0.00	2.9
컴퓨터소모품	0.00	1.9	수저	0.00	1.7
장례식장이용료	0.00	1.0	국산차(외식)	0.00	0.8
헤어드라이어	0.00	2.5	공기청정기	0.00	2.6
고속버스료	0.00	2.4	건전지	0.00	2.0
클린징크림	0.00	1.3	기능성 음료	0.00	1.5
정화조청소료	0.00	1.4	수영장이용료	0.00	2.3
넥타이	0.00	2.7	의복대여료	0.00	1.1
주차료	0.00	0.7	약주	0.00	2.2
스키장이용료	0.00	1.9	피부질환제	0.00	2.6
놀이시설이용료	0.00	1.4	컵	0.00	2.2

자료 : 소비자물가조사, 2010, 통계청

부록 표 계속 기여도와 가격변동성 기준 481개 개별품목의 유형화

3사분면					
비목	기여도	변동성	비목	기여도	변동성
쓰레기봉투료	0.00	0.4	인터넷전화료	0.00	0.0
자동차의무보험료	0.00	0.4	인터넷이용료	0.00	0.0
소파	0.00	2.7	TV수신료	0.00	0.0
가스레인지	0.00	1.9	대학교재	0.00	0.0
혈압계	0.00	1.1	신문	0.00	0.0
PC방이용료	0.00	1.5	부동산중개수수료	0.00	0.0
전시관입장료	0.00	2.4	화장장이용료	0.00	0.0
레포츠이용료	0.00	1.8	초콜릿	0.00	0.7
과실주	0.00	2.3	방향제	0.00	0.7
진해거담제	0.00	1.0	전기밥솥	0.00	2.6
복사용지	0.00	2.5	막걸리	0.00	0.6
원예용품	0.00	1.5	방송수신료	0.00	1.0
믹서	0.00	2.4	골프연습장이용료	0.00	0.6
페이스파우더	0.00	0.8	채운계	0.00	2.6
모발염색약	0.00	0.6	프라이팬	0.00	2.2
이유식	0.00	1.0	대리운전이용료	0.00	1.2
장난감	0.00	0.7	이동전화기	0.00	2.5
껌	0.00	0.7	손목시계	0.00	2.8
전기매트	0.00	0.1	삼푸	0.00	1.9
납입금(국공립대학원)	0.00	0.3	에어컨	0.00	2.2
담배(국산)	0.00	0.0	예방접종비	0.00	2.1
모자	0.00	0.0	운동용품	0.00	1.3
가전제품수리비	0.00	0.0	자동차임의보험료	0.00	1.8
콘택트렌즈	0.00	0.0	수입승용차	0.00	2.5
자동차검사료	0.00	0.0	학교보충교육비	0.00	1.2
택시료	0.00	0.0	납입금(사립대학교)	-0.01	1.2
택배이용료	0.00	0.0	납입금(전문대학)	-0.01	2.0
일반전화통화료	0.00	0.0	스마트폰이용료	-0.01	0.9
4사분면					
비목	기여도	변동성	비목	기여도	변동성
전기료	0.05	2.7	점퍼	0.01	3.0
학원비(초등학생)	0.03	2.2	구내식당식사비	0.01	1.6
입원진료비	0.03	2.5	쇠고기(외식)	0.01	2.6
외래진료비	0.02	1.3	가정학습지	0.01	1.2
치과진료비	0.02	2.0	소주(외식)	0.01	1.6
여자외투	0.01	2.5	피자	0.01	2.2

자료 : 소비자물가조사, 2010, 통계청

Abstract

Abstract

The Study on Characteristics of Seoul's Price Structure and Future Policy Perspectives

Bum-Sik Kim · Bong Choi · Min-Young Hwang

After analyzing the stylized characteristics on the price structure of Seoul, preparing plans to stabilizing of the price is the purpose of the report.

The characteristics on the price structure of Seoul are summarized as following five properties.

Firstly, the growth rate of consumer price index of Seoul was stable 2011 years later and the gap with the core inflation was reduced. Major causes of this gap reduction are the changes in the consumption expenditure structure and the drop in level of contribution about the consumer prices rising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petroleum goods.

Secondly, the growth rate of CPI for Living Necessaries is exceptionally lower than that of CPI recently. This is mainly due to the price falls of childcare facilities usage fees and food service expense associated with the expanded implementation of free childcare & free meals policy, and also price stabilization of some agricultural products. Although Seoul's growth rate of CPI for Living Necessaries is becoming low recently, it is higher than any other cities in Korea.

Thirdly, since 2001 the price volatility of Seoul tend to be expanding as a whole. The high price volatility means the insufficient monitoring of consumer due to

information asymmetry and the low price shock absorption of market.

Fourthly, in terms of the price index by income class, it is analyzed that the price level of low-income brackets is higher than that of high-income brackets. In particular, whereas the inflation rate of the lowest income bracket is the highest, that of the highest income bracket is the lowest. The differences of Inflation rate by income groups are occurred by the difference in consumption patterns and in the price fluctuations of each item.

Finally, 21 sub items occurring the price instability such as vegetables & seaweeds, housing cost, educational cost etc. have been selected as the results of analysis based on the level of contribution about the consumer prices rising and the level of price volatility. When we analyzed the smaller categories of 481 items as the same way, 116 items such as rice, soybean, deposit money for the lease of a house, apartment management expense, private institutions fee etc. are selected as the main items causing price instability.

It is needed to regularly monitor the items occurring price instability in order to continue to price stability in Seoul. Particularly, the policies for the price stability in Seoul are needed that related to the items directly connected to the common people's price and high ratio of consumption such as housing cost, private educational expense and food items.

Table of Contents

Chp.1 Introduction

- 1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 2 Analysis Framework

Chp.2 Trends and Main Characteristics of Seoul's Price

- 1 Price Trends of Seoul Since 2000
- 2 Comparison with Price Levels of Seoul
- 3 The Analysis of Price Volatility of Seoul
- 4 Comparison with the Price Index by Income Class

Chp.3 The Analysis of Seoul's Price Structure

- 1 Price Structure by Purpose of Consuming
- 2 The Analysis of Level of Contribution about the Consumer Price Rising and Price Volatility by Sub Items
- 3 Categorizing the Items Causing Price Instability
- 4 The Diagnosis of Main Items Causing Price Instability

Chp.4 Future Policy Perspectives

- 1 Selecting and Monitoring the Items Causing Price Instability
- 2 Price Stabilization Schemes of the Main Items Causing Price Instability

서울연 2013-PR-43

서울시 물가구조의 특성분석과 정책방향

발행인 이창현

발행일 2013년 12월 31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025

값 10,000원 ISBN 978-89-8052-581-2 9332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